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2008년 4월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한국경제연구원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2008. 4.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선임연구위원	허 찬 국
연 구 위 원	안 순 권
연 구 위 원	김 필 헌
부 연 구 위 원	변 양 규
선 임 연 구 원	김 창 배

< 차례 >

요약	V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3
2. 물가	19
3. 노동시장	22
4. 금융시장	27
5. 외환시장	48
6. 해외경제	54
제 II 장 국내경제전망	63
1. 대내외 여건	65
2. 경제전망	70
제 III 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87
1. 문제제기	89
2. 서비스수지 적자 현황 및 요인	90
3.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방안	102
〈부록〉 주요 경제지표	115

< 표 차례 >

<표 I-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I-2> 지출항목별 기여도	5
<표 I-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7
<표 I-4> 소비	9
<표 I-5> 투자	12
<표 I-6> 품목별 수출	14
<표 I-7> 지역별 수출	15
<표 I-8> 용도별 수입	16
<표 I-9> 국가별·용도별 수입	17
<표 I-10> 최근 경상수지	19
<표 I-11> 물가 추이	21
<표 I-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2
<표 I-13> 취업자 추이	26
<표 I-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27
<표 I-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28
<표 I-16> 주요 금리 현황	32
<표 I-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40
<표 I-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41
<표 I-19> 은행의 가계대출	42
<표 I-20> 가계신용 추이	43
<표 I-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45
<표 I-22>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	46
<표 I-23> 주식시장 주요 지표	48
<표 I-24> 원/달러 환율	50
<표 I-25> 자본 유출입 추이	53
<표 I-26> 미국의 경제지표	56
<표 I-27> 일본의 경제지표	57

〈표 I-28〉 EU의 주요 경제지표	58
〈표 I-2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60
〈표 I-30〉 유가 및 CRB 지수(기말기준)	61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66
〈표 II-2〉 2008년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72
〈표 II-3〉 2008년 시뮬레이션 결과	73
〈표 II-4〉 가계수지 추이	74
〈표 II-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76
〈표 II-6〉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77
〈표 II-7〉 은행의 CD 및 은행채 수신	81
〈표 II-8〉 2008년 국내경제전망	84
〈표 II-9〉 2008년 5% 성장률 달성에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85
〈표 III-1〉 최근 경상수지 추이	91
〈표 III-2〉 산업별 취업자 비중	95
〈표 III-3〉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97
〈표 III-4〉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97
〈표 III-5〉 종사자규모별 10인 이하 기업체수 비중	98
〈표 III-6〉 세계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99
〈표 III-7〉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99
〈표 III-8〉 주요 OECD 국가 서비스부문의 경제적 비중(2003년 기준)	100
〈표 III-9〉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우위 비교	100
〈표 III-1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투자 비교	101
〈표 III-11〉 2008년 경제전망	103
〈표 III-12〉 내외국인 출입국 동향	106
〈표 III-13〉 서비스업종별 법적 진입장벽(2007년 6월 말 기준)	111

<그림 차례>

<그림 I-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4
<그림 I-2> 생산증가율 추이	6
<그림 I-3> 소비증가율 추이	9
<그림 I-4> 투자증가율 추이	11
<그림 I-5> 최근 수출 추이	13
<그림 I-6> 최근 수입 추이	16
<그림 I-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20
<그림 I-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25
<그림 I-9> 시장금리 추이	29
<그림 I-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30
<그림 I-11> 신용스프레드 추이	31
<그림 I-12>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 악화	32
<그림 I-13> 스왑베이스스(CRS-IRS) 추이	33
<그림 I-14> 국고채-CRS 스프레드 추이	34
<그림 I-15> 통화스왑 개념도	35
<그림 I-16> 금리스왑 개념도	35
<그림 I-17> 본드-스왑스프레드 거래	36
<그림 I-18> 통화스왑거래를 통한 금리재정거래	37
<그림 I-19> 스왑베이스스를 이용한 금리차익거래	38
<그림 I-20> 주가지수 추이	47
<그림 I-2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49
<그림 I-22> 외환거래량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49
<그림 I-2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52
<그림 II-1>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78
<그림 III-1> 2000년 이후 경상수지 및 대외환경 변화 추이	90
<그림 III-2> 경상수지 세부품목 추이	92
<그림 III-3> 일본과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	93

〈그림 Ⅲ-4〉 우리나라 상품수지 변동 추이	93
〈그림 Ⅲ-5〉 서비스수지 세부품목 추이	94
〈그림 Ⅲ-6〉 여행수지 세부품목 추이	94
〈그림 Ⅲ-7〉 국가별 서비스업의 GDP 대비 무역 비중	96
〈그림 Ⅲ-8〉 여행 및 사업서비스 수지의 추이	104
〈그림 Ⅲ-9〉 일반여행 수입 및 지급 추이	105
〈그림 Ⅲ-10〉 사업서비스 수지 추이	109
〈그림 Ⅲ-11〉 업종별 생산성 추이	110
〈그림 Ⅲ-12〉 규제완화의 수출입 창출효과 국제 비교	112

I. 최근 경제동향

■ 국내총생산, 2007년 4/4분기 성장세 소폭 확대

-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회복과 총수출의 증가에 기인
 - 계절조정 전기비: 1.0%('07년 1Q) → 1.7%(2Q) → 1.5%(3Q) → 1.6%(4Q)
 - 전년동기비: 4.0%('07년 1Q) → 4.9%(2Q) → 5.1%(3Q) → 5.7%(4Q)
- 내수 성장기여도는 확대, 수입 급증으로 순수출 성장기여도는 감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4/4분기 및 올 1~2월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제조업생산은 전자제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호조
 - 전년동기비: 6.1%('07년 3Q) → 11.2%(4Q) → 10.8%('08년 1~2월)
-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금융 및 보험업 주도로 견조한 증가세 유지
 - 전년동기비: 7.2%('07년 3Q) → 6.8%(4Q) → 6.8%('08년 1~2월)

■ 소비는 지난해 4/4분기 및 올 1~2월 증가세 둔화

- 도소매 판매: 5.3%('07년 3Q) → 4.8%(4Q) → 3.1%('08년 1~2월)
- 소비재 판매: 7.1%('07년 3Q) → 4.5%(4Q) → 3.8%('08년 1~2월)

■ 설비투자 증가세 4/4분기 회복 후 2008년 1~2월 감소세로 반전

- 올 1~2월에는 전년동기 반도체 장비 투자와 ATM 교체투자 증가의 기저효과로 1.9% 감소
 - 국내기계수주도 19.0%에 그쳐 4/4분기(29.9%)에 비해 둔화

■ 건설투자는 4/4분기 및 2008년 1~2월 중 증가세 회복

- 지난해 4/4분기 8.0% 증가한 데 이어 올 1~2월에도 7.2% 증가
 - 건설기성액(경상): 4.4%('07년 3Q) → 8.0%(4Q) → 7.2%('08년 1~2월)
 - 건설수주금액은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의 급증으로 4/4분기에 29.5% 증가했으나 2008년 1~2월에는 그 역효과로 평균 9.7% 감소

■ 수출입 높은 증가세 지속

- 수출, 지난해 4/4분기 18.2% 증가, 올 1~3월 중에도 17.6% 증가
- 수입, 유가 및 원자재가 상승으로 4/4분기 25.9%, 1~3월 중 28.2% 증가

■ 경상수지는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지난해 12월 이후 적자 지속

- 2007년 59.5억 달러 1~2월 중에는 약 50억 달러 적자

■ 소비자물가 상승세, 올 1/4분기 3.8% 증가

-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원화절하로 수입물가가 1~2월 중 21.4% 급등

■ 고용지표 개선 악화

- 4/4분기 이후 양적 고용지표 악화
 - 취업자: 29.6만 명('07년 3Q) → 27.9만 명(4Q) → 23.5만 명('08년 1월) → 21.0만 명(2월)
 - 고용률: 60.2%('07년 3Q) → 60.0%(4Q) → 58.3%('08년 1월) → 58.0%(2월)
 - 실업률: 3.1%('07년 3Q) → 3.0%(4Q) → 3.3%('08년 1월) → 3.5%(2월)
- 고용의 질적지표는 개선
 - 상용근로자 및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 수 증가세

■ 금리 및 환율

- 시장금리: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면서 3월을 저점으로 반등
 - 회사채금리: 7.01%(1월 8일) → 6.24%(2월 18일) → 6.05%(3월 5일) → 6.07%(3월 28일)
 - CD금리: 5.89%(1월 10일) → 5.17%(3월 3일) → 5.37%(3월 28일)
- 원화, 국제금융불안, 미 경기침체, 경상수지적자 등의 영향으로 약세
 - 938.20(1월 2일) → 949.00(2월 25일) → 1,021.70(3월 18일) → 990.40(3월 31일)

■ 미국경제: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상승 압력 상승

-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되면서 경기둔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음.
 - 더불어 원유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인플레 압력이 증가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둔화

- 4/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소폭 증가(0.1%포인트)했으나, 올 들어 회복세 둔화 우려 증대
 - 고유가 및 건축규제의 강화 등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감소
 - 1월 중 수출 성장세가 엔화 강세 등으로 7.6%로 둔화

■ EU경제: 성장세 둔화

- 2007년 4/4분기 성장률(0.4%)은 전기(0.7%)에 비해 소폭 둔화
 - 물가상승에 따른 소비위축과 유로화 강세에 따른 수출둔화에 기인

■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물가압력 심화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

- 총통화, 올해 들어 춘절을 대비한 자금공급 및 대출실행의 재확대 등으로 18.2% 증가
- 1~2월 중 소비자물가는 7.9% 증가

■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유지

- 2007년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가는 지속적인 중동정세 불안과 OPEC의 증산 거부, 일부 유전의 생산차질, 투기수요의 유입 등 수급의 불균형으로 높은 상승세 지속

II. 2008년 경제전망

1.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 2007년 12월 전망 발표 이후 대내외 여건이 급격히 변화
 -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본원의 최종 전망 수치는 다음과 같음.
 - 성장률 5.1%, 소비자물가 상승률 3.2%, 경상수지적자 -14억 달러
- 이에 따른 2008년 경제전망 수정 불가피
 -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과 근거

〈표 1〉 2008년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전망시점	2008년 외생변수 가정						
	주요국 성장 및 수출		비용요인		환율		감세
	미국	중국수출	두바이유	원자재가격	원/달러	엔/달러	
'07년 12월	2.0%	20%	85(달러)	15%	910	105	X
'08년 4월	0.5%	15%	90(달러)	20%	980	100	1조7050억
근거	IMF, 전망치 하향 1.9%→0.5%	중국, 수출둔화 25.7%('07년) →16.5% ('08년 1~2월)	CERA, 전망상향 81달러 →90달러	IMF, 원자재지수 상승 14.4%('07년) →17.5% ('08년 1~2월)	956원 (1~3월) →991.0 (3월 31일)	105엔 (1~3월) →99.8 (3월 31일)	정부, 세제개편

2. 수정전망의 내용

■ 개요

- 성장률

- 5.1%(2007년 12월 전망) ⇒ 4.5%(수정전망): 0.6%포인트 하락

- 소비자물가

- 3.2%(2007년 12월 전망) ⇒ 4.3%(수정전망): 1.1%포인트 상승

- 경상수지

- -14억 달러(2007년 12월 전망) ⇒ -88억 달러(수정전망): 74억 달러 악화

〈표 2〉 2008년 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성장률 (%)	소비자물가 증가율 (%)	경상수지 (억 달러)
기존전망(2007년 12월 발표)	5.1	3.2	-14
S1: 미국, 중국 등 세계경기둔화	-0.8	-0.2	-40
S2: 국제유가 상승	-0.3	+0.2	-36
S3: 원자재가격 상승	-0.1	+0.2	-45
S4: 원/달러 환율 상승	+0.3	+0.8	+33
S5: 엔/달러 환율 하락	+0.2	+0.1	+20
S6: 세계개편에 따른 조세 감면	+0.1	+0.0	-6
기본전망(S1+S2+S3+S4+S5+S6)	4.5(-0.6)	4.3(+1.1)	-88(-74)

주: () 안은 기존전망대비

■ 부문별

- 민간소비 둔화: 2007년 4.5% ⇒ 2008년 4.4%

- 미국경제의 불황과 원자재가격 및 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국제금

용시장의 불안 고조 등으로 소비심리 위축

- 건설투자 소폭 증가: 2007년 1.2% ⇒ 2008년 2.0%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 및 기업도시 등 공공부문 주도로 소폭 회복되었으나 주택가격안정화정책, 미분양물량 누적 등으로 회복세 미약
- 설비투자 둔화: 2007년 7.4% ⇒ 2008년 6.7%
 - 높은 제조업 평균가동률,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정책 등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금융시장 경색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제한적
- 수출(BOP 기준) 둔화: 2007년 14.2% ⇒ 2008년 11.7%
 - 미국경제의 둔화, 중국의 긴축강화,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율 둔화
- 경상수지 적자전환: 2007년 +59.5억 달러 ⇒ 2008년 -88.2억 달러
 - 서비스수지의 적자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증가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큰 폭으로 축소
- 소비자물가 급등: 2007년 2.5% ⇒ 2008년 4.3%
 - 원유,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 해외발 비용인플레이션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화약세 가세
- 시장금리 소폭 상승: 2007년 5.7% ⇒ 2008년 6.0%(회사채, 3년, AA-)
 -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금리가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원/달러 환율 큰 폭 상승: 2007년 929원 ⇒ 2008년 980원
 - 원화약세의 핵심 요인인 글로벌 금융 불안의 해소가 예상되는 하반기에는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성이 약화될 전망

〈표 3〉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GDP	5.0	5.1	4.1	4.2	4.6	4.5
(SA, 전기비%)		0.1	0.9	1.7	1.7	
민간소비	4.5	4.5	4.3	4.2	4.5	4.4
건설투자	1.2	1.8	1.3	2.0	2.6	2.0
설비+무형고정자산	7.4	4.0	4.6	9.7	8.5	6.7
수출(재화+서비스)	12.1	13.0	10.4	8.4	7.2	9.6
수입(재화+서비스)	11.9	13.4	11.4	10.2	8.7	10.9
소비자물가	2.5	3.8	4.5	4.4	4.3	4.3
생산자물가	2.6	6.3	6.6	5.4	4.1	5.6
경상수지(억 달러)	59.5	-79.5	-46.0	9.4	27.9	-88.2
상품수지(억 달러)	294.1	-5.7	11.7	68.2	59.8	134.1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1001.3	1049.7	1037.1	1143.3	4231.4
증가율%	14.2	15.8	13.0	10.5	8.1	11.7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1007.0	1038.0	968.8	1083.5	4097.3
증가율%	15.5	25.2	20.8	15.1	9.4	17.2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73.8	-57.7	-58.8	-31.9	-222.3
환율(원/달러, 평균)	929.3	956.0	996.0	989.0	980.0	980.3
회사채수익률(3yrs, AA-)	5.7	6.4	6.0	5.7	5.9	6.0
실업률(%)	3.2	3.5	3.3	3.2	3.2	3.3

3. 정책과제

■ 대외여건 악화를 상쇄하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

- 규제개혁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지속

- 전경련이 조사한 2008년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은 89.9조 원(지난 12월 조사)에

서 92.8조 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새 정부의 기업투자환경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 2008년 본원이 예상한 고정투자 금액은 실질 233.6조 원(전년대비 4.2%), 경상 277.0조 원(6.8%)
- 투자계획이 100% 추진될 경우, 고정투자는 4.2% → 6.5%로, 성장률은 4.5% → 5.2%로 높아질 것으로 추산됨.

- 경기부진 가시화될 경우 상반기 중 금리인하 고려

-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5%였으므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선(2007~2009년 3.5%)을 감안할 때 현 물가상승추세는 단기적으로 수용가능

■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진행되는 물가상승은 해외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총수요억제정책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물가안정정책이 바람직

- 고비용구조 해소(물류, 유통구조 개선, 규제비용 및 세금부담 완화)
- 임금안정 및 생산성 향상

Ⅲ.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1) 환율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는 신중해야

- 경상수지 개선 효과는 있으나, 물가상승 압력의 심화 우려
 - 원/달러 환율이 980원에서 1,0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경상수지는 약 8억 달러 개선되는 반면 소비자물가는 약 0.2%포인트 상승
 -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추가적 물가상승 압력은 경제에 큰 부담

(2) 교육시스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해외연수 및 유학수지 개선

- 영어교육 강화를 통한 해외수요 대체
 - 해외연수의 대부분이 영어습득을 위한 것임을 감안, 공교육기관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마을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학급규모 내지 교육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

(3)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 필요

- 관광산업의 외국인 고용 유연화
 -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최대 불편사항인 언어소통 문제를 경감
- 원활하고 효율적인 여행정보 전달 방안을 강구
 - IT기술을 기반으로 one-stop-service 개발(예: 택시 내 무료통역서비스)
-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 천연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 강화
-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
 - 2005년 한류를 이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은 성공사례
 - 외국인 평가가 좋은 음식 관련 관광사업 아이템 개발 및 활성화

-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수요에 맞춘 위락도시 개발을 활성화

(5) 사업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

- 사업서비스는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
 - 제조업과의 공조를 통한 아웃소싱 활성화로 분업화 및 전문화를 도모
 - 고등교육기관의 경쟁 도입 등으로 전문고급인력을 확보할 필요

(6) 대기업 진출 및 기업 간 M&A의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산업 대형화

- 진입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진출과 기업 간 M&A를 활성화하여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력 향상(규모의 경제)과 종사인력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
-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형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방안 필요
- 한·미 FTA로 인한 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해야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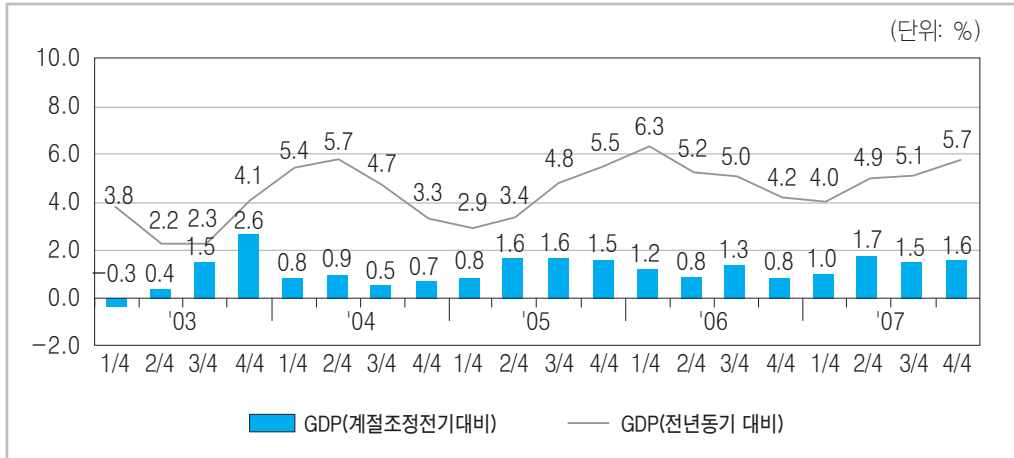
■ 4/4분기 성장세 지속, 증가율 다소 상승

- 2007년 4/4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은 1.6%로, 2/4분기 이후 양호한 증가세 지속, 2007년 3/4분기(1.5%) 대비 0.1%포인트 증가율 상승
 - 계절조정 전기비: 1.0%('07년 1Q) → 1.7%(2Q) → 1.5%(3Q) → 1.6%(4Q)
 - 전년동기비: 4.0%('07년 1Q) → 4.9%(2Q) → 5.1%(3Q) → 5.7%(4Q)

- 2007년 4/4분기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의 경우 민간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성장세 확대
 - 민간소비 증가는 계절조정 전기비 1.3% 증가한 3/4분기에 비해 4/4분기에는 0.8%로 축소
 - 건설투자 감소세는 3/4분기 0.2%로 반전되고 4/4분기에는 1.2%로 확대
 - 설비투자는 3/4분기 기계류 투자의 급감으로 1.8% 감소를 보인 조정국면을 벗어나 4/4분기 2.1% 증가로 회복
 - 총수출은 3/4분기에 증가세가 1.3%로 크게 둔화되었으나 4/4분기에는 일반기계 및 선박류의 호조로 7.0%의 증가율을 보이며 회복
 - 총수입은 3/4분기 3.2% 감소세에서 1분기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4/4분기 8.8% 증가를 보임.

- 3/4분기에 비해 4/4분기 내수 및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2.3%포인트 및 4.2%포인트로 확대되었으나 순수출의 기여도는 -0.1%포인트로 축소
 - 민간소비 증가세 유지와 설비투자 감소세 반전으로 인해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7년 3/4분기 -0.6%포인트에서 4/4분기 2.3%포인트로 확대
 - 지난 3/4분기에 비해 수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었으나,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2007년 3/4분기 1.7%포인트에서 4/4분기 -0.1%포인트로 낮아짐.

<그림 1-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표 1-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국내총생산	0.8	5.1	1.0	1.7	1.5	1.6	5.0
민간소비	0.9	4.5	1.6	0.9	1.3	0.8	4.5
건설투자	1.2	-0.1	-0.3	-1.2	0.2	1.2	1.2
설비투자	-1.7	7.8	4.5	1.6	-1.8	2.1	7.6
수출(재화와 서비스)	-0.2	11.8	4.0	3.8	1.3	7.0	12.1
수입(재화와 서비스)	-0.7	11.3	4.9	4.6	-1.8	8.8	11.9

자료: 한국은행

〈표 1-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p)

구 분	2006년		2007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내수	0.2	3.7	1.6	1.3	-0.6	2.3	3.6
민간소비	0.5	2.2	0.8	0.4	0.6	0.4	2.2
건설투자	0.2	0.0	0.0	-0.2	0.0	0.2	0.2
설비투자	-0.2	0.9	0.5	0.2	-0.2	0.2	0.9
수출(재화와 서비스)	-0.1	6.4	2.3	2.3	0.8	4.2	7.0
순수출	0.2	1.3	0.0	0.0	1.7	-0.1	1.3

자료: 한국은행

(2)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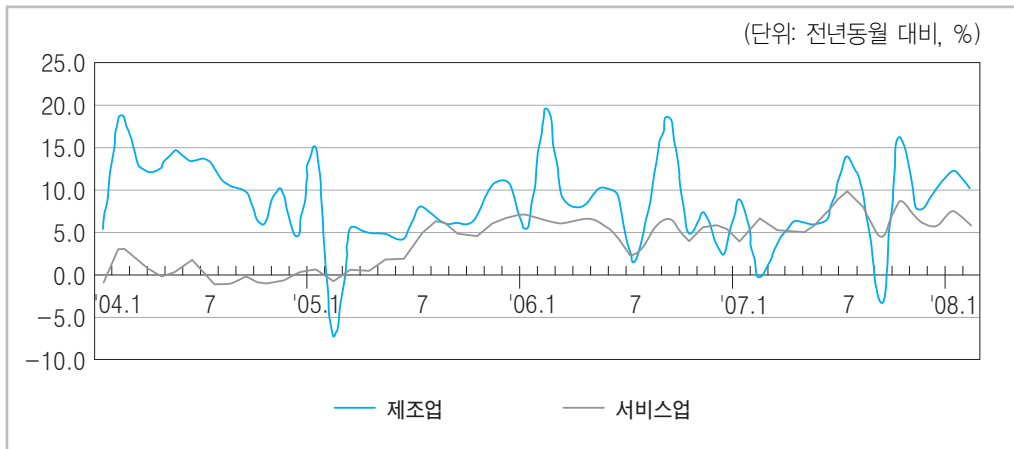
■ 제조업 생산 증가세 유지

- 제조업 생산은 전 업종에 걸쳐 고른 성장세를 보였고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의 높은 증가세로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1.2%, 1, 2월에는 10.8%의 높은 증가율 시현
 -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18.8%의 증가세를 보였던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은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25.3%, 2008년 1, 2월 평균 32.7% 증가로 증가세 확대 국면
 - 정보통신업종의 제조업ICT지수도 지난 2/4분기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며 4/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25.3% 증가하였고 2008년 1, 2월에는 평균 32.2%의 증가세를 보임.
 - 지난 3/4분기 6.6%의 견고한 증가를 보였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도 전년동기 대비 6.5%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특히 신차출시 효과 등으로 인해 2008년 1, 2월에도 전년동기 대비 평균 6.1%의 증가세를 유지
 - 2/4분기의 감소세에서 3/4분기 7.9% 증가로 반전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4/4분기에도 전년동기 대비 8.1%의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2008년 1, 2월에는 평

균 2.9% 증가에 그침.

- 3/4분기 전년동기 대비 1.5%의 감소세를 보인 경공업은 4/4분기에는 4.7%의 증가세로 반전했으나, 2008년 1, 2월에는 평균 2.0%로 증가세 감소
- 4/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1.1%포인트 증가하였고 2008년 1, 2월에는 평균 1.9%포인트 증가하여 회복세 유지

<그림 1-2> 생산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서비스업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 지속

- 4/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8% 증가했고 2008년 1, 2월에도 평균 6.8% 증가하며 증가세 지속
 - 전년동기비: 6.1%('07년 2Q) → 7.2%(3Q) → 6.8%(4Q) → 6.8%('08년 1, 2월 평균)
- 금융 및 보험업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전 업종에서 성장세 유지
 - 금융 및 보험업은 여신금융업, 신용카드 및 할부금융업, 금융관련서비스업의 호조로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19.5%의 증가세를 보이고 2008년 1, 2월에도 평균 16.4%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그 외 업종의 부진에 도소매업 생산 증가는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하회
- 호텔업, 다과점업의 부진에 의해 숙박 및 음식점업 역시 서비스업 전체 증가율을 하회
- 4/4분기 유일하게 감소를 보인 부동산 및 임대업은 2008년 1, 2월에는 평균 5.9% 증가세로 반전

〈표 1-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평균
제조업 전체	8.6	4.0	6.3	6.1	11.2	7.0	10.8
중공업	9.9	4.6	7.1	7.9	12.6	8.2	13.1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22.5	2.3	7.7	18.8	25.3	14.0	32.2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7	6.2	-3.0	7.9	8.1	4.9	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	0.2	8.5	6.6	6.5	5.4	6.1
경공업	3.4	1.3	2.8	-1.5	4.7	1.8	2.0
제조업ICT지수	22.5	2.3	7.7	18.8	25.3	14.0	32.2
평균가동률 증감(%p)	0.6	-2.0	1.5	1.4	1.1	0.5	1.9
서비스업 전체	5.5	5.4	6.1	7.2	6.8	6.4	6.8
도소매업	3.8	4.3	3.7	4.2	5.2	4.3	3.8
숙박 및 음식점업	2.2	2.0	2.6	2.2	2.9	2.4	3.1
운수업	6.9	6.6	5.5	8.4	8.0	7.1	7.1
통신업	3.6	3.1	2.9	2.3	6.3	3.7	4.6
금융 및 보험업	9.0	9.5	16.3	18.3	19.5	16.0	16.4
부동산 및 임대업	9.8	6.9	2.0	6.6	-3.5	2.7	5.9
사업서비스업	5.7	5.3	6.7	7.0	7.4	6.6	6.0
교육 서비스업	2.6	3.0	2.5	2.5	1.4	2.3	3.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0	8.3	9.0	9.2	7.4	8.5	6.8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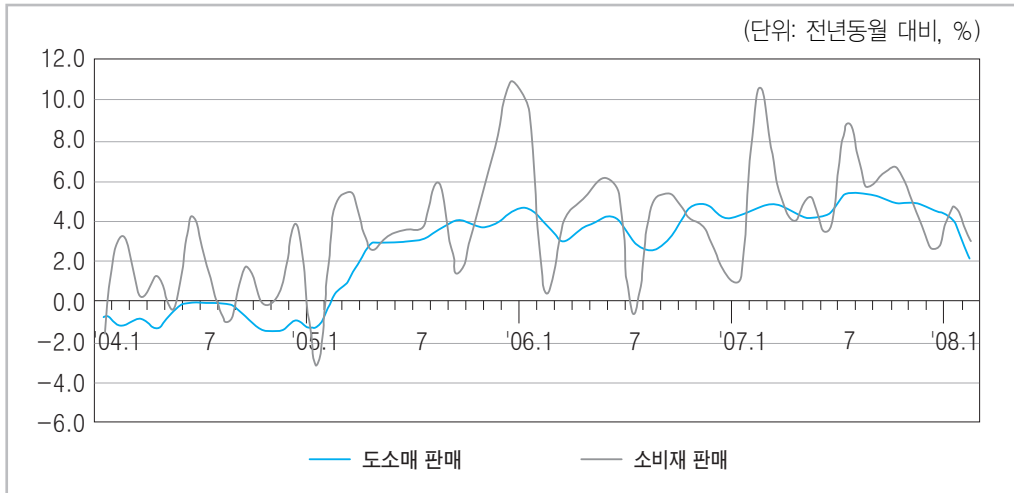
(3) 소비

■ 소비는 4/4분기 및 2008년 1, 2월 증가세 하락

- 4/4분기 도소매 판매와 소비재 판매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4.8%와 4.5% 증가하였으나 2008년 1, 2월에는 증가세 하락
 - 도소매 판매: 5.3%('07년 3Q) → 4.8%(4Q) → 3.1%('08년 1, 2월 평균)
 - 소비재 판매: 7.1%('07년 3Q) → 4.5%(4Q) → 3.8%('08년 1, 2월 평균)
 - 내구재 판매 증가(4Q 전년동기 대비 6.2%, '08년 1, 2월 평균 6.1%)를 중심으로 소비재 판매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특히 2008년 1, 2월에는 내구재 중 승용차 판매의 증가를 중심으로 소비재 판매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증가세는 감소
 - 2008년 1, 2월에는 내구재(전년동기 대비 6.1%) 및 준내구재(전년동기 대비 8.3%)의 높은 증가세로 부진한 비내구재 증가세(전년동기 대비 1.2%)를 만회함.

- 업체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4/4분기에는 부진했으나 2008년 1, 2월에는 회복세
 - 4/4분기 백화점 및 대형할인점 매출은 3/4분기에 비해 부진한 증가율을 보여 각각 2.8%, 4.4% 증가에 그쳤으나 2008년 1, 2월에는 각각 5.0%, 7.5%로 회복
 - 무점포판매는 4/4분기 4.0%의 증가세로 반전하고 2008년 1, 2월에는 평균 12.9%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07년 지속적 감소세를 보이던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은 4/4분기 역시 10.3%의 큰 감소율을 보였으나 2008년 1,2월 평균 감소율 3.9%로 축소

〈그림 1-3〉 소비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평균
도소매 판매	3.8	4.6	4.3	5.3	4.8	4.7	3.1
소비재 판매	4.1	5.7	4.2	7.1	4.5	5.3	3.8
백화점	3.2	-2.0	-1.3	3.2	2.8	0.8	5.0
대형할인점	8.1	9.8	8.5	12.1	4.4	8.7	7.5
무점포판매	0.0	-6.0	-5.7	-1.1	4.0	-2.3	12.9
기타소매점(재래시장 포함)	4.2	-2.4	-7.1	-2.1	-10.3	-5.5	-3.9

자료: 통계청

(4) 투자

■ 설비투자 4/4분기 증가세 회복, 2008년 1, 2월 감소세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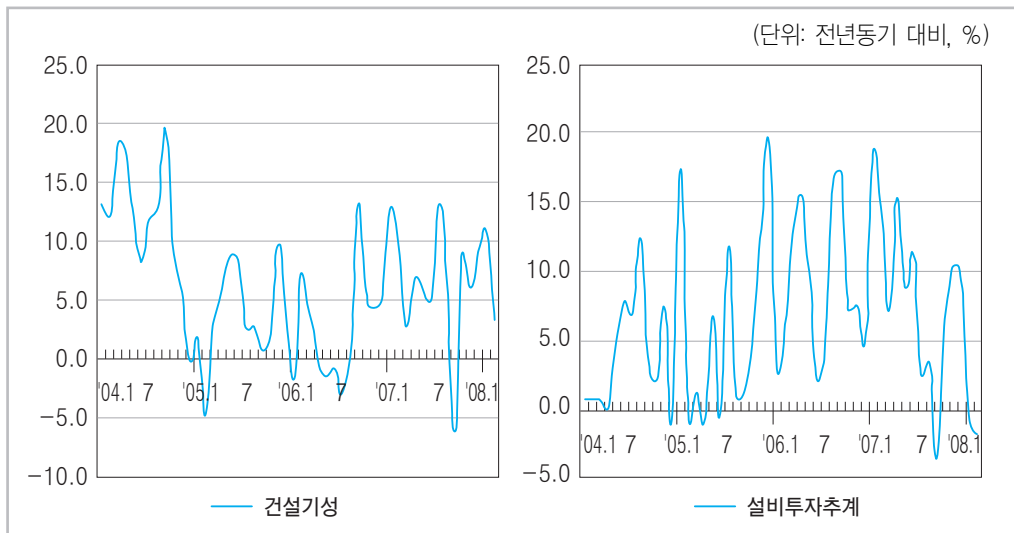
- 2007년 3/4분기 반도체 투자 조정, ATM 교체투자 마무리로 인해 0.7% 증가에 그쳤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4/4분기에 운수장비 및 기타 등의 투자 증가로 인하여 9.2% 증가
 - 4/4분기에 운수장비 및 기타의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21.0%, 39.0% 증가
 - 2008년 1, 2월 설비투자추계는 2007년 동월 반도체 장비의 투자와 ATM 교체투자의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및 반도체장비, 금속가공·처리기계 등의 투자 부진으로 평균 1.9% 감소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불변 기준)는 4/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9.9% 증가하였으나 2008년 1, 2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19.0%의 증가에 그쳐 향후 설비투자 큰 회복은 힘들듯
 - 3/4분기 15.2% 감소한 공공부문 기계발주는 4/4분기 8.3% 증가로 회복하였으나 2008년 1, 2월에는 전기업(원자로), 공공기타(데스크톱 컴퓨터) 등의 감소로 평균 4.1% 감소
 - 지난 3/4분기부터 확대된 민간부문 기계발주 증가세는 4/4분기에도 지속되어 33.8% 증가하였으나 2008년 1, 2월에는 평균 20.8%로 증가세 감소
 - 기타운송장비제조업 기계발주 증가가 주도한 민간부문 제조업 기계발주는 4/4분기 58.0%, 2008년 1, 2월 평균 34.4% 증가율을 유지하여 민간부문 설비투자 회복세를 주도
 - 비제조업 부문은 금융·보험업, 운수·창고업의 기계발주 감소로 4/4분기 10.0%, 2008년 1, 2월 평균 7.5% 증가에 그침.

■ 4/4분기 및 2008년 1, 2월 건설투자 증가율 회복세

- 4/4분기 국내건설기성(경상)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전반적인 공사실적 호조로 증가율 감소세에서 반전하여 전년동기 대비 8.0% 증가하였으나, 2008년 1, 2월에는 공공부문의 감소로 7.2% 증가

- 6.0%('07년 2Q) → 4.4%(3Q) → 8.0%(4Q) → 7.2%('08년 1, 2월 평균)
 - 공공부문 건설기성은 2008년 2월 전년동월 대비 0.4% 감소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은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의 급증으로 4/4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2008년 1, 2월에는 그 역효과로 9.7% 감소
- 4/4분기 건설수주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의 급증으로 공공 47.2%, 민간부문 28.6% 증가하여 전체 29.5% 증가
 - 2008년 1, 2월 건설수주는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이 지난 4/4분기에 집중되고 주택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전년동기 대비 17.0% 감소하고 그 효과로 인해 전체 건설수주는 9.7% 감소

<그림 1-4> 투자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2월 평균
설비투자추계(불변)	8.9	12.8	11.9	0.7	9.2	8.6	-1.9
국내기계수주(불변)	18.9	16.1	7.4	14.7	29.9	17.0	19.0
공공	7.1	12.1	-23.5	-15.2	8.3	-4.0	-4.1
민간	20.5	16.4	10.5	18.8	33.8	19.6	20.8
제조업	32.5	8.3	5.8	28.8	58.0	24.3	34.4
비제조업	10.4	25.0	15.4	9.3	10.0	15.0	7.5
건설기성액(경상)	2.6	7.9	6.0	4.4	8.0	6.6	7.2
건설수주(경상)	9.0	26.3	26.3	-5.6	29.5	19.3	-9.7
공공부문	-6.3	49.3	21.2	7.3	47.2	34.2	3.6
민간부문	12.8	21.8	17.0	-12.9	28.6	13.1	-17.0
민자	55.9	-64.3	683.4	62.5	-21.8	42.4	147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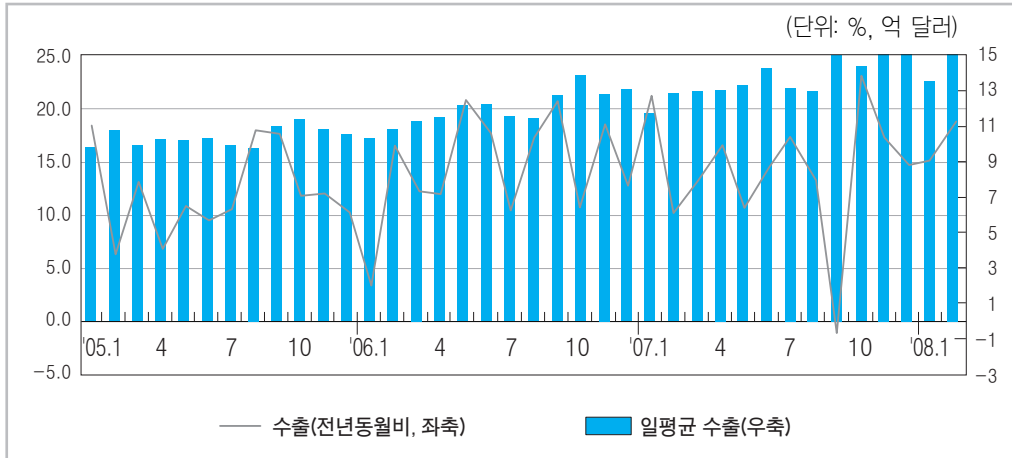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수출

■수출 호조세 지속

- 3/4분기 9.4%이던 수출증가율이 4/4분기 18.2%로 큰 폭 증가했고, 1~3월 중에는 17.7% 증가하여 호조세 지속
 - 원화강세 및 유가급등 등의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등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호조로 2007년 수출은 전년대비 14.1% 증가를 기록
 - 일평균 수출금액은 3/4분기 13.7억 달러, 4/4분기 14.9억 달러, 1~2월 중 14.7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 지속

〈그림 1-5〉 최근 수출 추이



자료: 산업자원부

— 품목별 수출은 견조한 증가세

- 자동차는 수출전략차종의 확대와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하여 확대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북미시장의 수요 감소와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외여건 악화로 4/4분기 증가세가 둔화됨(3Q 18.6% → 4Q 11.5% → 1~3월 중 16.8%).
- 무선통신기기는 3G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선진시장의 수요증대와 더불어 신흥시장의 저가폰 신규수요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선박은 안정된 수주물량과 신공법에 의한 건조능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 * 1월 중 수출증가율 감소는 선박인도스케줄에 기인한 일시적 변화
- 석유제품은 역내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함께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3/4분기 정기보수 등으로 2007년 수출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 컴퓨터는 레이저 프린터와 모니터의 강세지속 및 HDD 등 보조기억장치, 주변기기 호조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이나 2월 들어 국내 생산기반이 약화되면서 증가폭이 둔화

- 반도체는 2007년 주요 부품 가격의 급락¹⁾으로 수출규모가 감소 추세를 보임.
 * 1~2월 중 D램가격은 반도체 관련 설비투자의 감소와 대만업체들의 감산 등으로 소폭 반등

〈표 1-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3.20
수출전체	10.6	16.9	16.3	13.8	14.4	14.6	14.1	9.4	18.2	14.1	15.1	18.8	25.8
반도체	13.9	16.3	19.6	48.1	24.6	20.8	4.3	9.4	-11.2	4.6	-21.7	-16.2	-10.5
자동차	10.5	7.8	15.3	13.4	11.6	3.4	20.4	18.9	11.5	13.3	18.2	3.6	28.5
무선통신기기	1.4	-2.0	1.7	-7.4	-1.7	-0.5	8.9	10.1	31.1	12.6	27.5	17.8	48.0
컴퓨터	-4.0	-15.5	-14.5	-9.6	-10.9	-4.5	12.6	18.4	14.0	9.8	6.6	4.9	4.9
선박	-1.1	48.2	11.6	41.0	24.8	30.5	40.7	5.1	19.8	25.4	-4.9	58.6	15.9
석유제품	35.3	54.2	47.9	2.1	32.8	20.7	10.1	-8.2	58.1	17.3	88.4	43.7	83.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지역별 수출

- 대중국 수출은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4분기 23%, 1~2월 중 15.7%의 증가율을 보이며 호조세 지속
- 대일본 수출은 2007년 엔화약세 및 수출선 전환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했으나, 4/4분기 이후 무선통신기기(19.8%)와 석유제품(59%) 수출증가에 힘입어 1~2월 중 15%의 증가세 기록
- 대미국 수출은 2007년 석유제품과 무선통신기기 등의 수출호조로 전년대비 6.0% 증가했으나, 1~3월 중 미국경기의 침체로 감소세로 전환
- 대ASEAN 수출은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20.8%의 증가세 시현, 1~2월 중 36.7% 증가

1) D램 평균 가격 추이(달러/개, DDR2 512M): ('07년 1월)5.69 → (7월)2.16 → (8월)2.02 → (9월) 1.57 → (10월)1.31 → (11월)1.01 → (12월)0.86 → ('08년 1월)0.91 → (2월)0.97

- 대EU 수출은 2007년 일반기계, 철강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17% 증가, 1~2월 중에는 17.4% 증가

〈표 1-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3.20
중국	12.2	18.9	14.4	15.6	23.0	18.0	13.5	17.9	31.5
일본	10.4	-1.6	-1.5	-6.9	7.2	-0.6	18.6	11.3	15.2
미국	4.5	11.0	7.8	-4.1	9.6	6.0	0.4	-9.6	10.0
ASEAN	16.9	27.4	25.3	7.4	25.1	20.8	25.8	47.6	35.8
EU	11.0	14.6	17.3	13.0	17.0	15.5	29.1	5.6	2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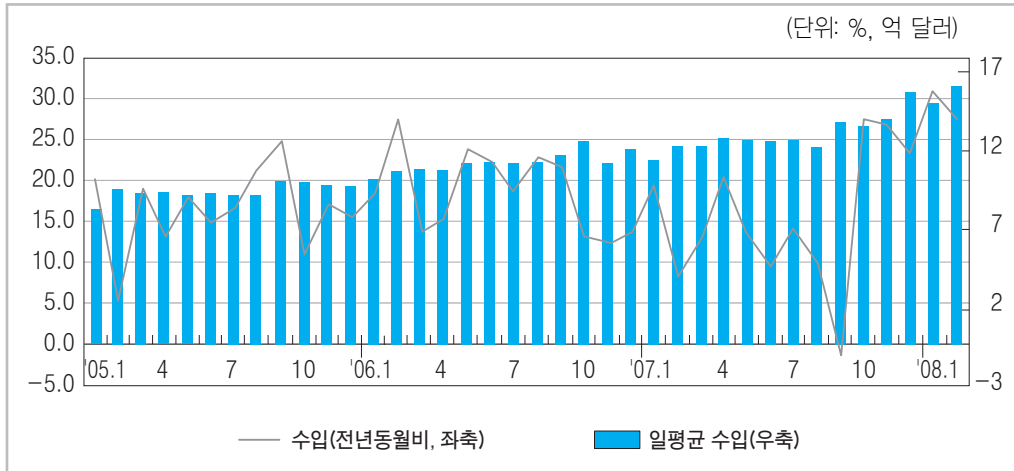
자료: 한국무역협회

(6) 수입

■ 수입 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화 강세, 내수회복 등으로 3/4분기(7.3%)에 이어 4/4분기(25.9%)와 1~2월 중(28.2%)에 큰 폭 증가세를 보임.
 -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금액도 3/4분기 13억 달러, 4/4분기 14.5억 달러, 1~2월 중 15.7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그림 1-6〉 최근 수입 추이



자료: 지식경제부

- 용도별로는 2007년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모두 고른 증가세를 보임
 - 원자재는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6.4% 증가했으며, 1~3월 중 46.4%로 큰 폭 증가
 - 자본재는 설비투자 증가 추이 둔화 등으로 전년대비 14.3% 증가, 1~3월 중 컴퓨터 부품관련 수입감소로 증가세가 소폭 감소(14.0%)
 - 소비재 수입은 내수회복세의 영향 등으로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세를 기록(4Q 17.5% → 1~3월 22.5%)

〈표 1-8〉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1~3.20
수입총액	19.7	20.4	21.1	13.0	22.8	13.4	14.7	7.3	25.9	15.3	31.0	27.6	39.4
원자재	24.6	24.7	26.7	16.0	11.7	13.0	15.1	8.1	29.0	16.4	43.5	39.6	56.0
자본재	12.0	11.9	14.4	8.6	19.9	12.7	16.5	5.1	22.8	14.3	13.2	13.9	14.8
소비재	19.5	21.8	20.8	17.8	18.4	21.3	14.7	11.8	22.1	17.5	23.8	10.4	33.2

자료: 한국무역협회

- 주요 수입국별로는 2007년 일본, 미국, 중국 3국에서의 수입이 증가세를 보임.
- 일본에서의 수입은 자본재 및 소비재가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연간 8.3%의 증가세를 보였고, 원자재 수입도 1~2월 중 34.8% 증가함.
 - 2007년 중국에서의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골고루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1~2월 중 자본재 수입이 17.8% 감소했고 소비재 수입도 4.3%의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치면서, 2월 중 수입총액은 15.9%를 기록
 -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007년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 해에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2월 들어 자본재와 소비재의 수입이 늘어나면서 월평균 수입총액이 5.9% 증가함.

〈표 1-9〉 국가별 · 용도별 수입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일 본	수입총액	7.3	9.2	7.9	1.5	14.6	8.3	9.7	20.4
	원자재	15.7	16.6	13.3	5.4	16.0	12.7	40.5	29.0
	자본재	2.0	9.3	12.1	0.1	14.3	9.0	3.6	13.1
	소비재	9.2	-1.2	1.9	-0.6	21.1	5.3	23.2	19.2
중 국	수입총액	25.6	32.5	34.7	21.6	31.1	29.8	29.5	15.9
	원자재	19.9	42.8	49.1	21.5	34.8	36.4	12.8	22.0
	자본재	30.9	25.7	30.0	24.4	10.0	22.1	-17.0	-18.6
	소비재	27.0	27.5	18.5	16.9	16.5	19.5	17.1	-8.5
미 국	수입총액	10.0	7.9	17.8	0.5	16.9	10.6	4.3	7.5
	원자재	3.7	21.1	21.3	28.9	35.0	26.8	11.6	39.7
	자본재	12.1	-2.4	18.3	-13.2	38.5	9.3	43.2	45.2
	소비재	15.2	21.3	13.1	11.0	16.1	15.2	47.0	22.2

자료: 한국무역협회

(7) 경상수지

- 2007년 하반기 수출의 호조로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는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1~2월 중 적자로 반전
 - 2007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59.5억 달러
 - 하반기 수출 호조로 75.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그러나 4/4분기 들어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흑자규모는 3/4분기 44.3억 달러에서 31.5억 달러로 축소됨.
 - 1~2월 중 경상수지는 월평균 25.5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꾸준한 호조세를 보이던 상품수지가 올해 들어 적자로 반전
 - 서비스 수지적자는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 월평균 2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 여행수지 등 서비스수지 적자추세는 지속
 - 서비스수지: 상반기 -105.8억 달러 → 하반기 -100억 달러
 - 여행수지: 상반기 -72.7억 달러 → 하반기 -78.3억 달러
 - 2007년 하반기 큰 폭으로 흑자전환 했던 소득수지는 1~2월 중에도 14.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
 - 상반기 22.3억 달러 적자에서 하반기 30억 달러 흑자로 전환
 - 상반기 높은 외국인 주식보유비중, 주가 급상승 등에 따른 외국인 배당수익 증가 등으로 적자를 보이던 소득수지는 최근 내국인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개선되는 모습

〈표 I -10〉 최근 경상수지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경상수지(=A+B+C+D)	53.9	-16.6	0.3	44.3	31.5	59.5	-26.0	-23.5
A. 상품수지	279.1	60.4	69.7	96.8	67.3	294.1	-10.1	-6.0
B. 서비스수지	-189.6	-61.8	-44.0	-58.8	-41.2	-205.7	-20.7	-22.5
여행수지	-130.6	-36.1	-36.6	-43.6	-34.7	-150.9	-14.1	-10.4
사업서비스수지	-71.7	-22.6	-17.1	-19.1	-25.1	-83.8	-11.1	-9.3
C. 소득수지	5.3	-6.9	-15.4	16.6	13.4	7.7	7.7	7.0
D. 경상이전수지	-40.9	-8.3	-10.0	-10.3	-8.0	-36.5	-2.9	-2.0

자료: 한국은행

2. 물가

■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3% 후반대로 확대

- 4/4분기 2005년 5월 이후 처음 3%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1~3월 중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
 - 공업제품 가격은 4/4분기 4.0% → 1월 5.8% → 2월 5.7% → 3월 6.3%로 급증세
 - 개인서비스 가격은 4/4분기 3.4% → 1~3월 중 3.8%
 -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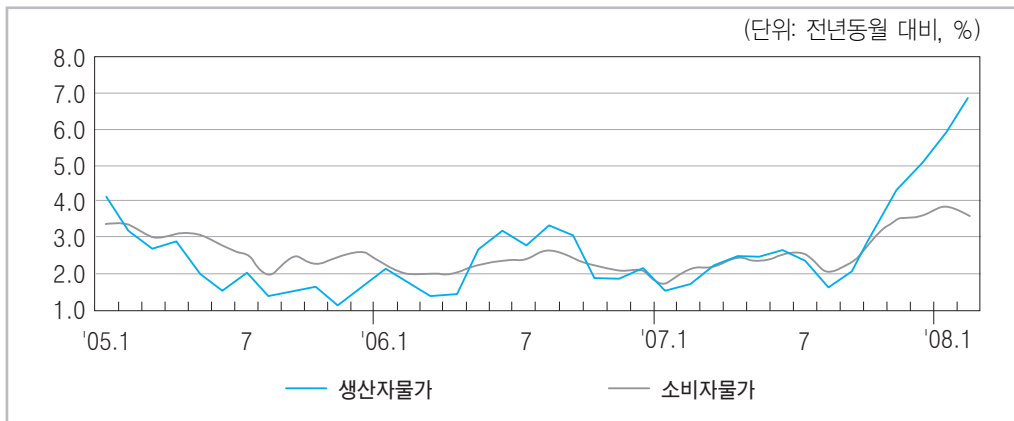
-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2007년 2% 초반대에서 1~2월 중 2.8%로 상승세 확대
 - 2.3%('07년 1Q) → 2.4%(2Q) → 2.3%(3Q) → 2.4%(4Q) → 2.8%(1~2월)

■ 생산자물가는 더욱 가파른 상승세

- 3/4분기 2.1%에서 4/4분기 4.2%로 높아진 후 1~2월 중 6.4%로 급증

- 1.8%('07년 1Q) → 2.6%(2Q) → 2.1%(3Q) → 4.2%(4Q) → 6.4%(1~2월)
- 2007년 생산자물가는 농수산물 작황부진과 원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전년대비 2.7% 증가
- 새해 들어 생산자물가는 농수산물의 설 수요증가 및 공급감소,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지속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4% 증가

〈그림 1-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수입물가, 큰 폭 상승

- 2007년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과 곡물가의 급등 등으로 전년대비 8.4%(계약통화기준) 증가
 -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3/4분기 2.0%에서 4/4분기 16.8% 급등
 - 달러기준 및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1~2월 중 각각 22.5%, 20.7%의 큰 증가세를 보임.

〈표 I -11〉 물가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3월
소비자물가	2.1	2.5	2.4	3.4	2.6	3.9	3.6	3.9
상품	0.9	1.5	1.3	4.0	2.0	4.9	4.3	4.7
농축수산물	1.4	2.0	0.5	3.8	1.9	1.9	-0.6	-1.3
공업제품	0.7	1.4	1.5	4.0	2.0	5.8	5.7	6.3
서비스	2.8	3.1	2.9	3.1	3.0	3.3	3.3	3.5
집세	1.6	1.8	2.0	1.9	1.8	1.9	1.9	2
공공서비스	2.8	3.5	3.1	3.3	3.2	3.1	3.5	3.3
개인서비스	3.2	3.2	3.2	3.4	3.2	3.7	3.7	3.9
근원인플레이션	2.3	2.4	2.3	2.4	2.3	2.8	2.8	
생산자물가	1.8	2.6	2.1	4.2	2.7	5.9	6.8	
수 입 ¹⁾ 물 가	원화기준	1.5	2.86	1.56	12.23	4.54	20.68	22.11
	계약기준	5.61	5.76	4.62	14.64	7.66	20.06	21.25
	달러기준	5.86	5.63	4.93	15.71	8.03	21.83	23.11
가 공 단계별	원재료	-1.6	0.4	3.8	27.8	7.4	45.1	45.0
	중간재	3.2	4.1	2.2	6.9	4.1	10.8	12.9
	최종재	0.4	1.1	0.6	2.6	1.1	3.6	3.5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부동산 가격은 안정세 지속

- 부동산 관련 규제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보험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가격은 3월 들어 정책변화의 가시화 등으로 소폭 상승 추세를 보임.
 - 강북지역이 재개발 및 거주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강남지역에 비해 상대적인 강세

〈표 1-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전국	0.9	0.4	0.2	0.1	0.1	0.1	0.3	0.2	0.3	0.3	0.3	0.1	0.3	0.3	0.8
서울강북(14개구)	2.0	0.6	0.6	0.5	0.4	0.5	0.7	0.4	0.6	0.6	0.9	0.6	1.2	0.9	2.0
서울강남(11개구)	1.1	0.2	0.2	0.0	-0.2	0.1	0.4	0.3	0.2	0.2	0.0	0.0	0.2	0.4	0.8

자료: 국민은행

3. 노동시장

■ 양적 고용지표 개선 약화

- 2007년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8.2만 명 증가하여 30만 개 일자리 창출에 실패하였으며 2008년 1월과 2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 대비 23.5만 명과 21.0만 명 증가에 그쳐 일자리 창출 하락세 지속
 - 29.6만 명('07년 3Q) → 27.9만 명(4Q) → 23.5만 명('08년 1월) → 21.0만 명(2월)
- 고용률 역시 2007년 2/4 분기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8년 2월 고용률 58.0%는 지난 2003년 2월 이후 최저치
 - 60.2%('07년 3Q) → 60.0%(4Q) → 58.3%('08년 1월) → 58.0%(2월)
- 연령별 취업자 수의 추이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청년실업문제를 반영하여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임.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2008년에 들어 더욱 빠른 감소세를 보임.
 - 2007년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던 중년층(30~49세)의 취업자 수는 2007년 4/4분기 이후 성장세로 돌아섬.
 - 인구구조 고령화를 반영하여 장년층 이상(5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특히 2007년 2/4분기 들어 최초로 5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추월

- 서비스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
 - 서비스업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2% 이상의 취업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체감경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의 감소세가 2007년 4/4분기 이후 다시 강화되어 서비스업 전체 증가세는 다소 둔화
 -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 4/4분기 이후 제조업 생산활동 증가로 그 감소세가 다소 둔화
 -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2008년 2월 현재 7개월 연속 감소세

■ 임금근로자 및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증가세, 비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 2007년 4/4분기 이후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3%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1, 2월에 그 증가세는 약화
 - 2007년 4/4분기 비임금근로자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확대되면서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계약)는 전년동기 대비 5.1%(42.3만 명) 증가하여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그 증가세는 다소 약화
 -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2월 10.8만 명이 감소하여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세를 둔화시킴.
- 2007년 지속된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세는 2008년 1, 2월에도 지속
 - 2007년 4/4분기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1.8%(13.5만 명) 감소하였고 2008년 1, 2월에도 각각 2.0%(14.1만 명), 1.2%(8.8만 명) 감소하여 감소세 유지
 -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노동시장 이탈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됨.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세 지속으로 고용의 질 개선 유지
 -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4/4분기 2.2% 증가한 이후 2008년 1월과 2월에

각각 2.1%와 3.9% 증가

-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는 4/4분기 5.1% 감소하였고 2008년 1월과 2월에도 각각 4.0%와 14.4% 감소하여 그동안 고용의 질적 개선을 저해하던 추세에서 벗어남.

■ 실업자수 및 실업률 상승세로 돌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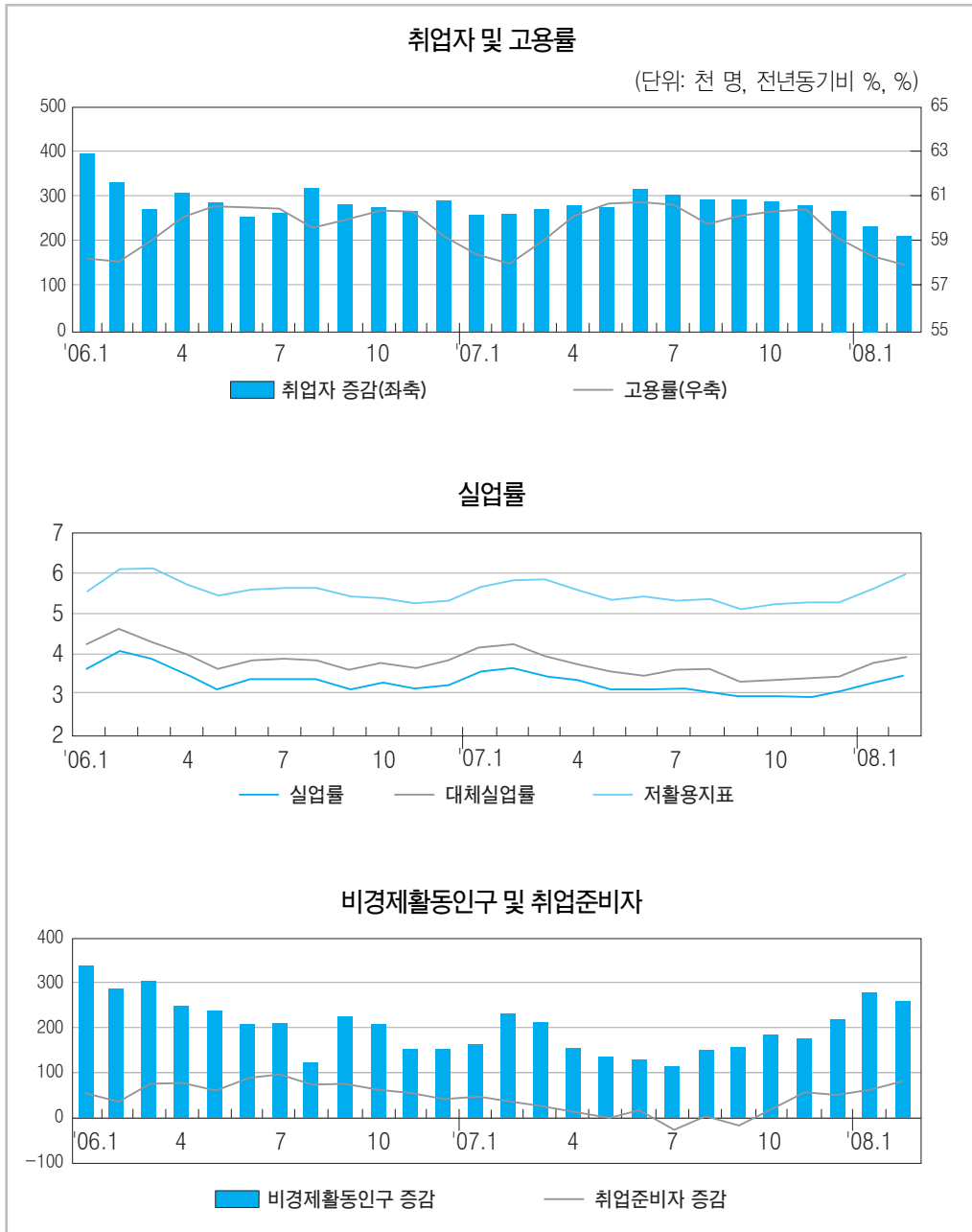
- 2008년에 들어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세 시작

- 4/4분기 실업자는 73.4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6만 명 감소하였으나 2008년 1, 2월 각각 77.5만 명, 81.9만 명으로 증가세
- 실업률 역시 4/4분기 3.0%를 저점을 지나 2008년 1월과 2월 각각 3.3%, 3.5% 상승세로 반전
- 4/4분기 청년(15~29세)실업률도 전년동기 대비 0.8%포인트 낮아진 7.0%로 개선되었으나 2008년 1월과 2월에 각각 7.1%, 7.3% 상승세로 반전
- 대체실업률(U4, 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및 구직단념자 비율) 및 노동력 저활용지표(경제활동인구 대비 실업자 및 취업준비자 비율) 역시 4/4분기 저점을 지나 상승세를 보임(월간 대체실업률 및 노동력 저활용지표는 실업률이 3.0%에 머물러 있던 2007년 10월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

- 4/4분기 이후 전년동기비 비경제활동인구의 큰 폭 증가

- 4/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500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9.3만 명 증가하였으며 2008년 1, 2월에는 그 증가폭이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0만 명, 26.3만 명 증가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비통학 취업준비)의 수가 크게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이 4/4분기, 1월, 2월 각각 9.0%, 13.6%, 16.5%에 다다름.

<그림 1-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자료: 통계청

〈표 1-13〉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증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취업자수		23,151	22,841	23,698	23,610	23,582	23,151	22,964	22,884
전년동기비 증감		295	264	289	296	279	282	235	210
고용률		59.7	58.6	60.6	60.2	60	59.8	58.3	58
취업 시간 대별	36시간 미만	0.6	6.4	1.7	23.7	-5.1	7.5	-4.0	-14.4
	36시간 이상	1.5	0.2	1.1	-2.4	2.2	0.3	2.1	3.9
연령별	15~29세	-4.0	-2.1	-1.6	-1.4	-1.2	-1.6	-2.6	-3.0
	30~49세	0.9	0.0	-0.5	-0.4	0.2	-0.2	0.5	0.5
	50세 이상	6.0	6.1	6.5	6.3	4.6	5.9	4.6	4.5
종사상 지위별	비임금근로자	-0.9	-2.2	-1.1	-2.2	-1.8	-1.8	-2.0	-1.2
	자영업주	-0.6	-1.9	-0.9	-1.3	-1.4	-1.4	-2.3	-0.6
	무급가족종사자	-2.2	-3.2	-1.8	-5.9	-3.4	-3.6	-0.4	-4.1
	임금근로자	2.4	2.8	2.4	3.0	2.6	2.7	2.4	1.9
	상용	3.6	4.3	4.6	6.2	5.1	5.1	5.2	4.8
	임시	1.7	2.5	0.7	-0.3	-0.6	0.6	-1.2	-1.4
	일용	-0.4	-2.4	-1.7	-1.6	1.1	-1.2	0.1	-1.9
임금근로자비율		67.2	68.5	67.8	67.9	68.5	68.2	69.8	69.2
산업별	제조업	-1.6	-1.2	-1.3	-1.2	-0.9	-1.2	-0.7	-0.6
	건설업	1.2	2.7	1.6	-0.3	-0.5	0.8	-0.3	-0.7
	서비스업	2.5	2.1	2.4	2.8	2.5	2.4	2.1	2.0

자료: 통계청

〈표 I -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업자	827	851	791	756	734	783	775	819
실업률	3.5	3.6	3.2	3.1	3.0	3.2	3.3	3.5
청년(15~29세)실업률	7.9	7.6	7.3	7.1	7.0	7.2	7.1	7.3
계절조정실업률		3.3	3.3	3.2	3.2		3.0	3.0
대체실업률(U4) ¹⁾	4.0	4.1	3.6	3.5	3.4	3.7	3.8	4.0
저활용지표 ²⁾	5.6	5.8	5.5	5.3	5.3	5.5	5.7	6.0
비경제활동인구	14,784	15,305	14,647	14,865	15,000	14,954	15,650	15,724
구직단념자	122	129	95	108	99	108	123	120
취업준비	525	530	559	539	557	546	567	607

주: 1) 대체실업률(U4)=(실업자+구직단념자)/경제활동인구*100

2) 저활용지표=(실업자+취업준비자)/경제활동인구*100

자료: 통계청

4. 금융시장

(1) 통화지표

■ 2월 중 M2 증가율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여 12% 후반으로 추정

- 2월 중 M2 증가율은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늘어난 데다 정부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압력이 지속되어 1월에 비해 소폭 증가한 12% 후반으로 추정
 - 1월 이후 정부부문이 공적자금관리기금 및 국고여유자금의 자금운용 등으로 공급으로 돌아섰고 중소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민간신용 증가세에 기인
- 2월 중 Lf(금융기관 유동성) 증가율도 전월보다 소폭 상승한 11%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

〈표 1-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평잔 기준)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1/4	2/4	3/4	4/4	연중	1/4	2/4	3/4	10월	11월	12월	1월	2월
M2	7.0	7.2	8.1	10.9	8.3	11.5	11.0	11.1	10.8	11% 내외	11% 내외	12% 중반	12% 후반
Lf ¹⁾	7.2	7.4	7.5	9.2	7.9	10.0	10.2	10.2	10.4	10% 초반	10% 초반	11% 내외	11% 중반

주: 1) 광의유동성(L) 지표 신규편제에 따라 M3가 Lf(금융기관 유동성)로 개칭되어 유동성지표로 활용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2)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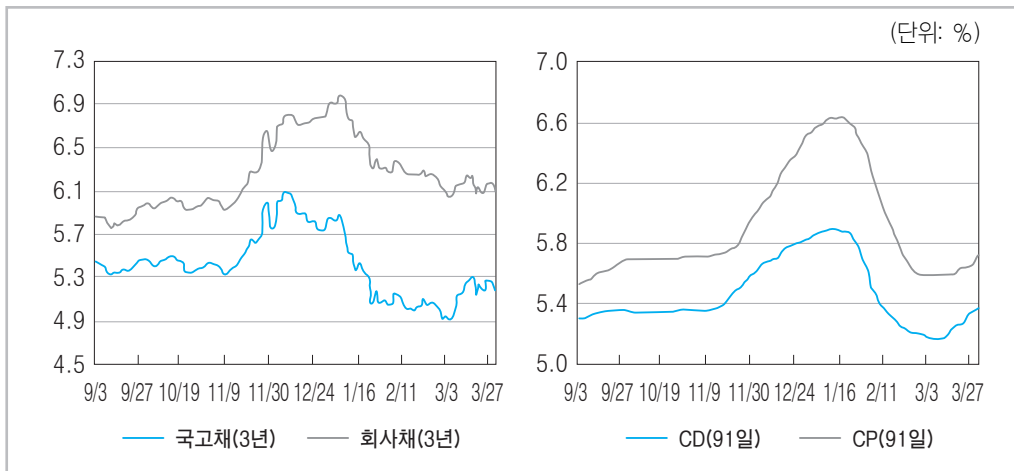
■ 1월 이후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에 따른 통화긴축완화 기대 등으로 지속하던 시장금리는 3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

- 성장을 중시하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통화 정책 완화 기대 및 국내외 경기둔화 우려,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콜금리 목표의 인하 기대 등으로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금리는 1월 이후 하락세를 시현
 -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 등의 국채선물 순매수가 지속되고 추가하락 등으로 은행권으로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은행발 유동성 위기가 완화 등의 영향으로 큰 폭의 금리하락을 기록
 - 국고채 유통수익률: 5.90%(1월 8일) → 5.0%(2월 18일) → 4.92%(3월 5일) → 5.17%(3월 28일)
 - 회사채 유통수익률: 7.01%(1월 8일) → 6.24%(2월 18일) → 6.05%(3월 5일) → 6.07%(3월 28일)
- CD금리는 은행권 고금리 특판예금 중심의 자금유입 확대되며 은행권의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된 데다 MMF 수신 호조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
 - CD발행 규모 둔화의 영향으로 CP금리도 크게 하락하였으며 특히 은행의 자금사

정 개선으로 은행계열의 캐피탈사 등의 CP발행이 감소한 것도 한 요인

- CD금리: 5.89%(1월 10일) → 5.17%(3월 3일) → 5.37%(3월 28일)
- CP금리: 6.63%(1월 16일) → 5.58%(3월 3일) → 5.66%(3월 28일)
- 콜금리는 목표치 5% 내외에서 안정세를 유지

〈그림 1-9〉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시장금리는 3월 중순 이후 고유가 지속과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며 상승세로 반전
- 글로벌 금융불안에 따른 원화 약세로 외국인의 국채 선물 순매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시장금리가 상승
- CD금리가 급등한 것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로 과도하게 떨어졌던 데 따른 조정국면을 연출
- 원/달러 환율급등에 따른 스왑시장 불안도 큰 폭의 금리상승세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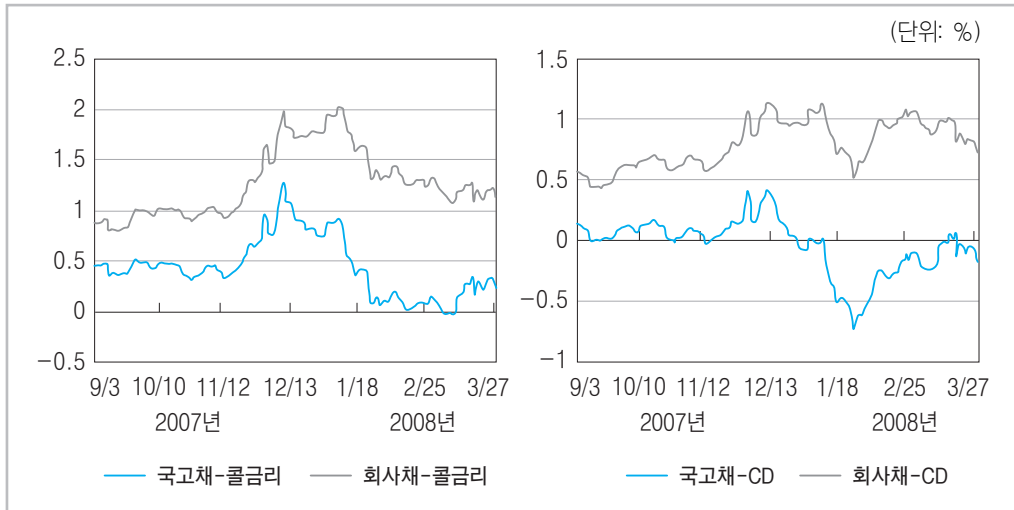
■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장단기 금리차는 1월 이후 축소되어 일부에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 신용스프레드는 상승세를 지속하다 3월 들어 진정세

- 1월 중순 이후 3월 초순까지 장단기금리가 모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장기금리의

하락폭이 단기금리의 하락폭보다 더 커 장단기금리 격차가 축소되다가 일부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

- 2월 말과 3월 초에 미 국채수익률 급락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국고채 수익률이 콜금리 목표(5%)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락, 2004년 12월 이후 38개월 만에 국고채 금리와 정책금리가 역전
- 국고채 금리와 정책금리가 일시적으로 역전된 것은 향후 달러 약세로 인한 원화 강세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원자재 수요 감소 등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일부 완화시킬 것이란 기대가 작용
- 국고채(3년) 금리와 회사채금리(3년)는 1월 중순 이후 3월 초순까지 역전 현상이 발생
-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통화긴축정책으로 인한 단기금리상승과 장기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 하락에 기인

〈그림 1-10〉 장단기 금리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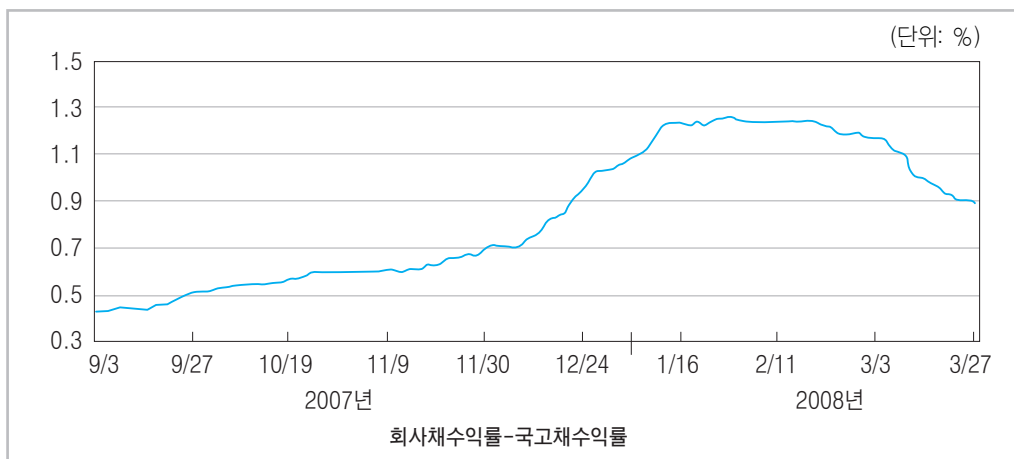
- 1월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어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고조로 신용스프레드는 지난해 11월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다 3월 들어 진정세
- 경기둔화 우려와 뚜렷한 기업실적의 호조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신용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

- 1월 이후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다시 고조됨에 따라 정부가 발행하는 외평채의 가산금리와 회사채 신용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프리미엄이 급상승한 후 3월 18일 미 추가금리인하와 베어스턴스 긴급구제 등 이후 점차 진정
 - 외평채 가산금리(2014년 만기, bp): 80('07년 11월 7일) → 104('07년 12월 12일) → 156('08년 1월 2일) → 220('08년 3월 17일) → 206('08년 3월 27일)
 - CDS프리미엄(5년물, bp): 35('07년 11월 7일) → 47('08년 1월 2일) → 83('08년 2월 1일) → 125('08년 3월 7일) → 97('08년 3월 31일)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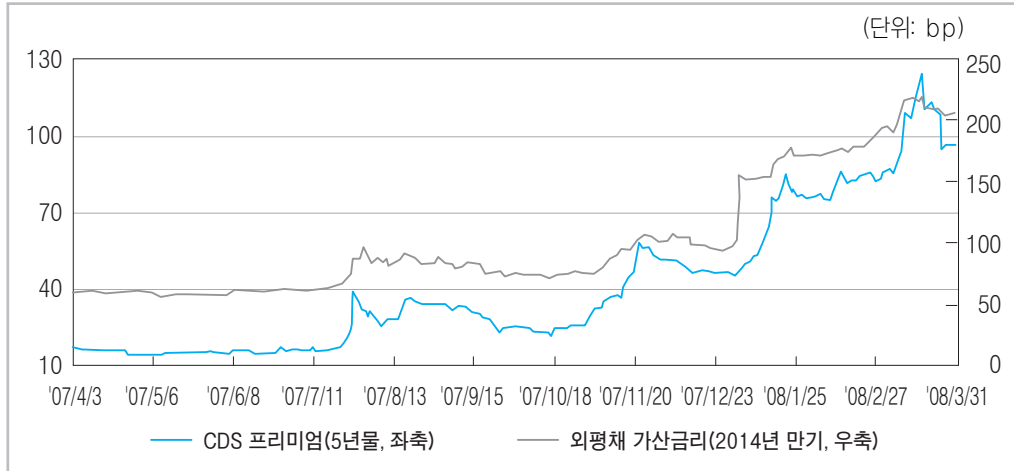
- 신용위험을 전가하고자 하는 보장매입자가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대가로 기초자산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용위험을 떠안은 보장매도자에게 손실액 또는 일정 금액을 보전받기로 하는 거래
- 회사채를 매입한 투자자가 발행 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원리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보험의 성격을 가진 신용파생상품임.
- 회사채 발행의 신용위험이 증가하면 CDS프리미엄도 올라가게 됨.
- 5년 만기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해외 발행 한국물의 기준금리로 사용되고 있음.
- CDS프리미엄의 상승세가 지속되면 한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해외자금 조달업무는 더 어려워지게 됨.

〈그림 1-11〉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그림 1-12〉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 악화



자료: 국제금융센터

〈표 1-16〉 주요 금리 현황

(단위: 연리 %, 말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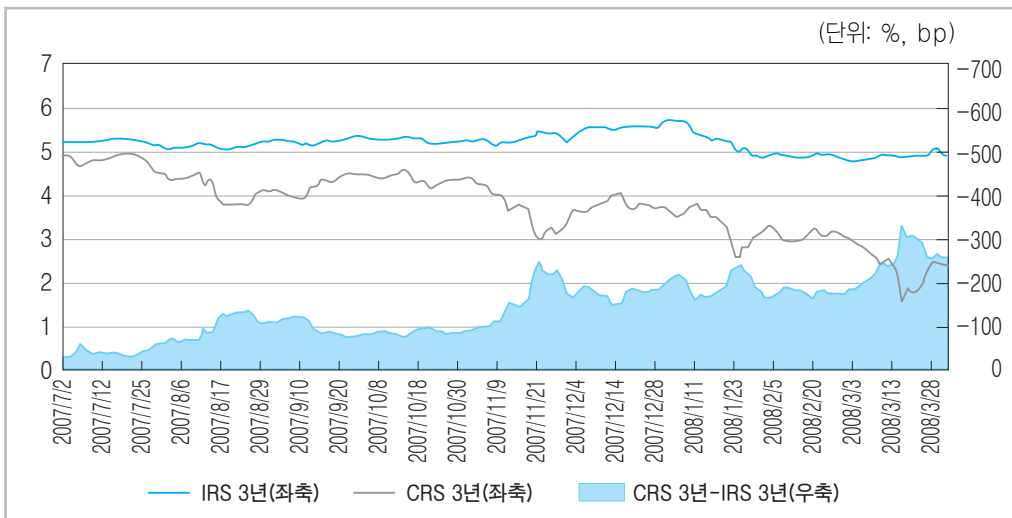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27일
콜금리(1일물)(A)	3.76	4.60	5.00	5.00	4.99	4.99	4.97	4.94
CD유통수익률(91일)	4.09	4.86	5.34	5.43	5.73	5.81	5.28	5.36
CP유통수익률(91일)	4.32	5.03	5.70	5.77	6.25	6.54	6.54	5.72
국고채(3년)(B)	5.08	4.92	5.42	5.54	5.89	5.44	5.44	5.17
회사채(3년, AA-)(C)	5.52	5.29	5.98	6.16	6.73	6.64	6.64	6.07
B-A (%포인트)	1.32	0.32	0.42	0.54	0.90	0.45	0.47	0.23
C-A (%포인트)	1.76	0.69	0.98	1.16	1.74	1.65	1.67	1.13
C-B (%포인트)	0.44	0.37	0.56	0.72	0.84	1.20	1.20	0.90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월 이후 점차 진정양상을 보이던 국내 스왑시장에서 3월 중 이자율스왑(IRS)금리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통화스왑(CRS)금리는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완화되며 상승세로 반전

- IRS금리는 3월 들어 상승요인과 하락 요인이 혼재
 - 물가불안 우려 발언과 금리인하 기대 후퇴와 CD금리 상승, 외국인의 국채선물 매도 등은 상승 요인
 - 미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금리인하 기대 등은 하락요인
- 1월 이후 점차 안정되던 통화스왑(CRS)금리는 3월 중 베어스틴스 사태 등에 따른 신용경색 우려와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인한 달러 수요의 증가로 급락세가 보인다 당국의 스왑시장 개입으로 진정됨.
- 금리인하 기대 후퇴에 따른 CD금리의 상승에 따른 IRS금리 상승의 영향 및 신용 경색에 따른 단기물 위주의 달러 수요 증가 등으로 1년물 스왑베이스스가 한때 사상 최대치인 400bp까지 확대
 - 3년물 스왑베이스스도 3월 17일 사상 최대치인 400bp까지 확대
 - CRS금리는 3월 하순 원/달러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달러 유동성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상승세로 반전
 - CRS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스왑베이스스가 2주 만에 300bp 이하로 축소되어 스왑베이스스 1년물이 299bp로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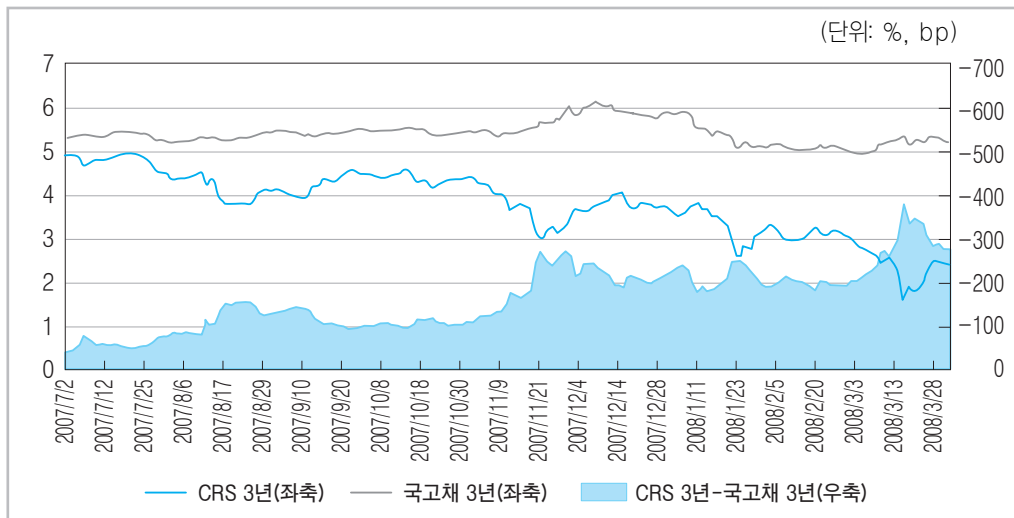
〈그림 I -13〉 스왑베이스스(CRS-IRS) 추이



자료: 산업은행

- 3월 중 CRS금리의 급락과 스왑베이스 확대는 지난해 11월과 같은 외국금융기관의 손절매가능성 우려를 높였으나 손절매로 인한 시중금리 급등은 발생치 않았음.
- CRS금리의 급락에 따른 스왑베이스의 확대는 외국금융기관의 스왑포지션 평가손 축소를 위한 포지션 재조정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가능성을 높임.
- 그러나 CRS 금리의 회복세로 스왑포지션의 급격한 재조정은 일어나지 않았음.
- CRS금리의 급락은 국내금리상승세와 맞물리며 CRS금리와 국고채금리의 스프레드(CRS-국고채)가 390bp까지 크게 확대
- 이는 신규차익거래 증가 유인이 될 수 있으나, 국고채금리 상승에 따른 평가손과 CRS금리 급락에 따른 CRS지급(pay) 계약의 평가손 등으로 인한 보유채권의 손절매 가능성을 높임.
- 그러나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11월보다는 낮은 수준인데다 CRS금리 하락도 지난해보다 낙폭이 적은 상황이어서 지난해와 같은 손절매 및 시중금리 급등상황은 발생치 않은 것으로 분석

〈그림 1-14〉 국고채-CRS 스프레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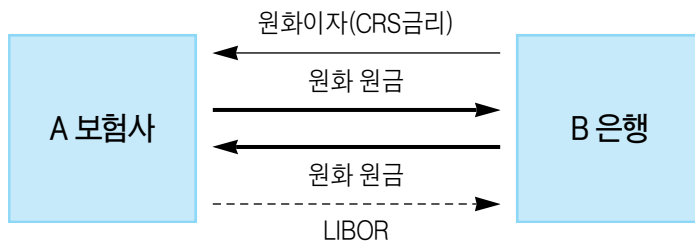
자료: 산업은행

※ 통화스왑과 금리스왑의 거래 과정

■ 통화스왑과 금리스왑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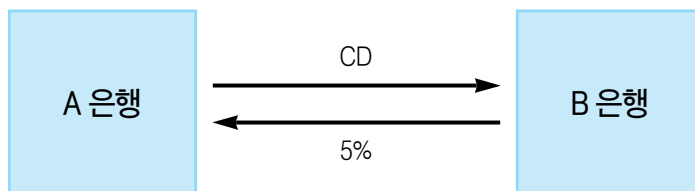
- 통화스왑(currency swap)은 양당사간 서로 다른 통화를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 정해진 환율에 의해 원금을 재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함.
- 통화스왑은 필요한 통화의 자금조달, 환리스크 관리 등의 수단으로 주로 이용

〈그림 1-15〉 통화스왑 개념도



- 금리스왑(interest rate swap)은 미래의 정해진 만기까지 일방은 고정금리(IRS금리=예, 5%)를 지불하고 상대방은 변동금리(예, CD금리)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함.
- IRS수취(receive) 포지션(A은행)의 경우 고정금리를 수취하고 변동금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상대방(B은행)에게 발생하는 금리흐름은 IRS지급(pay) 포지션이라고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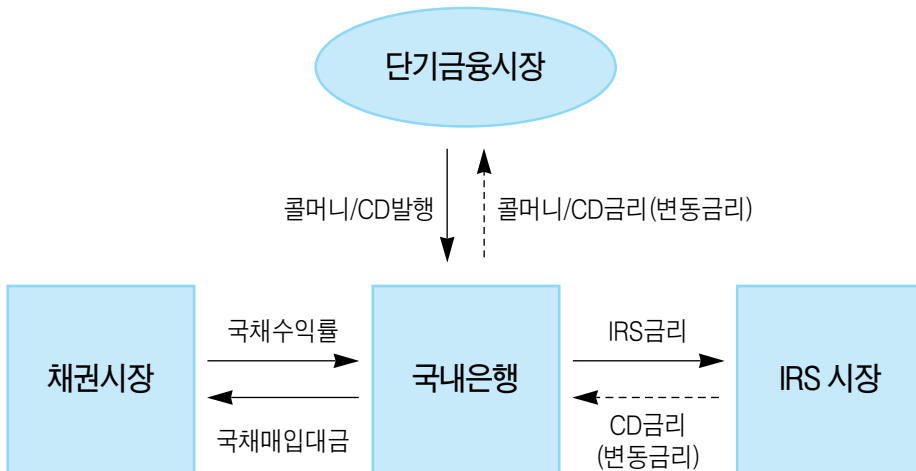
〈그림 1-16〉 금리스왑 개념도



■금리스왑 거래의 대표적 사례는 국채수익률과 IRS금리 간의 차익을 얻는 본드-스왑 스프레드 거래임.

- 차익거래 목적으로 IRS와 연계된 국채매입을 위해 ① 단기금융시장에서 콜 (CD발생) 등으로 자금조달하고, ② 이 자금으로 국채를 매입한 후, ③ IRS 지급 계약 체결
- 콜 조달 비용은 IRS지급에서 수취한 CD변동금리로 지불하고, 국고채의 수익률 일부를 IRS지급금리로 지불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이 헤지된 가운데 「국채수익률-IRS금리」를 안정적으로 수취 가능
- 금리차익거래의 유인은 「국채수익률-IRS금리」 스프레드 > 0일 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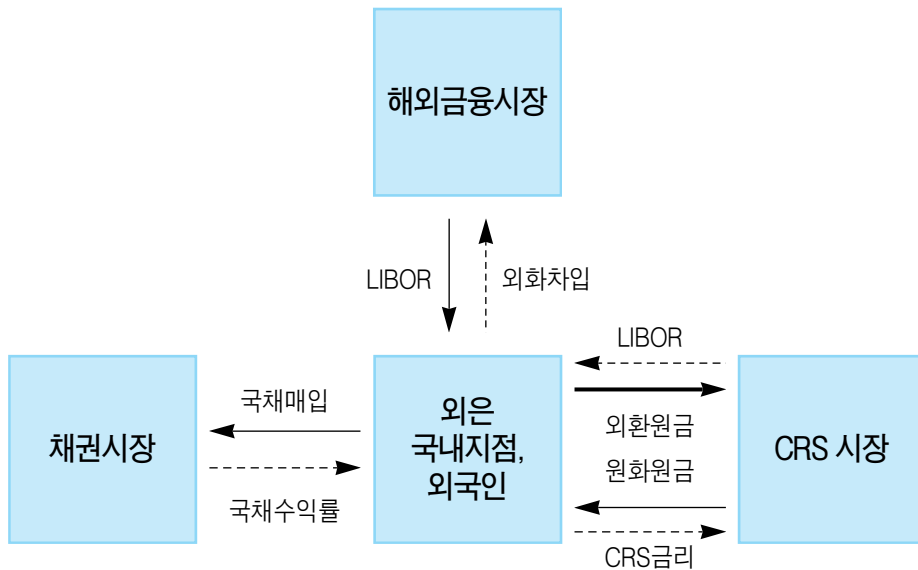
〈그림 1-17〉 본드-스왑스프레드 거래



■ 통화 스왑거래의 대표적 사례는 국채수익률과 CRS금리 간의 차익을 얻는 금리재정 거래를 들 수 있음.

- 차익거래 목적으로 CRS와 연계된 국채매입을 위해 ① 해외자금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② CRS 지급 계약으로 달러화를 원화로 교환한 후, ③ 이 원화자금으로 국고채나 통안채를 매입
- 해외 달러자금 비용인 리보는 CRS지급에서 수취한 리보금리로 지불하고, 국고채의 수익률 일부를 CRS지급금리로 지불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이 해소된 가운데 「국채수익률-CRS금리」를 안정적으로 수취 가능
- 금리차익거래의 유인은 「국채수익률-CRS금리」 스프레드 > 0일 때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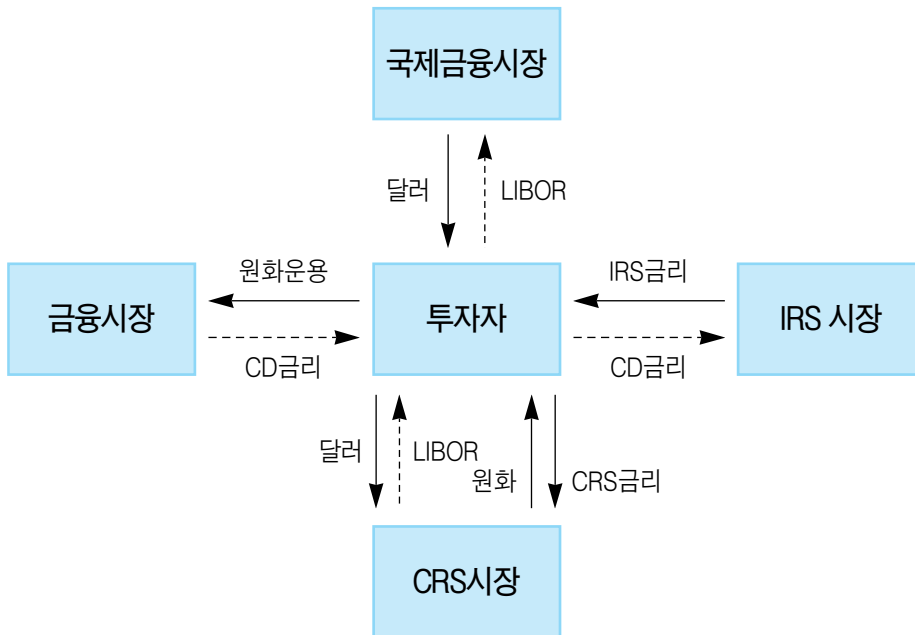
〈그림 1-18〉 통화스왑거래를 통한 금리재정거래



■ IRS와 CRS가 연계된 스왑베이스스를 이용한 금리차익거래

- 금리차익거래 목적으로 ① 해외자금시장에서 달러 자금을 조달하고, ② CRS 지급 계약으로 달러화를 원화로 교환한 후, ③ 이 원화자금으로 CD를 매입하고, ④ 헤지를 위해 IRS수취 거래를 함.
- 해외 달러자금 비용인 리보는 CRS지급에서 수취한 리보금리로 지불하고, 원화자금을 운용하여 수취하는 CD금리로 IRS수취에 따른 CD금리를 지불함으로써, 금리변동위험이 헤지된 가운데 「IRS금리-CRS금리」를 안정적으로 수취 가능
- 금리차익거래가 증가하면 스왑베이스스(CRS금리-IRS금리)가 줄어들고, 금리차익거래가 감소하면 스왑베이스스가 확대
- 금리차익거래의 유인은 스왑베이스스 < 0일 때 발생

<그림 1 -19> 스왑베이스스를 이용한 금리차익거래



- 2월 중 예금은행의 수신 평균금리 및 대출 평균금리는 하락세로 반전
 -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예금은행의 저축성수신 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2월에 하락세로 반전
 - 정기예금, 정기적금, 주택부금 및 상호부금 금리가 모두 하락하여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전월에 비해 0.60%포인트 하락
 - 금리 6.0% 이상인 정기예금 구성비가 10.6%로 크게 하락
 - 시장형금융상품 금리는 전월보다 0.61%포인트 하락한 5.44%
 - 대출 평균금리는 상승세를 지속하여 2월 들어 전월에 비해 0.35%포인트 하락
 - 기업대출금리(-0.33%포인트) 및 가계대출 금리(-0.26%포인트) 모두 전월에 비해 하락
 - 일부 의료재단 및 종교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도 전월에 비해 1.81%포인트 하락

<표 1-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단위: 연%, %p)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월중 증감
저축성수신평균금리 ¹⁾	4.14	4.60	5.11	5.28	5.27	5.50	5.84	6.01	5.40	-0.61
순수저축성예금	4.05	4.53	5.05	5.24	5.23	5.46	5.74	5.98	5.38	-0.60
시장형금융상품	4.27	4.66	5.16	5.32	5.32	5.54	6.01	6.05	5.44	-0.61
대출 평균금리 ²⁾	5.74	6.19	6.56	6.70	6.79	6.80	7.08	7.25	6.90	-0.35
기업대출	5.80	6.30	6.59	6.74	6.82	6.82	7.16	7.26	6.93	-0.33
(대기업)	5.24	5.88	6.01	6.29	6.32	6.38	6.77	6.81	6.42	-0.39
(중소기업)	5.92	6.40	6.74	6.86	6.93	6.95	7.27	7.41	7.09	-0.32
가계대출	5.63	5.97	6.51	6.66	6.71	6.75	6.99	7.21	6.95	-0.26
(주택담보대출)	5.60	5.88	6.38	6.52	6.55	6.59	6.85	7.08	6.72	-0.36
(신용대출)	5.61	6.13	6.71	6.90	6.98	7.04	7.20	7.45	7.19	-0.26
공공·기타대출	5.01	5.45	5.72	5.63	6.41	6.16	5.14	7.03	5.22	-1.81

주: 1) 예금은행 수신상품 중 요구불예금 및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을 제외

2) 당좌대출 및 마이너스통장대출 제외

자료: 한국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동향

(3) 기업 및 가계의 자금조달

■ 호조세를 보였던 은행의 기업대출은 2월 들어 증가폭이 축소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월 들어 4.1조 원의 증가에 그침.
 - 대기업 대출은 일부 기업의 M&A 자금 수요 등으로 0.9조 원 증가
 - 중소기업 대출은 1월 중 전년 말 일시 상환되었던 대출의 재취급 및 부가세 납부 등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2월 들어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소멸되면서 증가폭이 크게 감소

- 2월 들어 주식발행규모 및 회사채 순발행은 소폭 증가했으나 CP순발행 및 사모사채 인수는 감소
 - 주식발행액은 일부 대기업의 유상증자 등으로 0.5조 원 증가
 - 회사채 순발행은 신규발행 감소와 만기도래 회사채의 대규모 상환 등이 겹쳐 소폭 축소
 - CP 순발행규모는 공기업의 상환 증가로 순상환으로 전환

〈표 1-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2월 말 잔액
	연중	2월	연중	2월	1월	2월	
은행원화대출 ¹⁾	42.2	2.4	73.7	5.4	11.5	4.1	406.8
(대기업)	-1.3	-0.2	8.5	0.7	3.8	0.9	40.6
(중소기업)	43.5	2.6	65.1	4.7	7.7	3.2	366.2
은행사모사채인수 ²⁾	16.6	1.2	-6.3	-0.2	-0.1	-0.7	23.9
회사채순발행 ³⁾	-2.9	-1.2	-1.8	-0.2	1.2	0.7	-
CP순발행 ⁴⁾	2.6	1.0	3.8	-0.1	4.2	-0.3	22.3
주식발행	5.0	0.9	6.5	0.2	0.3	0.5	-

주: 1) 은행신탁포함, 산업은행 제외

2) 국내은행 원화사모사채(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제외), 공기업 발행분 포함

3) 일반기업이 발행한 공모회사채(ABS 제외, P-CBO 포함) 기준

4) 증권·종금사 및 은행신탁 취급분, 2007년 11월은 11월 1~20일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2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은 증가로 반전

- 2월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은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을 중심으로 2.3조 원 증가
 -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사수요 등 계절요인 등으로 개별대출이 증가한 데다 집담대출도 늘어나 0.8조 원 증가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이 학자금 대출 및 설 연휴 전 카드사용대금 결제 등으로 1.5조 원 증가

〈표 1-19〉 은행의 가계대출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연중	연중	2월	연중	2월	1월	2월	2월 말잔액
가계대출 ¹⁾	29.4	40.9	2.9	17.8	1.9	-0.7	2.3	365.1
(주택담보대출 ²⁾)	20.6	26.8	0.6	4.6	0.4	0.8	0.8	223.3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9.2	14.0	2.3	13.0	1.5	-1.5	1.5	139.9

주: 1) 신탁포함, 중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 2007년 중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

- 2007년 말 가계신용 잔액은 전년 말 대비 8.4% 증가하여 전년(11.6%)보다 증가세가 둔화
- 2007년 중 가계신용은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48조7,151억 원 증가
 -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은 정부의 부동산대책 등으로 예금은행의 대출 증가세의 큰 폭 둔화로 전년보다 증가폭이 축소된 44조9,659억 원 증가
 - 신용카드 등에 의한 판매신용은 가계소비 증가세를 반영하여 전변보다 증가폭이 소폭 확대된 3조7,492억 원 증가

〈표 I -20〉 가계신용 추이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5년 12월 말	2006년 12월 말	2007년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가계신용잔액 (A+B)	521,495.9 (9.9)	581,963.5 (11.6)	586,516.9 (10.9)	596,440.7 (9.3)	610,643.8 (9.3)	630,678.6 (8.4)
	[46,833.6]		[48,715.1]			
		<23,145.9>	<4,553.4>	<9,923.8>	<14,203.1>	<20,034.8>
가계대출잔액 (A)	493,468.7 (9.8)	550,431.3 (11.5)	555,278.3 (10.9)	564,723.4 (9.3)	578,496.4 (9.3)	595,397.2 (8.2)
	[44,070.5]	[56,962.6]	[44,965.9]			
		<20,978.6>	<4,847.0>	<9,445.1>	<13,773.0>	<16,900.8>
판매신용잔액 (B)	28,027.3 (10.9)	31,532.2 (12.5)	31,238.6 (11.9)	31,717.3 (10.0)	32,147.4 (9.5)	35,281.4 (11.9)
	[2,763.2]	[3,504.9]	[3,749.2]			
		<2,167.2>	<-293.6>	<478.7>	<430.1>	<3,134.0>

주: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 > 안은 전분기말대비 증감액, [] 안은 연간 증감액

자료: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

(4) 자금흐름 동향

■ 2월 중 은행 및 자산운용사 수신은 증가세가 둔화

- 1월 중 증가세로 반전한 은행 수신은 2월 들어 증가폭이 축소
 - 은행 수신: △4.3조 원('07년 12월) → +12.1조 원('08년 1월) → +8.9조 원('08년 2월)
 - 2월 주식시장의 회복세, 특판 예금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저축성예금의 증가폭이 축소
 - 은행권 예금증가에 따라 단기시장성 수신(CD 등)과 은행채 발행의 증가율이 둔화
- 자산운용사 수신도 소폭의 증가세를 지속
 - 자산운용사 수신: △0.4조 원('07년 12월) → +23.5조 원('08년 1월) → +13.9조 원('08년 2월)

- 주식형펀드는 글로벌 증시 변동성 심화 및 손절매성 환매 등의 영향으로 3.4조 원 증가에 그침.
 - 채권형 펀드는 채권시장 강세에 힘입어 0.5조 원 증가
 - MMF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및 은행 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시중자금이 대거 유입되어 9.5조 원 급증
- 증권사 수신은 2월 들어 전월 대비 1.5조 원 증가
- 증시의 변동성 심화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고객예탁금이 0.5조 원 감소
 - 대기성단기자금의 유입으로 RP 수신은 전월 말 대비 2.0조 원 증가
- 종금사 수신은 2월에 전월 말 대비 0.2조 원 감소한 56.9조 원을 기록
- 발행어음 및 CMA는 전월 말 대비 각각 0.2조 원 및 0.1조 원 감소하였으나 CP는 0.1조 원 증가
- 은행의수시입출식예금이 전월 말 세금납부 등으로 큰 폭 감소한 데 따른 평장이월 효과로 인해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은 2월 들어 소폭 하락
- 금융기관의 단기수신 비중의 하락세: 49.1%('07년 11월) → 48.3%('07년 12월) → 47.1%('08년 1월) → 47.1%('08년 2월)

〈표 1-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

(단위: 조 원, 기간 중 말잔 증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8년
	연중	연중	2월	연중	2월	12월	1월	2월	2월 말잔액
은행 수신	36.0	41.5	9.3	51.0	6.2	-4.3	12.1	8.9	831.9
수시입출식 ¹⁾	22.0	10.8	1.9	-6.9	1.6	5.2	-14.5	3.5	221.1
정기예금	-8.0	16.5	1.8	11.8	2.8	-0.1	20.4	3.1	298.2
단기시장성	20.2	15.7	3.4	24.5	0.9	-7.1	4.1	1.9	130.4
은행채	8.2	31.6	3.0	29.2	1.6	-0.4	3.3	0.3	141.1
자산운용사 수신	17.3	30.3	6.2	61.8	0.4	-0.4	23.5	13.9	333.8
MMF	5.0	-7.7	3.8	-10.4	-0.4	-5.9	8.7	9.6	65.0
주식형	17.6	20.3	1.0	69.9	-0.2	9.8	11.5	3.4	131.2
채권형	-24.5	-1.0	0.0	-9.6	-2.0	-3.0	1.2	0.5	42.5
혼합형	7.9	5.6	0.9	-3.3	-0.5	-4.1	1.5	-0.3	45.9
신종펀드	11.2	13.1	0.5	15.3	3.6	2.7	0.7	0.7	49.3
증권사 수신	19.8	27.8	20.8	41.8	29.4	41.8	41.8	43.3	43.3
고객 예탁금	11.9	8.4	12.1	9.5	9.7	9.5	9.8	9.3	9.3
RP	7.9	19.4	8.7	32.3	19.7	32.3	32.0	34.0	34.0
종금사 수신 ²⁾	23.2	33.3	25.4	52.5	37.7	52.5	57.1	56.9	56.9
발행어음	7.3	13.3	8.2	17.5	15.0	17.5	20.2	20.0	20.0
CMA	2.9	3.7	2.9	5.7	4.3	5.7	5.2	5.1	5.1
어음매출(CP)	9.1	16.3	14.3	29.3	18.4	29.3	31.7	31.8	31.8

주: 1) 요구불예금 포함

2) 증권사, 종금사 수신은 말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산업은행, 시중자금동향

〈표 1-22〉 주요 금융기관의 단기수신¹⁾ 비중

(단위: %, 조 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12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08.2월 평균잔액
단기수신 비중	52.6	51.8	51.1	49.1	48.3	47.2	47.1	495.7
장기수신 비중	47.4	48.2	48.9	50.9	51.7	52.8	52.9	557.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52.8

주: 1) 단기수신: 은행, 은행신탁, 자산운용사, 중금사의 만기 6개월 미만 금융상품 수신의 평균잔액 기준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CD, RP, 표지어음, MMF, 단기채권형펀드, CMA, 자발어음 등)

자료: 한국은행, 금융시장 동향

(5) 주식시장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글로벌 금융불안과 유가 최고치 경신 등의 충격으로 국내 주가는 약세를 전반적으로 약세를 시현

- 미 경기침체 우려, 글로벌 신용경색 재발 우려, 중국의 추가 긴축조치 및 국내경기 둔화 우려 등의 영향에 의한 큰 폭의 하락세와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에 따른 소폭의 상승세를 지속
 - 코스피지수는 미 주요 IB의 실적악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 중국의 추가긴축 조치 우려 등으로 1월 중 1,600대로 하락한 후 미 FRB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힘입어 반등
 - 2월 중 미국 등 글로벌 증시의 급락세가 진정되면서 코스피지수는 1월 하락 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던 만큼 여타 증시 대비 반등폭이 컸음.
 - 코스피지수는 2월 말 이후 중국의 긴축 우려, 원화약세에 따른 외국인의 추가 매도가능성 및 서브프라임 관련 신용경색 위험이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세로 반전, 특히 미 베어스틴스 유동성 위기로 3월 중순에 큰 폭 하락
 - 3월 말에 코스피지수는 FRB의 금리인하 및 일부 IB의 실적 호조, 금융위기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미 증시의 급등 영향으로 상승 반전
 - 코스피지수: 1,853.45(1월 2일) → 1,609.02(1월 22일) → 1736.17(2월 28일)

- 1,615.62(3월 13일) → 1703.99(3월 31일)
- 코스닥지수: 707.12(1월 2일) → 603.11(1월 30일) → 660.75(2월 29일)
- 600.10(3월 18일) → 644.45(3월 31일)

〈그림 1-20〉 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표 1-23〉 주식시장 주요 지표

(단위: 조 원, %, 말일 기준)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12월	1월	2월	3월(1~27일)
종합주가지수(KOSPI)	1,379.37	1,434.46	1,897.13	1,897.13	1,624.68	1,711.62	1,648.51
거래대금(평균)	3.2	2.0	3.6	5.3	5.5	4.7	4.8
시가총액	655.07	704.6	951.9	951.9	817.4	860.2	828.6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3.023	-10.753	-24.712	-2.106	-8.545	-2.012	-0.124
코스닥지수(KOSDAQ)	701.79	606.15	704.23	704.23	608.84	655.94	626.64
거래대금(평균)	1.8	1.7	1.3	1.8	1.6	1.4	1.2
시가총액	70.9	72.1	99.9	99.9	87.6	95.1	91.0
연월 중 외국인 순매수	+0.643	-0.454	+0.089	+0.047	-0.400	-0.0615	-0.2056
고객예탁금	11.9	8.4	9.5	9.7	9.8	9.3	9.4

자료: 재정경제부, 주요 금융통계

5. 외환시장

(1) 원화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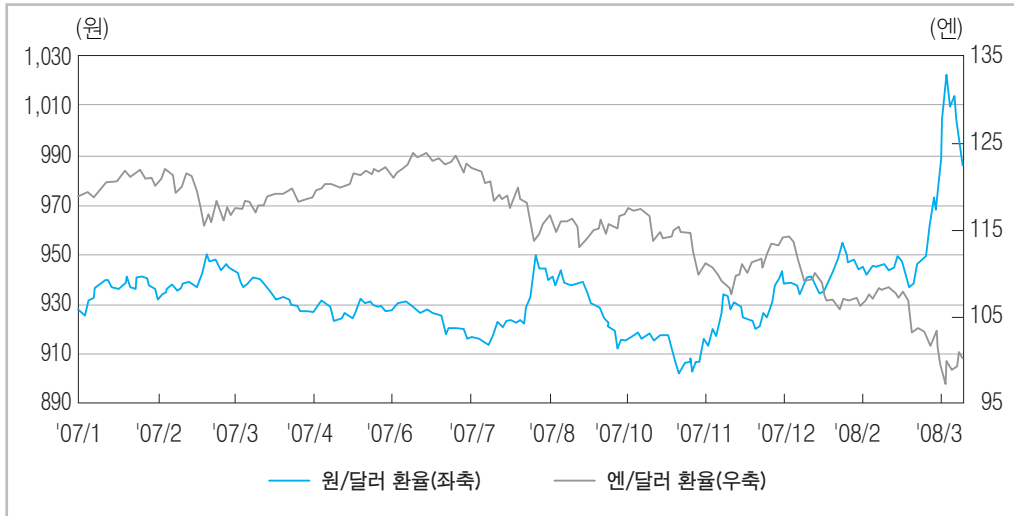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불안,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 및 경상수지 확대 등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000원 선을 돌파한 후 소폭 하락

- 1월 중 원/달러 환율은 미 금융회사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 모노라인 부실화, 미 경기침체 우려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금융불안이 강화되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재개되면서 월 중 955.80원까지 치솟는 상승세를 시현

• 미국의 추가 금리인하, 월말 네고물량 유입 등으로 943.90원에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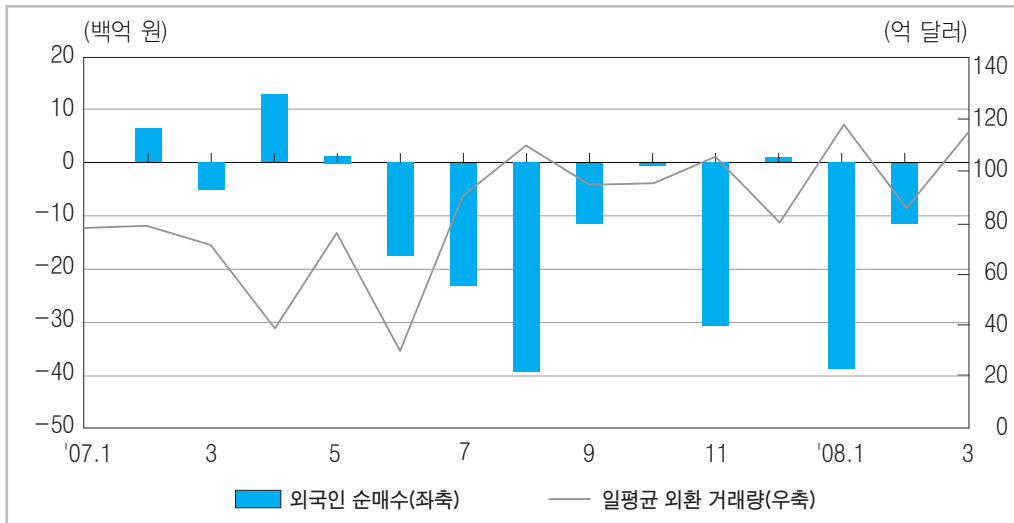
- 2월 들어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달러화약세에 편승한 역외의 공격적 매도세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930원대로 하락

<그림 1 -21>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 -22> 외환거래량 및 외국인 주식순매수



자료: 한국은행

- 3월 중 미 베어스턴스의 유동성 위기 등에 따른 글로벌 신용경색 우려가 다시 고조된 데다 외국인의 주식 매각 대금 역송금 수요 및 배당금 환전 수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 해외투자펀드 순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투신권의 선물환 순매수 전환 등이 겹치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
 - 12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3월 17일 장중 2006년 1월 이래 최초로 1,000원선 상향 돌파
 - 3월 18일 장중 1,032원까지 급등
 - 이후 미 연준의 추가금리 인하, 미 투자은행의 실적 호전 등에 따른 글로벌 금융 불안 완화 및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로 반전
 - 3월 24일 996.80원까지 떨어져 6거래일 만에 900원대로 복귀
 - 3월 25일 외국인 주식 순매수, 베어스턴스 매각가격이 종전보다 5배 올라갈 것이라는 소식 및 이성태 한은 총재의 '환율천장' 발언의 영향으로 전날보다 20.90원 떨어진 976.30원에 마감
 - 외환당국의 환율상승 선호 시사 발언으로 1,000원선에 접근했던 원/달러 환율은 3월 31일 수출업체들의 월말 네고물량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990.4원에 거래를 마감

〈표 1-24〉 원/달러 환율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평균	연평균	연평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원/달러 환율	1,144.7	1,024.3	955.5	928.3	918.9	933.8	932.4	915.7	917	930.24	942.39	944.69	979.27
(전년평균 대비, %)	-4.0	-10.5	-6.7	0.3	-0.7	0.9	0.7	-1.1	-0.9	0.5	1.3	1.6	3.5
원/100엔 환율	1,058.76	930.66	821.49	757.05	755.57	799.84	810.55	790.74	826.2	828.42	872.92	880.57	970.91
(전년평균 대비, %)	2.7	-13.8	-13.3	-8.5	-0.2	5.5	1.3	-2.5	4.3	0.3	5.1	0.9	9.3

주: 2008년 3월은 3월 1~28일 평균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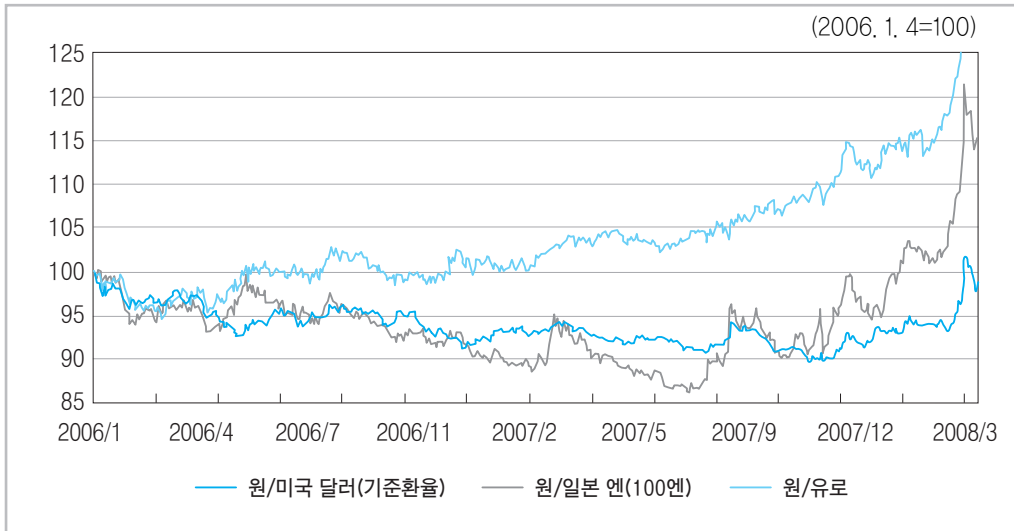
■ 2월 이후 달러화에 대해 엔화가 초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약세 기조를 나타냄에 따라 원/엔 환율이 급상승

- 2월 22일 100엔당 882.2원 이후 상승하기 시작한 원/엔 환율은 3월 17일 1,002.59원에 마감, 2005년 1월 이후 이후 처음으로 1,000원대를 기록
 - 원/엔 환율은 3월 18일 1,049.35원까지 치솟은 후 3월 25일 992.61원에 마감하여 900원대로 복귀, 3월 31일에 992.88원에 마감
 - 엔/달러 환율이 급락세를 나타낸 것은 3월 18일 미국의 추가금리 인하, 미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로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강화된 데 기인
 - 원유, 곡물 등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도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

■ 2월 이후 달러화에 대해 유로화가 초강세를 보인 반면 원화는 약세 기조를 나타냄에 따라 원/유로 환율이 급등

- 원/유로 환율은 미국경제 침체 및 미 금리인하 기대감 등의 영향 및 3월 13일 1,500원을 넘어선 3월 18일 1,606.73원에 마감, 사상최고치 행진을 계속한 후 하락세로 반전
- 원/유로 환율은 3월 26일 1,538.20원으로 급락, 3월 28일에 1,569.83원에 마감
- 달러/유로 환율이 급등한 것은 미국경제 침체 및 미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작용

〈그림 1-23〉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 자본 유출입 현황

■ 2월 중 자본수지는 기타투자 및 직접투자수지가 순유입되었으나 증권투자수지가 큰 폭으로 순유출 됨으로써 총 3.7억 달러의 유출초를 시현

- 자본수지는 지난해 12월 이후 2개월 만에 연속 유출초를 기록
 - 2월 중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었으나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증가로 반전한 데 힘입어 3.0억 달러의 유입초를 기록
- 증권투자수지는 지난해 1월에 이어 2월에도 순유출을 기록
 -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가 지속되었으나 내국인의 해외주식투자가 다시 증가하고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자금 회수가 지속됨으로써 2월 중 증권투자수지는 36.1억 달러의 유출초를 기록
- 지난 1월 유출입을 보였던 기타투자수지는 2월에도 30.4억 달러의 유입초 시현

- 외국인의 지분매각대금 인출에 따라 비거주자예수금이 감소하였으나 금융기관의 해외단기차입이 더 크게 늘어남.

〈표 I -25〉 자본 유출입 추이¹⁾

(단위: 억 달러)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2월	1월	2월
자본수지	47.6	186.2	62.3	53.1	64.4	-33.3	-22.0	12.1	1.7	-3.7
직접투자수지	20.1	-34.8	-137.0	-9.6	-28.7	-24.5	-74.2	-12.6	-24.9	3.0
(내국인해외투자)	-43.0	-71.3	-152.8	-20.7	-29.4	-24.5	-78.1	-14.8	-9.0	-8.9
(외국인국내투자)	63.1	36.5	15.8	11.1	0.75	0.08	3.9	2.2	-15.8	11.9
증권투자수지	-17.3	-225.4	-190.9	-10.5	-0.27	-91.7	6.0	33.4	-39.3	-36.1
내국인증권투자	-106.8	-225.8	-424.1	-151.3	-119.6	-54.6	-98.6	17.1	30.9	-13.6
(주 식)	-36.9	-152.0	-524.4	-132.3	-121.7	-96.7	-173.6	-14.2	12.0	-30.1
(채 권)	-70.0	-73.8	100.2	-19	2.05	42.1	75.0	31.2	18.9	16.6
외국인증권투자	90.0	0.33	233.2	46.4	119.4	-37.1	104.6	16.4	-70.2	-22.6
(주 식)	32.8	-84.2	-287.3	-4.3	6.9	-179.4	-110.5	-33.0	-107.3	-35.2
(채 권)	56.6	84.5	520.5	50.7	112.4	142.3	215.1	49.4	37.1	12.6
기타투자수지	68.1	476.8	414.1	175.8	100.2	88.6	49.5	-7.9	66.9	30.4
내국인기타투자	-26.6	-87.6	-184.2	-10.5	-38.4	-57.6	-77.7	47.2	-7.4	-1.8
(대 출)	2.5	-9.4	-103.3	-5.4	-12.5	-38.6	-46.8	27.4	-3.8	1.4
외국인기타투자	94.7	564.4	598.4	186.3	138.6	146.2	127.2	-55.1	74.3	32.2
(차 입)	10.2	433.6	415.5	146.7	94.2	68.8	105.9	-65.4	28.6	55.3
자본이전 및 비금융자산취득수지	-23.4	-30.3	-23.9	-8.1	-6.9	-5.7	-3.2	-0.8	-1.0	-1.0
자본이전수지	-23.4	-29.7	-23.4	-7.3	-6.8	-5.8	-3.5	-1.2	-0.9	-0.9
비생산·비금융 자산순취득	-0.005	-0.7	-0.5	-0.885	-0.017	0.09	0.33	0.4	-0.2	-0.1

주: 1) 순유출입액 기준으로 (+)는 순유입, (-)는 순유출, 2) 잠정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6. 해외경제

(1) 주요국 경제

■ 미국경제: 경제둔화 심화

- 4/4분기 실질GDP가 0.6%로 크게 하락하고 산업생산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소비자신뢰지수도 큰 폭 하락하는 등 경제침체 가능성이 확대
 - 내구재를 중심으로 한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감소하면서 실질GDP 성장률이 3/4분기 4.9%에서 4/4분기 0.6%로 크게 둔화됨.
 - 4/4분기 산업생산은 제조업의 둔화로 전기에 비해 정체된 모습을 보임.
 - 경기부진에 따른 고용시장의 침체로 4/4분기 실업률은 전기에 비해 0.1%포인트 증가했고, 1~2월 중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 감소추세가 확대되었으나 구직단념자의 증가로 실업률은 0.1%포인트 하락
 - 소비자신뢰지수는 고유가 및 주택시장 침체 확산 등으로 4/4 분기 이후 가파른 하락 추세(4Q 91.2 → 1월 87.3 → 2월 75)

- 3/4분기까지 안정적이던 소비자 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 추세가 지속되면서 4/4분기 3.7%를 기록
 - 교통비 등 에너지 관련 제품가격을 중심으로 1월 중 물가는 4.3% 증가하여 오름세가 확대
 - 미 연준은 3월 5일 발표된 베이지북을 통해 미국경제가 성장세 둔화와 물가상승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발표
 - 버냉키 연준의장은 2월 국회 증언에서 연준은 경제회복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발언

- 미 연준은 미국경기의 하방위험성과 신용시장의 유동성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 연준은 12월 연방기금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이후 올해 들어 1~3월 간 세 차례에 걸쳐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하여(1월 22일 0.75%포인트 → 1월 30일 0.5%포인트 → 3월 18일 0.75%포인트 인하), 현재 연방기금금리는

2.25%²⁾

- 최근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하의 배경에는 미국경제의 둔화 가능성이 점차로 뚜렷해지고 있는 반면, 최근 주춤하고 있는 원자재가격의 상승기조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연준의 판단이 깔려 있음.
 - 미 연준은 3월 중 11일과 16일 양일간 총 대출한도 3000억 달러의 신규유동성 공급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용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
- 한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점차 확산되면서 채권보증업계의 손실이 증대됨에 따라 채권시장의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2003년 말 5.3% → 2006년 말 13.7%), 연체율 및 주택압류율도 급증 추세에 있음(2003년 11.5%, 5.6% → 2007년 3Q 16.3%, 6.9%).
 - Barclays Capital은 이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추가손실이 최대 14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1월 25일)
 - Moody's는 미국 4위 채권보증업체 FGIC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3로 6단계 강등시킴(2월 14일).
 - 우량채권 위주로 투자하던 칼라일 캐피털이 도산하여 JP Morgan에 의해 주당 2달러의 가격으로 인수됨.
 - OECD는 미국 금융기관의 관련 손실규모가 3천억 달러에 이르고, 개인, 기업, 주식시장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함.
- 금융시장의 불안이 가라앉지 않고 있어, 미 행정부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의 동결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놓고 있으나, 유효성이 의심되고 있음.
- 부시 미대통령은 주택 유질처분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12월 6일)
 - * 재무부와 모기지업계는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향후 5년간 동결하는 방안에 합의
 - 미국정부는 경기침체 대응방안으로 1천억 달러 규모의 소득세 환급, 감가상각 인

2) 재할인금리는 2.5%

- 정 한도의 인상을 통한 기업투자 촉진 등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1월 18일)
- Citigroup 등 6개 금융기관과 미국정부는 회생가능성이 있는 90일 이상 주택모기지 연체자들에 대해 주택압류를 30일간 중지하고 채무상환조건을 완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구제대책을 발표(2월 12일)

〈표 1 -26〉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GDP ¹⁾	3.1	2.5	3.3	0.6	4.0	4.9	0.6	2.2	-	-
산업생산 ²⁾	3.2	3.5	4.0	0	0.3	0.3	0	2.1	0.1	
소비자물가	3.4	1.9	3.2	2.4	2.7	2.4	3.7	2.9	4.3	
실업률(%)	5.1	4.5	4.6	4.5	4.5	4.7	4.8	4.6	4.9	4.8
소비자신뢰지수 ³⁾	100.3	106.8	105.9	110	106.5	105.8	91.2	103.4	87.3	75
무역수지(억 달러)	-5,782	-2,130	-8,812	-1,947	-2,111	-2,249				

주: 1) 전기비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 일본경제: 회복세 둔화

-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2.0%로 3/4분기 대비 0.1%포인트 증가
 - 전자부품 및 일반기계 등의 생산 증가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광공업 생산 증가세는 1월 들어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2월 들어 다시 증가세가 확대
 - 4/4분기 설비투자도 대내외 여건의 악화 가능성 확대로 감소폭이 확대됨(3Q -1.2% → 4Q -7.7%, 전년동기 대비).
 - 최근 고용사정이 완화됨에 따라 실업률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유가 상승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여건의 악화로 향후 전망은 불확실
 - 소비자 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
- 그간 호조를 보이던 수출산업은 1월 들어 뚜렷이 둔화되고 내수회복도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

- 수출은 4/4분기 대비 수출의 감소폭 확대와 대아시아 수출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3/4분기에 비해 0.8%포인트 낮은 성장세를 보임.
 - 대EU 수출도 자동차, 일반기계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10월 24% → 11월 8.5% → 12월 2.7%, 전년동기 대비).
 - 1월 중 수출 성장세가 엔화 강세 등으로 7.6%로 둔화됨에 따라, 수출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2007년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57%
 - 이에 따라 일본 내각부는 2월 보고서에서 경기에 대한 기초판단을 ‘회복기조 유지’에서 ‘회복세 완만’으로 하향 수정했고(2월 22일), 이어 3월 보고서에서도 ‘회복세 정체’로 하향 조정(3월 19일)
 - 반면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할 경우, 경기부양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물가상승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하여 콜금리 목표를 현행 0.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1월 22일)
- 일본 금융기관의 서브프라임 관련 손실규모가 9월 말에 비해 크게 확대
-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2007년 12월 말 현재 손실규모는 6천억 엔이며 이는 9월의 2.2배 수준
 - 다른 구미국가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일본 경제의 침체로 민간 및 기업의 자금수요가 축소될 경우, 지역 금융기관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

〈표 1-27〉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GDP ¹⁾	1.9	5.5	2.2	2.8	1.6	1.9	2.0	1.9	-	-
광공업생산	1.1	5.9	4.8	3.2	2.4	2.8	2.8	2.7	2.2	4.2
소비자물가	-0.3	0.3	0.3	-0.1	-0.1	-0.1	0.5	0.0	0.7	
실업률(%)	4.4	4.0	4.1	4.0	3.8	3.8	4.0	3.9	3.8	3.9
수출	7.3	11.2	14.6	10.3	13.2	10.9	10.1	11.6	7.6	

주: 1) 전기비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 EU경제: 성장세 둔화

- 4/4분기 성장률(0.4%)은 전기(0.7%)에 비해 소폭 둔화됨.
 -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의 위축, 정부지출의 부진, 유로화 강세기조에 따른 수출 성장세 둔화 등으로 4/4분기 GDP는 증가세가 둔화
 - 4/4분기 내구소비재 생산 등의 부진으로 감소했던 산업생산은 1월 들어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폭이 다시 확대
 - EU집행위원회는 유로지역의 2008년 실질GDP 성장률을 2.2%에서 1.8%로 하향 조정

- 최근 더욱 확대된 물가상승 압력은 유로경제의 회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
 - 유럽의 물가는 2007년 4/4분기 이후 국제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유럽중앙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하고 있으며, 견조한 고용여건으로 임금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음.
 -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이 ECB의 최우선 정책 목표라고 언급함.
 - ECB는 2월7일에 이어 3월 6일 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4%에서 동결함.

〈표 I -28〉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실질GDP	2.9	0.7	0.3	0.7	0.4	2.6	-
산업생산	4.1	0.1	0.1	0.3	0.2	3.4	0.9
소비자물가 ¹⁾	2.2	1.8	1.9	1.9	2.7	2.1	3.2
실업률(%)	8.2	7.4	7.5	7.2	7.2	7.4	7.1
경기체감지수 ²⁾	107.3	110	111.6	109.3	105.2	109	
수출 ¹⁾	11.6	9.5	9.3	10.1	5.0	8.3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 중국경제: 고성장세 지속, 물가압력 심화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 4/4분기 산업생산은 17.5%의 증가를 보여 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모습
 - 고정자산 투자도 중국당국의 긴축정책 강화 및 적극적인 투자억제 정책의 영향으로 소폭 감소(0.1%포인트)
 - 1~2월 중 소비자 물가는 폭설과 계절적 수요에 따른 식료품 가격의 증가로 7.9%를 기록
 - 11월 이후 창구지도 강화 등으로 둔화되었던 총통화량 증가세는 1~2월 들어 춘절을 대비한 자금공급과 대출 실행의 재확대 및 외화자금의 유입 급증 등으로 18.2%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
- 중국수출은 당국의 수출억제 정책과 해외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면서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경기과열 억제를 위한 수출억제 정책으로 중국당국은 철강재의 수출관세 인상(15%에서 25%) 등을 시행한 바 있음.
 -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폭설 및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1/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 4/4분기에 비해 둔화된 10.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인민은행은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긴축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2월 22일)
 - 중국 당국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폭설에 따른 물가 상승을 중국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소로 지적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기준율을 1월 16일 기준율을 14.5%에서 15%로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3월 18일 0.5%포인트 추가 인상을 단행했음.
 - * 3월 18일 현재 기준율은 15.5%(3월 18일)
 - 그러나 인민은행의 이러한 조치는 기준율 인상분(2,025억 위안)이 최근의 예금 증가규모(1조3천여억 위안, 2008년 2월 기준)에 크게 못 미쳐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

〈표 1-29〉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월	2월
실질GDP	10.7	11.1	11.9	11.5	11.2	11.4	-	-
산업생산	16.6	18.3	18.3	18.1	17.5	18.5		
소비자물가	1.5	2.7	3.6	6.1	6.6	4.8	7.1	8.7
M2	16.9	17.3	17.0	18.4	17.9	16.7	18.9	17.5
고정자산투자 ¹⁾	24.5	25.3	26.0	26.6	26.5	26.1		24.3
무역수지(억 달러)	1,775	464	663	732	760	2622	195	86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 원자재

■ 원자재가격 상승기조

- 4/4분기 이후 국제유가는 동절기 수요, OPEC의 증산 거부, 일부 유전의 공급차질, 투기자금 유입 확대 등으로 급등 추세를 유지
 - 3월 들어 국제유가는 미국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 전망과 달러 약세 기조 및 공급차질 등이 맞물려 등락을 거듭하다 4월 1일 현재 94.93달러를 기록
 - OPEC은 현 생산규모로 1/4분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전망 아래 2월 1일 임시총회에서 현 생산목표인 2,967만bpd를 유지하기로 합의
 - 세계 2위 석유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출물량이 1월 291만bpd에서 2월 265만bpd로 감소할 전망
 - Goldman Sachs는 투기자금들이 모든 매수포지션을 청산한다면 유가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1월 23일)
 - CRB선물지수는 11월 중 가격 급등에 따른 세계 겨울밀 재배면적 확대 전망 등으로 하락했으나 12월 들어 곡물 생산부진 등으로 다시 상승반전
 - 금선물지수는 미국의 경기침체 및 달러 약세와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안전자

산 선호,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일부 생산국가의 생산차질 등으로 인한 공급축소 우려 등으로 상승기조 유지

〈표 I -30〉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단위: 달러/배럴, 1967년=100)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유가현물(Dubai)	53.27	58.66	67.4	73.32	77.23	86.85	85.66	87.24	90.16
CRB선물지수 ¹⁾	331.83	307.26	308.76	333.67	351.01	339.84	358.71	369.46	412.69
금선물	518.90	638.00	675.80	742.80	795.30	782.20	838.00	922.70	975.00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2. 국내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1) 대외여건

■ 2008년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 불안의 심화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2007년보다 1.5%포인트 낮은 3.7%의 증가세를 기록할 전망

- 미국경제, 경제둔화세 심화
 - 2007년 4/4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0.6%로 대폭 하락했고, 주택시장의 침체와 금융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경기침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 호전과 재정적자의 소폭 개선이 있으나 2008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그간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도 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급등으로 상승기조를 보이며 인플레이 압력을 증가시키고 있음.
 - 주요 투자은행들은 2008년 중 미국 GDP 성장률이 주택경기침체 심화, 고용여건 악화, 금융시장 불안, 소비둔화 등으로 0.9~1.9%에 그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달러약세에 따른 수출실적 개선, 하반기에 예상되는 금융시장의 구조조정 마무리 등으로 미국경제는 올 하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뚜렷한 둔화 조짐
 - 유가급등과 금융불안, 건설규제 등으로 소비지출과 기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내수의 회복이 불확실해지고 있음.
 - 2008년에는 올해 경제회복의 중추역할을 하던 수출시장의 부진에 따라 회복세가 다소 주춤할 전망이다.
 - 일본의 15개 민간예측기관은 2008년 실질GDP 성장률을 2%에서 1.6%로 0.4% 포인트 하향 조정했고, Goldman Sachs는 일본 경기침체 확률을 50%로 평가
- 유로지역경제, 경기 회복세 둔화
 -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견고한 성장기조를 유지하던 유로지역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 등으로 2008년 회복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유로지역의 민간소비는 고용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회복될 전망
- 중국경제, 세계 경기 둔화와 위안화 절상 등으로 2008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부진할 전망
 - 2008년 중국경제는 고도성장을 계속하겠지만,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둔화, 중국당국의 수출억제 정책 등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감소 효과와 맞물리면서 중국의 수출증가세가 올해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와 더불어 유동성 과잉과 식품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급등은 중국정부의 긴축 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시킬 전망

〈표 II-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

(단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IMF	OECD ¹⁾	IMF ²⁾	OECD ¹⁾
세계성장률	5.5	5.2	2.7	3.7	2.1
미국	3.3	1.9	2.2	0.5	1.6
일본	2.2	2.0	1.9	1.5	1.7
유로	2.8	2.5	2.6	1.6	1.9
중국	11.1	11.5	11.4	10.0	-

주: 2006년은 IMF통계임.

1) OECD 전체에 국한된 성장률 전망 통계임.

2) IMF의 세계 및 미국의 성장률은 2008년 4월 4일 잠정치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Jan. 2008.

OECD, OECD Economic Outlook, Mar. 2008.

- 국제유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수급불균형 등의 유가상승 요인들이 현존함에 따라 2008년 국제유가는 90달러(두바이유 기준)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
- 신흥국들의 성장세 지속 및 달러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 요인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 동시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도 높아져 투자 및 투기수요 증대를 유발하고 있음.
- 반면 공급은 2008년에도 원활치 못할 것으로 보임.
 -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공급불안 전망
 - 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OPEC은 원유증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고, 선진국 원유재고 감소와 수급차질 우려 증가
- 이와 같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 및 수급의 불균형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시장은 올해 하반기를 기점으로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나, 이후 계절적 요인 등으로 유가는 2008년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할 전망
- 따라서, 올해 국제유가는 90달러 수준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금융시장, 신용경색 및 달러약세 등으로 불안정성 증대

- 2007년 8월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기조의 확산과 유가 등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의 증대로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책금리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음.
- 미 연준은 12월 FOMC 성명에서 향후 추가적 금리인하에 대한 시사를 하지 않았으나, 미국경제 침체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들어 세 차례의 금리인하를 단행함.
 - 물가상승압력이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지만, 미 연준은 경제회복에 중점을 둔 전망임.
 - 이에 따라 미국 연방기금금리는 올 상반기 내에 한차례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은행은 1월 22일 콜금리를 0.5%에서 동결함
 - 작년 하반기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콜금리 인상이 예상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으로 0.5%에서 동결함.

- ECB는 3월 현재 정책금리를 4%로 동결했으나,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한차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됨.
 - ECB는 애초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금리인상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2008년 3월 정책금리를 4%에서 동결함.
 - 그러나 유가인상 등으로 올해 물가상승률이 억제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플레이 압력이 가중됨에 따라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인민은행은 3월 현재 기준율을 15.5%로 인상시키면서 긴축정책 기조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
 - 1~2월 중 소비자 물가지수는 7.9%로 4/4분기 6.6%보다 1.3%포인트 상승
 - 인민은행은 올해 들어 2번의 기준율 인상을 단행했으며, 신규대출을 억제하는 등 적극적인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중국 위안화는 대외적 불균형에 따른 국제적인 위안화 절상압력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긴축정책의 필요성 증대로 2008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2) 대내여건

■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 지속

- 세계경제 및 국내경기 둔화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3월 유류세를 10% 인하한 데 이어 올해 4조8천억 원에 달하는 중앙정부 세계 잉여금도 경제 활성화 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
 - 또한 6월까지 출충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를 최소화하는 한편, 법인세를 현재보다 3~5%포인트 인하하는 등 세율을 최대한 낮출 계획

-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원자재가격,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크게 상승하면서 적극적인 경기활성화 정책 추진이 제동을 받을 전망
 - 특히 물가불안 우려로 인해 통화정책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정책은 적극 추진이 어려울 전망

■ 정책금리 당분간 동결, 경기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인하 가능성 상존

- 과잉 유동성 및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 증가 등으로 상반기 중에는 정책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음.
 - 소비,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의 움직임이 둔화되고 선행지수도 하락세를 지속함에 따라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하지만 원유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화가치 하락으로 국내물가불안이 가중되면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안정에 있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될 전망
- 하지만 하반기 중에는 한미 간 금리차, 국내경기둔화 등 인하압력이 높아 감안해 인하할 가능성도 있음.
 - 현재 미국의 정책금리는 지난해 말 4.25%에서 3월 말 현재는 2.25%로 2%포인트 하락했으나 한국의 정책금리는 5%로 동결되면서 양국간 금리 격차가 확대
 - 한은은 3월 통화정책방향을 통해 향후 경기흐름의 불확실성을 언급한 만큼 경기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금리인하 가능성이 있음.

■ 재정정책은 확장적 기조

- 정부는 2008년 총지출 예산규모를 2007년(238.4조 원) 대비 7.9% 증가한 257.2조 원으로 책정
 - 2008년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2. 경제전망

(1) 2008년 경제전망 수정의 개요

■ 2008년 들어 대외여건이 급격히 변화

- 본원의 2007년 4/4분기 전망 시점에 비해 대외여건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각 외생 요인의 영향을 전망에 반영하고자 함.

A. 주요국의 2008년 성장률 전망

- 미국 성장률
 - IMF는 2008년 4월 수정전망을 하면서 미국의 2008년 성장률을 종전(2007년 10월)의 1.9%에서 0.5%로 하향조정
- 중국 수출증가율
 - 본원의 지난번 전망에서는 2008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을 2007년 25.7%보다 약 5%포인트 둔화된 20%로 예상
 - 하지만 2008년 1~2월 수출증가율이 평균 16.5%로 하락함에 연간 중국 수출증가율을 15%로 하향조정

B. 국제유가 등 2008년 비용요인

- 국제유가
 - 미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ERA)가 두바이유의 전망을 기존 81달러에서 90달러로 상향조정
 - 이를 반영하여 지난번 전망에서는 2008년 평균유가 가정 85달러를 90달러로 상향조정
- 원자재가격
 - IMF의 비연료상품가격지수(Commodity Non-Fuel Price)가 2007년 14.4%

에서 2008년 1~2월 평균 17.5%로 상승

- 이를 반영하여 원자재가격 전망도 지난번 15%에서 20%로 상향조정

C. 2008년 환율 가정

- 원/달러

- 2008년 1~3월 중 956원이고 3월 31일 현재 991.0원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준이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

- 엔/달러

- 2008년 1~3월 중 105엔이고 3월 31일 현재 99.8엔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준이 지속되는 것을 가정

D. 국내여건: 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후소득 증가효과

- 정부에 따르면 2008년 시행되는 「2007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 감소효과는 약 1조7,050억 원

■ 이러한 대외여건의 변화에 따른 2008년 경제전망 수정이 불가피

- 앞서 나열한 각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이 성장률, 물가,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교역국 경제둔화는 수출둔화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고 성장률을 낮추는 효과
- 국제유가 등 비용 상승요인들은 경상수지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내물가 상승을 가져옴.
- 원/달러 환율 상승, 엔/달러 환율 하락은 경상수지를 동반 개선시키나, 비용상승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를 크게 높임.

<표 II -2> 2008년 외생변수에 대한 가정

전망시점	2008년 외생변수 가정						
	주요국 성장 및 수출		비용요인		환율		감세
	미국	중국수출	두바이유	원자재가격	원/달러	엔/달러	
'07년 12월	2.0%	20%	85(달러)	15%	910	105	X
'08년 4월	0.5%	15%	90(달러)	20%	980	100	1조7050억
근거	IMF, 전망치 하향 1.9%→0.5%	중국, 수출둔화 25.7%('07년) →16.5% ('08년 1~2월)	CERA, 전망상향 81달러 →90달러	IMF, 원자재지수 상승 14.4%('07년) →17.5% ('08년 1~2월)	956원 (1~3월) →991.0 (3월 31일)	105엔 (1~3월) →99.8 (3월 31일)	정부, 세계개편

■ 수정된 2008년 경제전망 내용

- 2008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5.1%)에 비해 약 0.6%포인트 하락한 4.5%
 - 세계개편(+0.1%포인트), 원/달러 환율 상승(+0.3%포인트), 엔/달러 환율 하락(+0.2%포인트)등 성장률에 상향 요인에도 불구하고
 - 미국경기 및 중국수출 둔화(-0.8%포인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0.3%포인트) 등 하락요인이 우세한 데 기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종전 전망(3.2%)에 비해 약 1.1%포인트 상승한 4.3%
 - 미국경기 및 중국수출 둔화(-0.2%포인트)를 제외하고는 원/달러 환율 상승(+0.8%포인트), 엔/달러 환율 하락(+0.1%포인트),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0.4%포인트) 등이 대부분 물가상승요인으로 작용
- 경상수지는 종전 전망(-14억 달러)에 비해 약 74억 달러 악화된 88억 달러 적자
 - 원/달러 상승(+33억 달러), 엔/달러 환율 하락(+20억 달러) 등은 경상수지의 개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 미국경기 및 중국수출 둔화(-40억 달러), 국제유가 상승(-36억 달러) 및 원자재가격 상승(-45억 달러) 등은 수출둔화 및 수입금액 증가를 통해 경상수지를 악화시킴.

〈표 II -3〉 2008년 시뮬레이션 결과

구 분	성장률 (%)	소비자물가 증가율 (%)	경상수지 (억 달러)
기존전망(2007년 12월 발표)	5.1	3.2	-14
S1: 미국, 중국 등 세계경기둔화	-0.8	-0.2	-40
S2: 국제유가 상승	-0.3	+0.2	-36
S3: 원자재가격 상승	-0.1	+0.2	-45
S4: 원/달러 환율 상승	+0.3	+0.8	+33
S5: 엔/달러 환율 하락	+0.2	+0.1	+20
S6: 세계개편에 따른 조세 감면	+0.1	+0.0	-6
기본전망(S1+S2+S3+S4+S5+S6)	4.5(-0.6)	4.3(+1.1)	-88(-74)

주: () 안은 기존전망대비

(2) 경제성장

■ 2008년 실질GDP 4.5% 성장 전망

- 2008년 실질GDP는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의 회복세 둔화와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에 의한 수출 증가세 하락으로 연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5.0%('07년 연간) → 4.5%('08년 연간): 4.6%(상반기), 4.4%(하반기)
-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의 증가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실질GDP는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세계경제 여건의 악화로 민간소비 증가율 감소가 상반기에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되어 2008년 민간소비는 연간 4.4%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08년 민간 주택건설부문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 건설투자 역시 큰 폭의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전체 건설투자는 2.0% 증가 전망
 - 2008년 설비투자는 내수회복세 약화와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의 대외여건으로 인해 증가율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어 6.7% 증가 전망

- 2007년 12.1% 증가한 총수출(재화 및 서비스)은 2008년에 원화절하 효과와 개도국 경제의 고성장 등의 호재가 있으나 미국경제의 성장 둔화와 함께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해 9.6% 증가로 둔화될 전망

■ 2008년 민간소비 4.4% 증가 전망

- 2008년 민간소비는 지난해보다 둔화된 연간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
 - 4.5%('07년 연간) → 4.4%('08년 연간): 4.4%(상반기), 4.4%(하반기)
 - 200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가시화 되고 있는 미국경제 불황과 원자재가격 및 유가의 지속적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고조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
 - 통계청 가계조사에 의하면 2007년 4/4분기 가계실질소득은 전년동기 대비 전혀 증가하지 않았으며 실질소비지출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소비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것으로 보임.

〈표 II-4〉 가계수지¹⁾ 추이

(단위: 천 원,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7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실질소득	금액	3,141	2,956	3,117	3,088
	증가율	4.0	1.0	4.9	0.0
실질소비지출	금액	2,220	2,010	2,116	2,092
	증가율	2.1	1.2	5.5	-1.7

주: 1) 분기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실질소득 및 실질소비지출
 자료: 통계청

■ 2008년 건설투자 2.0% 증가 전망

- 건설투자는 2007년 상반기 재정조기집행의 기저효과로 인해 2008년 상반기 1.5%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 공공부문 주도로 인해 2.3% 증가하여 연간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2%('07년 연간) → 2.2%('08년 연간): 1.5%(상반기), 2.3%(하반기)
 - 건설투자는 재정조기집행의 기저효과와 주택미분양물량의 누적 등으로 상반기 1.5%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
 - 국토균형개발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
- 2008년 하반기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위주의 회복세에 내수확대에 근거한 민간부문의 증가로 상반기에 비해 증가율이 확대될 전망
-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의 착공과 평택 미군기지 이전 공사 등으로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
 - 2007년 4/4분기 건설수주 확대의 영향과 신도시 주택공급 및 비주거용 건설투자 확대에 의해 민간부문 건설투자도 증가할 전망: 판교(7.5천), 김포(7천), 광교(2천), 파주(2.6천), 동탄1(5천) 등 2008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예정물량 20만 호는 지난해 14.4만 호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

■ 2008년 설비투자 6.7% 증가 전망

- 비록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80%를 상회하고 있지만 국내기계수주는 지난 4/4분기 29.9% 증가에 비해 2008년 1, 2월 평균 19.0%의 증가세에 머무르고 있고 세계경제 둔화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 상존에 인해 그 증가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7.4%('07년 연간) → 6.7%('08년 연간): 4.3%(상반기), 9.1%(하반기)
- 설비투자는 세계경제 성장둔화의 가속이 예상되는 상반기에는 제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설비투자조정압력의 점진적 회복과 새 정부의 각종 투자활성화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07년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4/4분기 및 2008년 1, 2월에 회복하고 있음.
 - 법인세 인하와 각종 규제 철폐 등으로 투자활성화를 모색하는 새 정부의 노력은 시차를 두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
 - 제조업 평균가동률 역시 증가세를 유지: 80.1%('07년 3Q) → 81.2%(4Q) → 81.4('08년 1, 2월)

〈표 II -5〉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p,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1, 2월 평균
제조업생산증가율(A)	8.6	4.0	6.3	6.1	11.2	10.8
제조업생산능력증가율(B)	4.1	4.3	4.3	5.6	6.1	5.7
설비투자조정압력(A-B)(%p)	4.5	-0.3	2.0	0.5	5.1	5.1
제조업 평균가동률	80.0	79.4	80.7	80.1	81.2	81.4

자료: 통계청

(3) 대외거래

■ 2008년 수출증가율, 대외여건 악화로 소폭 둔화 전망

- 2008년 미국경기는 주택경기 하락, 서브프라임의 여파로 성장률이 1% 미만으로 둔화될 전망
 - 주택경기의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 및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 미국의 경기둔화는 일본, EU지역, 중국 등의 대미수출 감소를 통해 세계경제 성장세를 둔화시킬 것
 - 우리의 대중국수출의 상당 부분³⁾이 미국 등 제3국 수출으로의 우회수출인 점을 감안할 때 중국수출의 둔화는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2월 중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9.6%로 감소 추세로 반전됨.
- 중국은 2008년에도 인플레이션, 경기과열, 자산가격 상승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긴축적인 금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3) 2005년 회계연도의 중국 현지 법인(전체 13,224개 중 4.5%인 598개가 분석대상이며 투자잔액 기준으로는 57.8%)의 매입 중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140억 달러로 전체 우리나라 대중국수출의 약 23%를 차지. 중국 현지법인의 매출 중 36.3%는 제3국으로의 수출(한국수출입은행, 『2005 회계연도 중국 및 미국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2006. 12)

- 이로 인해 중국의 성장 속도가 낮아지면서 우리의 대중국 수출증가세도 둔화될 전망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인상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요인
 - 국제 원자재가격의 강세는 교역조건 악화뿐 아니라 인플레이 방어를 위한 각국의 금리인상을 통해 세계교역을 위축시키는 요인
 - 또한 위안화 절상 가속화로 중국의 수출이 둔화되면 우리의 대중국 부품 및 투자재의 수출 둔화가 불가피
- 하지만 악화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출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에 힘입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 유지 전망
- 1996년 17%였던 대미수출비중은 2006년에는 13%로 감소한 반면 대중수출비중은 9%에서 21%, 대EU수출비중은 12%에서 15%로 증가하는 등 수출지역이 다변화됨.
 - 대미수출비중이 낮아지고 대중수출비중은 높아진 점에서는 같으나 대EU수출비중이 감소 내지 정체한 여타 아시아 지역의 국가들과는 다른 모습

〈표 II -6〉 중국, 미국, EU에 대한 아시아 각국의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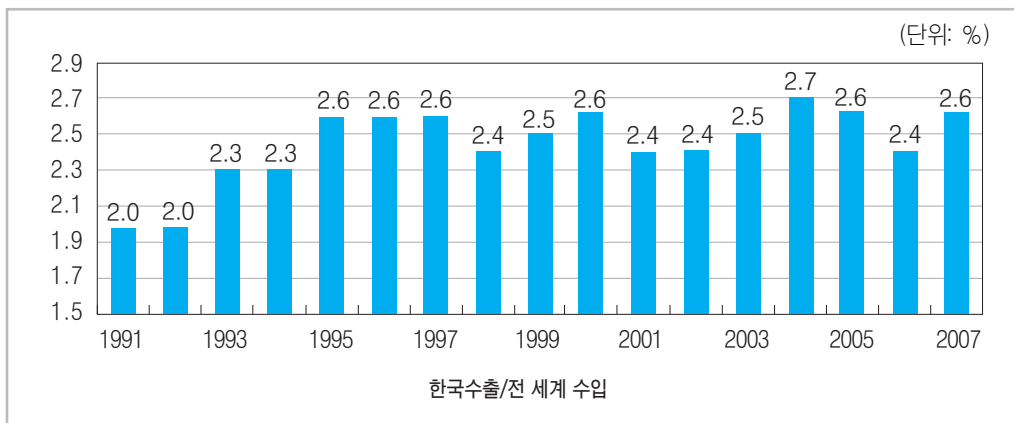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1996년			2006년		
	대중국	대EU	대미국	대중국	대EU	대미국
중국	-	16	18	-	19	21
홍콩	34	15	21	47	14	15
인도	2	26	20	7	22	17
인도네시아	4	17	14	8	12	11
한국	9	12	17	21	15	13
말레이시아	2	14	18	7	13	19
필리핀	2	19	34	10	19	18
싱가포르	3	13	18	10	11	10
대만	1	14	23	23	12	14
태국	3	17	18	9	14	15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경제에 대한 해외시각』, 2007. 9. 10.

- 지속된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출증가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 수출 품의 비가격경쟁력이 개선된 데 기인
 - 수출시장 점유율은 수출품의 비가격경쟁력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우리 수출의 세계시장점유율은 환율하락이 지속된 2000년대에도 2.4~2.7% 수준을 유지

〈그림 II-1〉 주요국별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DB

- 2008년에는 경상수지가 1997년 83억 달러 적자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약 88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
- 우선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면서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수입증가율은 달러 약세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7년 하반기에 이어 2008년에도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
-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경쟁력 부족, 원화 강세 등으로 해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적자확대 추세를 지속할 전망
 - 법률, 회계, 광고 등의 분야는 경쟁력 열위에 있고 여행, 교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는 내국인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증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국내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원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데다 내년 베이징 올림픽으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 확대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

(4) 물가

■ 200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 원자재가격 강세 및 중국발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2007년(2.5%)보다 높은 4.3%로 전망됨.

-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격은 세계경제가 급락하지 않는 한 강세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올해 세계경제 성장세는 선진국 경기 둔화의 심화와 더불어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업국의 성장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전반적인 둔화 양상을 보일 전망
 - 곡물 등 국제 원자재가격도 수급불균형 문제⁴⁾에 달려약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에 따른 원자재 등 실물자산 투자 증가가 가세하면서 당분간 강세를 보일 전망
- 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등의 급등추세 지속이 원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물가상승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
 - 국제 밀가루 가격 등 곡물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밀가루 관련 외식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이처럼 밀가루 가격이 급격히 오르면서 제과·제빵·라면 등 밀가루 관련 제품의 가격인상과 유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전기, 가스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
- 중국발 인플레이션도 점차 국내에 파급될 것으로 보임.
 - 세계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의 물가상승은 결국 위안화 평가절상, 수출보조금 축소 등과 맞물려 전 세계 인플레이션으로 파급될 위험성

4)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 곡물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연료 생산 증가 등으로 곡물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구온난화 등에 따른 가뭄 및 홍수로 인해 작황은 부진

(5) 시장금리

■ 2008년 시장금리는 소폭 상승한 평균 6.0%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정책 금리 인하 및 새 정부의 경기활성화 우선 정책 등이 국내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
 - 국제 원자재가격급등세 및 환율상승 등으로 물가불안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기업의 설비투자 확대 전망 등이 국내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
 - 현재로서는 경기활성화정책에 따른 투자 확대 및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 등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지난해보다 시장금리를 끌어올 것으로 예상

■ 경제살리기를 위한 친기업정책 등의 영향에 따른 투자증가로 자금수요는 완만하게 증가할 전망

- 국내 경제는 원화약세 등에 힘입은 수출의 견조한 증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설비투자 및 고용확대 등을 시행함으로써 내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정부도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에 대응하여 규제완화, 투자여건 개선 등 내수활성화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이후 지속된 대기업의 보수적 투자성향이 다소 개선되면서 민간부문의 자금 수요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당분간 정책금리 동결 가능성

- 물가상승 부담을 안고 있는 한국은행은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의견을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있는 정부는 금리인하에 대한 압력을 강화
- 그러나 한국은행이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정책금리를 인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
- 3월 중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상승,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2.5~3.5%)를 4개월 연속 벗어나고 근원인플레이션(농산물과 석유류 제외 지수)

- 이 2005년 2월(3.4%) 이후 최대인 3.3%를 기록함으로써 한은이 금리인하로 기
울 가능성은 낮아짐.
- 국제 원자재가격의 고공행진, 환율상승 등이 높은 수준의 물가를 유지시킬 것이
기 때문에 금리하락 요인의 비중은 낮음.
 -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으나 국내외 금리차 확대 및 경기둔화세 억제 등을 감안
할 때 금리인상은 고려치 않을 것으로 보임.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범위(3%대)를
넘어선 가운데 성장세 둔화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현 수준의 정책금
리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증권사 등으로 시중자금 이동이 둔화되면서 은행의 자금여건이 개선됨에 따
라 은행채 및 CD 발행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며 이에 저축성수신금리도 하락
세로 반전할 전망

<표 II -7> 은행의 CD 및 은행채 수신

(단위: 기간 중 말잔 증감, 조 원)

구 분	'05년 연중	'06년 연중	2008년			
			연중	12월	1월	2월
CD	16.4	11.4	28.2	0.4	6.9	3.7
은행채	8.2	31.6	29.2	-0.4	3.4	0.3

자료: 한국은행

■ 시장금리는 상반기에 높은 수준을 보였다가 하반기에 하락세를 보일 전망

- 상반기에는 국제금리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물가불안 등에 따라 금리는 1분기에
6.4%, 2분기에 6.0%를 기록할 전망
- 하반기에는 세계경제의 둔화가 국내경기에 본격적으로 전염되면서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국내외 높은 금리차를 이용한 재정거래 기회확대로 외국인의 국내채권투자 확대

가 금리하락에 기여할 것

- 일본·EU 등이 금리인하에 나설 경우 국내금리 하락압력을 더욱 커질 것
- 시장금리가 3분기 5.7% 내외를 기록한 후 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불안 완화와 경기회복조짐 등에 따라 소폭 상승할 전망

■채권시장의 수급여건 낙관하기 어려울 전망

- 올해 채권 공급이 전년에 비해 늘어나고 위축된 채권수요 기반도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워 채권시장의 수급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
- 국민연금의 기금운영계획상 채권투자 규모 순증이 지난해 12.2조 원에서 올해 3.4조 원으로 축소
- 2분기 이후 은행채의 순발행 압력이 만기물량 감소 등으로 완화되고 9월 국고채의 대규모 만기도래(21조 원)로 수급여건이 점차 개선될 전망
- 외국인 채권투자는 통화스왑 등을 활용한 차익거래 기회 등으로 올해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6) 환율

■2008년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오른 평균 980원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외국인의 배당금 역송금 달러수요, 3개월 연속 경상수지 적자, 정부의 환율상승 용인 자세 등으로 적어도 4월까지의 환율의 강한 하방 경직성이 유지될 가능성
- 당분간 글로벌 금융 불안의 파고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유지되면서 980~1,010원대의 박스권이 형성될 전망
- 외국인 배당금 송금 시즌이 지난 5월부터는 경상수지 적자의 고착화가 환율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만일 그때에도 글로벌 금융 불안이 지속되면 원화약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
- 글로벌 금융 불안과 미국의 경기침체 진입 등으로 달러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원화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 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부각된 탓
- 정부의 환율정책이 원/달러 환율 전망의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물가불안을 어느 정도 용인하더라도 수출 확대를 5%대 성장률 달성을 위해 1,000원 선 내외의 환율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정부로서도 1,000원 선 위의 높은 환율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부담스러울 것임.
- 최근 달러 매입 혹은 매도 시장 개입에 나선 것은 환율변동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980~1,000원대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임.
- 원화약세의 핵심 요인인 글로벌 금융 불안의 해소가 본격화 될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성은 크게 약화될 전망
- 미국의 금융 불안은 적어도 올 상반기까지는 지속되다가 하반기부터 서서히 풀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
- 한미 간 금리차가 하반기에도 좁혀지지 않을 경우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 다만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와 1,680억 달러 규모의 긴급재정확대 등의 경기회복 효과가 하반기에 나타날 경우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 올 하반기에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이 강화될 경우 원화강세요인으로 작용
- 하반기에 글로벌 금융불안의 완화와 미국의 경기부양 효과 및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에 힘입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되면 원/달러 환율은 960~980원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금융불안의 진정으로 외국인의 증권투자가 다시 확대되면 자본수지도 개선되어 원/달러 환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표 II -8〉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GDP	5.0	5.1	4.1	4.2	4.6	4.5
(SA, 전기비%)		0.1	0.9	1.7	1.7	
민간소비	4.5	4.5	4.3	4.2	4.5	4.4
건설투자	1.2	1.8	1.3	2.0	2.6	2.0
설비+무형고정자산	7.4	4.0	4.6	9.7	8.5	6.7
수출(재화+서비스)	12.1	13.0	10.4	8.4	7.2	9.6
수입(재화+서비스)	11.9	13.4	11.4	10.2	8.7	10.9
소비자물가	2.5	3.8	4.5	4.4	4.3	4.3
생산자물가	2.6	6.3	6.6	5.4	4.1	5.6
경상수지(억 달러)	59.5	-79.5	-46.0	9.4	27.9	-88.2
상품수지(억 달러)	294.1	-5.7	11.7	68.2	59.8	134.1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1001.3	1049.7	1037.1	1143.3	4231.4
증가율%	14.2	15.8	13.0	10.5	8.1	11.7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1007.0	1038.0	968.8	1083.5	4097.3
증가율%	15.5	25.2	20.8	15.1	9.4	17.2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73.8	-57.7	-58.8	-31.9	-222.3
환율(원/달러, 평균)	929.3	956.0	996.0	989.0	980.0	980.3
회사채수익률(3yrs, AA-)	5.7	6.4	6.0	5.7	5.9	6.0
실업률(%)	3.2	3.5	3.3	3.2	3.2	3.3

(7) 성장을 5%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 대외여건 악화를 상쇄하는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정책 필요

- 앞서 살핀 대외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해외수요 증대에 의한 성장률 제고는 어렵기 때문에 내수 활성화가 유일한 현실적 방안임.
- 특히 국내외 환율이 우리 수출증대에 우호적인 쪽으로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 상승요인에 의한 수입부담 급증으로 해외수요에 바탕을 둔 성장 제고는 어려운 상황
- 따라서 국내 경제활성화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성장제고 방안
- 성장률이 5.0%가 되기 위한 필요한 내수 증가율은 4.9%
- 전적으로 고정투자에 의존해 이를 달성할 경우 실질 고정투자증가율은 기본 전망 4.3%보다 1.5%포인트 높은 5.8%가 되어야 함.

〈표 II -9〉 2008년 5% 성장률 달성에 필요한 내수증가율 조합

(단위: %)

구 분	기본전망	소비의존 방안	소비와 투자 조합	투자의존 방안
내수증가율	4.3	4.9	4.9	4.9
민간소비	4.4	5.4	4.9	4.4
고정투자	4.2	4.2	4.9	5.8
GDP 증가율	4.5	5.0	5.0	5.0

- 따라서 규제개혁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지속할 필요
- 전경련이 조사한 2008년 30대 그룹의 투자계획은 89.9조 원(지난 12월 조사)에서 92.8조 원(전년대비 23.0%)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기업들이 새 정부의 기업투자환경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 본원이 예상한 2008년 고정투자 금액은 실질 233.6조 원(전년대비 4.2% 증가), 경상 277.0조 원(전년대비 6.8% 증가)
- 기본전망 시 올 고정투자 중 30대 그룹의 투자비중은 2007년(29.1%)보다 약 1.9%포인트 높아진 31%, 30대 그룹의 투자증가율은 12.2%로 가정

- 새 정부의 기업투자환경 개선 노력으로 이 투자계획이 100% 추진될 경우(30대 그룹의 투자증가율이 기본전망 12.2%에서 23.0%로 상승) 고정투자는 본원 전망에 비해 약 5.1조 원 증가하여 6.5%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됨 이때 성장률은 5.2%로 높아짐.
- 경기부진 가시화될 경우, 상반기 중 금리인하 고려
-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2.5%였으므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의 상한선(2007~2009년 3.5%)을 감안할 때 현 물가상승추세는 단기적으로 수용가능

■ 생산비용절감을 통한 물가안정화 정책 추진 필요

- 현재 진행되는 물가상승은 해외발 비용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총수요억제정책보다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물가안정정책이 바람직
- 고비용구조 해소(물류, 유통구조 개선, 규제비용 및 세금부담 완화)
- 임금안정 및 생산성향상

■ 환율보다는 서비스부문 경쟁력 제고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

- 해외발 비용상승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원화절하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 압력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 서비스수지 개선방안(“Ⅲ.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 방안” 참조)
- 연수 및 유학수지 개선: 교육시스템의 경쟁력 강화
- 여행수지 개선: 해외소비억제보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주력
 - 사업서비스수지 개선: 아웃소싱 등을 통한 분업과 전문성 향상
 - 서비스산업 대형화: 대기업 진출과 기업 간 M&A 활성화

제3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1. 문제제기
2. 서비스수지 적자 현황 및 요인
3.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방안

1. 문제제기

- 최근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적자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다방면에서 개선방안이 강구되고 있음.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과 원화 강세 등 대외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호조세를 보이던 수출이 새해 들어 현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 서비스수지 적자도 그 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환율재평가를 통한 경상수지 적자 해소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 경상수지 적자는 상품시장의 부진에도 원인이 있지만, 서비스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근본적인 원인임.
 - 상품수지 적자는 경기변동적 요소가 크며,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인한 단기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큼.
 - 2007년 기간 동안 원화의 상대적 강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출산업은 호조세를 유지해 왔음.
 - 이는 그동안 기업들의 수출시장 다변화 및 품질경쟁력 제고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그러나 서비스수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고, 최근 들어 적자폭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서비스수지 적자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닌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현 추세가 계속될 경우, 서비스수지 적자로 인한 우리나라의 대외불균형의 심화는 우리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본 보고서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원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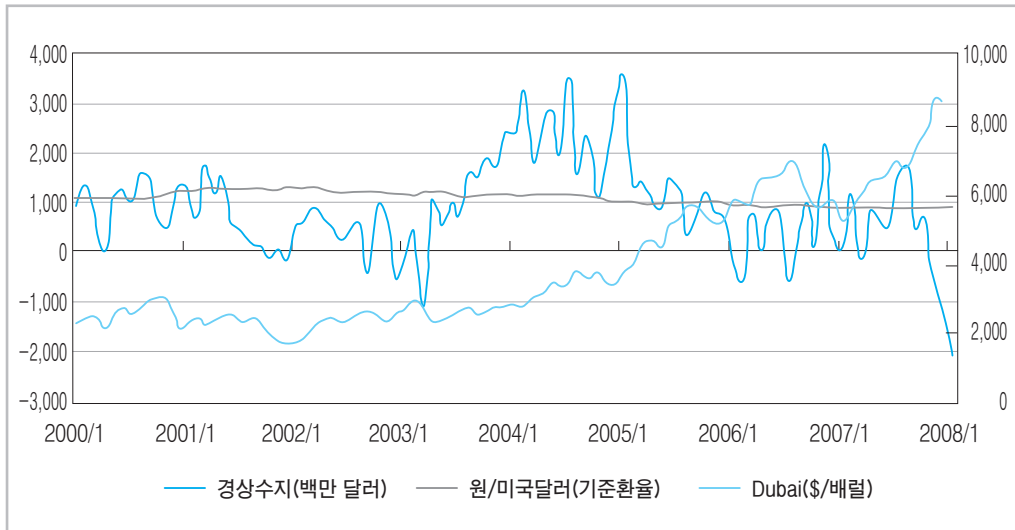
2. 서비스수지 적자 현황 및 요인

(1) 경상수지 현황

■ 국제유가 및 원화 강세 등 대외적 환경의 추세적 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흑자추세를 유지하던 경상수지가 최근 적자로 반전

- 2000~2007년 10월, 월평균 경상수지는 10억 달러의 흑자를 보임.
 -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9% 하락했고, 국제유가는 231%의 증가세를 보임.
- 경상수지는 2007년 11월 7억여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07년 12월, 10.7억 달러 → '08년 1월, 20.3억 달러)

<그림 III-1> 2000년 이후 경상수지 및 대외환경 변화 추이



자료: 한국은행

5) 두바이유 기준

제III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 최근의 경상수지 적자반전은 상품수지의 악화와 고질적인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에 기인
 - 그간 지속적인 흑자추세를 유지하던 상품수지는 국제신용시장 경색 및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대외환경 악화로 2007년 10월을 기점으로 축소추세를 보임.
 - 2008년 1월 상품수지는 592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

〈표 III-1〉 최근 경상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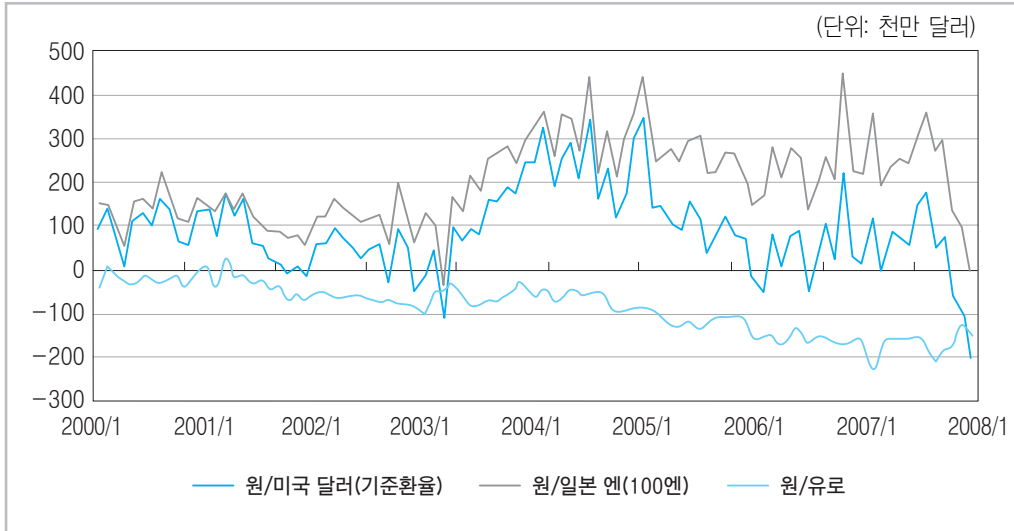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1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경상수지	1,145.7	2,101.5	3,701.0	-994.0	-2,033.5
상품수지	7,623.6	7,279.1	9,309.4	5,197.3	-59.2
서비스수지	-5,603.8	-4,760.7	-5,497.4	-4,713.0	-1,527.5

주: * 계절조정 수치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적자폭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Ⅲ-2〉 경상수지 세부품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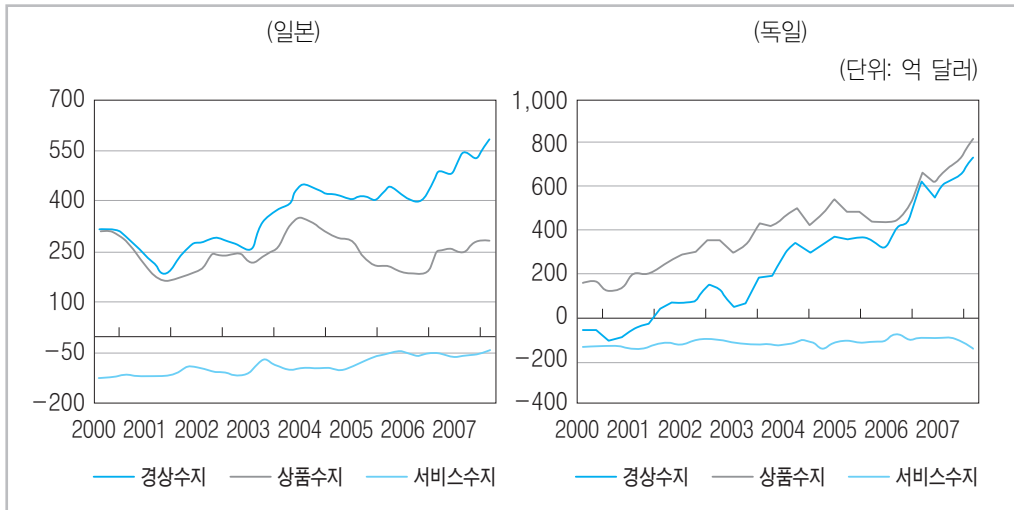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에서 서비스수지의 적자는 국제적인 현상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행 및 사업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문제

-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강한 나라에서는 서비스수지의 적자현상이 나타나고, 상품시장에서의 비교우위로 경상수지는 전반적인 흑자를 유지
 - 전통적 제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경우, 서비스수지는 적자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상품수지의 지속적인 확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
 - 두 나라의 경우 서비스수지가 적자이긴 하지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그림 III-3〉 일본과 독일의 경상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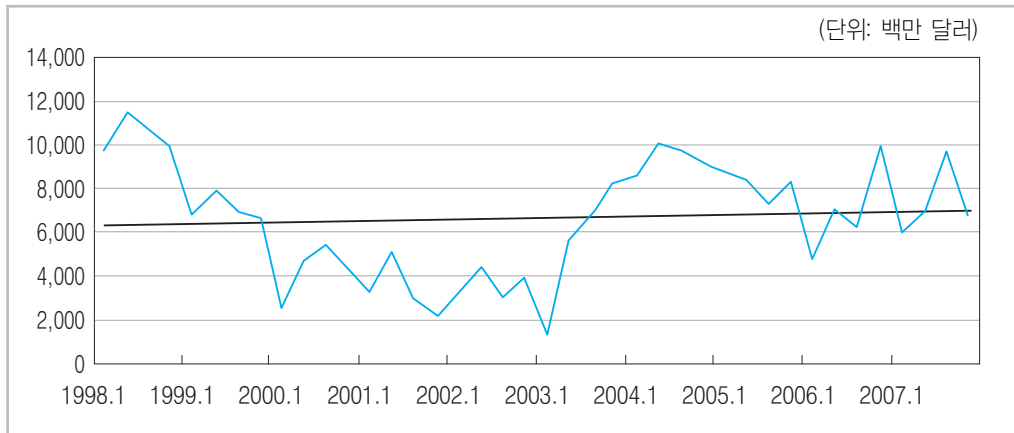


자료: OECD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상품수지의 뚜렷한 확대기조가 없고, 서비스수지 적자도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고 있음.

- 1998년 이후 상품수지는 60억~80억 달러를 중심으로 등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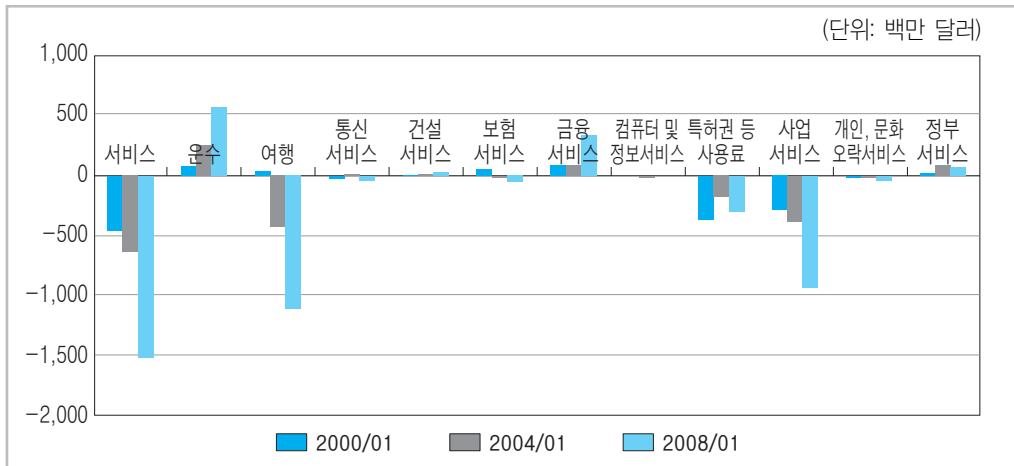
〈그림 III-4〉 우리나라 상품수지 변동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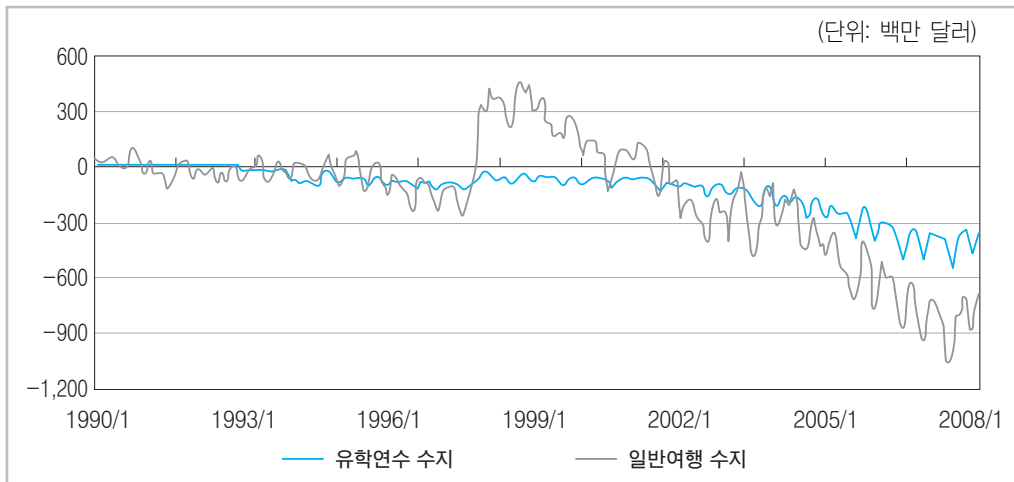
- 2000년 1월~2008년 1월간 서비스수지 적자와 사업서비스수지 적자는 각각 229%, 230% 증가했으며
- 균형상태를 유지하던 여행수지 적자도 2001년 이후 유학과 해외여행 급증으로 크게 악화되어 2008년 1월 현재 11.2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함.

〈그림 III-5〉 서비스수지 세부품목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I-6〉 여행수지 세부품목 추이



자료: 한국은행

(2) 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가. 서비스산업의 현황

■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서비스산업은 고용과 대외무역 측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나, 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증가율 측면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00년 이후 서비스산업 취업자 비중은 7.8% 증가함.
 - 이는 제조업 퇴출인력의 서비스산업 유입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같은 기간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취업자 비중은 11.3% 감소

〈표 III-2〉 산업별 취업자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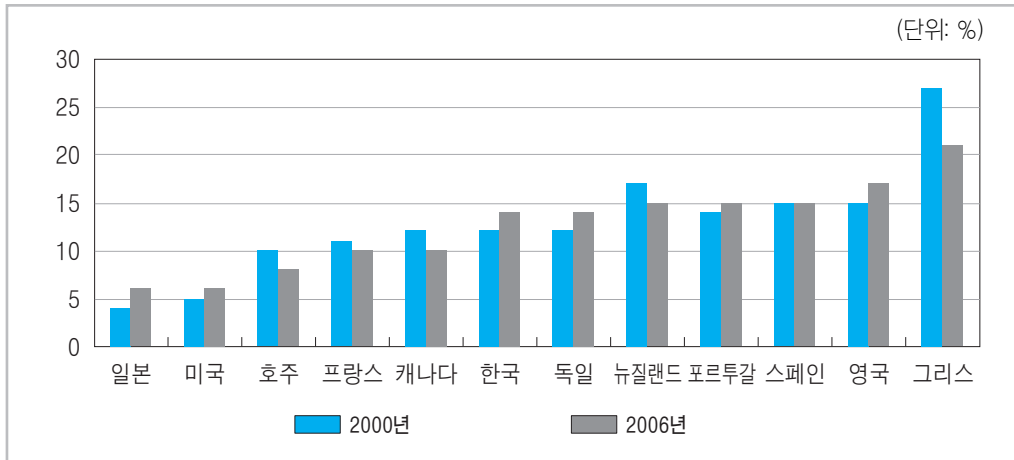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농림·어업	10.6	10.0	9.3	8.8	8.1	7.9	7.7
광공업	20.4	19.9	19.2	19.1	19.1	18.6	18.1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3	0.3	0.2	0.3	0.3	0.3	0.3
건설업	7.5	7.3	7.9	8.2	8.1	7.9	7.9
서비스산업	61.2	62.6	63.3	63.6	64.4	65.2	66.0

주: 서비스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

- 또한 서비스 관련 무역도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
 - 2000~2006년간 GDP 대비 서비스업 무역의 비중은 12%에서 14%로 증가

<그림 III-7> 국가별 서비스업의 GDP 대비 무역 비중



자료: WDI

- 반면,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비중과 생산증가율은 낮은 수준
 - 서비스업의 총부가가치 비중은 2000~2007년간 4% 감소
 - 같은 기간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의 비중은 14.8% 증가를 기록
 - 제조업과 비교해 서비스업의 생산증가율은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음.

제III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표 III-3〉 산업별 총부가가치 비중

(단위: %)

구 분	농업, 임업 및 어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서비스업
2000년	4.9	29.8	2.6	8.4	54.4
2001년	4.7	29.3	2.7	8.5	54.8
2002년	4.3	29.5	2.7	8.2	55.4
2003년	3.9	30.2	2.7	8.6	54.6
2004년	4.1	31.9	2.8	8.3	53.0
2005년	4.0	32.7	2.9	8.0	52.5
2006년	3.7	33.8	2.8	7.6	52.1
2007년	3.5	34.2	2.8	7.4	52.1

주: 서비스산업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한국은행

〈표 III-4〉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생산증가율 추이

(단위: %)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
서비스업	6.14	4.84	7.84	1.55	1.92	3.37	4.16	4.84	4.33
제조업	16.98	2.16	7.60	5.52	11.10	7.07	8.39	6.45	8.16

자료: 한국은행

■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규모면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영세적인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서비스사업 분야에서 10인 이하 기업의 비중이 90%를 초과
 - 사업서비스와 보건관련 분야의 10인 이하 기업 비중은 2006년을 기준으로 각각 80.6%, 87.1%
 - 2006년을 기준으로 10인 이하 기업의 비중은 96.1%를 기록

〈표 III-5〉 종사자규모별 10인 이하 기업체수 비중

(단위: %)

구 분	2000년	2006년
도매 및 소매업	97.4	96.7
숙박 및 음식점업	99.1	98.2
부동산 및 임대업	94.9	93.3
사업서비스업	86.2	80.6
교육 서비스업	-	92.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2.5	87.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94.6	97.3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97.1	97.4
기타 서비스업	97.8	98.7
전체	97.1	96.1

자료: 통계청

- 또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 컨설팅 산업의 약 50%, 시장조사업 부문 시장점유율 상위 3개사가 모두 외국계⁶⁾ 기업에 점유되는 등 국내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대부분이 선진기술을 앞세운 외국기업들에 선점되고 있음.
 - 주요 지식기반산업인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부문의 비중이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

6) 고정민, 「전략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CEO Report』, 제512호, 삼성경제연구원, 2005.

제III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표 III-6〉 세계 주요국의 지식기반서비스업 비중*

(단위: %)

구 분	지식기반서비스업			합 계
	통신	금융	사업서비스	
미 국	3.5	8.8	10.3	22.6
일 본	1.6	6.4	7.8	15.8
독 일	2.3	4.5	13.2	20
프랑스	2.2	5.0	13.4	20.6
영 국	2.9	5.2	12.7	20.8
OECD 평균	2.7	6.7	9.6	19
한 국	2.1	6.6	4.0	12.7

주: * 총부가가치 대비 비중

자료: OECD,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 Scoreboard, 2003, 재인용

– 노동생산성의 개선도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표 III-7〉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율 추이

(단위: %)

기 간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평균
1970~2004년	4.7	5.8	7.5	1.6	1.7	4.1
1970~1980년	1.6	3.9	6.8	-1.1	1.2	3.2
1980~1990년	6.9	4.5	6.4	5.3	2.7	5.5
1990~2004년	5.4	8.1	8.7	0.9	1.4	3.8

자료: 산업연구원, 『산업구조 변화가 생산성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2005.

■ 영세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은 다른 선진국에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

– 2003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비중은 부가가치와 고용 측면에서 OECD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

〈표 III -8〉 주요 OECD 국가 서비스부문의 경제적 비중(2003년 기준)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룩셈부르크	멕시코	OECD 평균
부가가치 비중	57.2	68.6	77.3	70.2	73.1	73.6	83.1	70.7	68.8
고용비중	63.5	66.0	78.8	70.4	78.3	73.9	77.2	55.5	68.6

주: 영국은 2002년 기준, 미국은 2001년 기준임.

자료: OECD

- 생산성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크게 부진한 실정
 - 우리나라 제조업과 비교해서 서비스업의 1995~2004년간 평균 노동생산성은 66% 수준에 지나지 않음.⁷⁾
 - 국제적으로도 1995~2004년간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주요국의 61% 수준이며, 제조업은 87% 수준을 기록⁸⁾
 - 이와 같이 낮은 생산성으로 인해 우리 서비스업의 비교우위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표 III -9〉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성 비교우위 비교

구 분	제조업					서비스산업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한국	0.912	0.953	0.976	0.98	1.014	0.603	0.609	0.616	0.615	0.592
프랑스	1.205	1.233	1.186	1.163	1.159	1.219	1.22	1.188	1.181	1.171
독일	1.044	1.074	1.02	0.999	1.008	1.011	1.023	1.008	0.991	0.970
일본	1.122	1.107	1.081	1.099	1.117	1.136	1.158	1.149	1.138	1.111
영국	1.043	1.092	1.056	1.038	1.042	0.904	0.919	0.904	0.908	0.916
미국	1.464	1.501	1.556	1.525	1.563	1.484	1.511	1.484	1.483	1.495
평균	1	1	1	1	1	1	1	1	1	1

자료: 최봉현 외,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2007.

7) 최봉현 외,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2007.

8) OECD, "National Account of OECD Countries", 2006.

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저하 원인

■ 과도한 규제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도로 인해 서비스업의 투자가 부진

- 제조업에 대한 불균형적인 지원으로 인한 서비스업의 소외는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2004년을 기준으로 제조업 종사 기업들이 매출액의 2.45%를 연구개발에 투자한 반면, 서비스업 기업들의 투자는 2.32%에 그침.
 - 서비스업부문에서의 혁신 노력은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대기업의 서비스부문 투자는 매출액 대비 1.36%에 지나지 않고 있음.

〈표 Ⅲ-10〉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혁신투자 비교

(단위: 10억 원, %)

구 분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전체	
	R&D 투자	매출액 대비연구비	R&D 투자	매출액 대비연구비	R&D 투자	매출액 대비연구비
제조업	9762.8	2.26	2637.9	3.53	12400.7	2.45
서비스업	626.2	1.36	684.3	6.67	1310.5	2.32
사업 서비스업	187.9	1.68	636.6	7.3	824.4	4.14

자료: 과학기술부, 「2004년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 2004년 7월, 재인용

■ 투자가 저조하고, 노동생산성도 낮은 서비스업 분야에 노동력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노동 생산성 저하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음.

- 제조업에서 퇴출된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진출하면서, 이미 낮은 생산성을 가진 서비스업으로의 노동력 유입이 증가⁹⁾
 - 한국의 퇴직연령은 50세 가량으로 OECD 평균인 55~64세보다 낮은 편
 - 이들 퇴직자들의 다수가 서비스산업으로 유입되어, 55세 이상 근로자들 중 40%

9)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7.

가 주로 서비스산업부문에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종사자의 3분의 1이 자영업자이거나 가족단위 경영을 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19%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임.

3.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방안

■ 우리나라 대외불균형의 주요 원인인 서비스수지 적자는 서비스산업의 구조적인 열악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장기적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필요로 함.

- 앞에서 보듯이, 서비스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서비스 부문의 열악한 산업구조로 인한 저조한 경쟁력에 기인한 것임.
- 또한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러한 전략이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음.
-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감안할 때, 독일과 일본처럼 상품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세계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급선무

(1) 환율절하를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 원화가치 절하를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은 물가상승 압력을 심화시킬 것

- 본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08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이 980원대에서 1,000원대로 상승하게 될 경우, 성장률은 0.1%포인트, 경상수지는 약 10억 달러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소비자물가는 0.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계속될 전망이고, 세계적으로 물가상승 기조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환율절하로 인한 추가적 물가상승 압력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

제III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 물가상승 압력의 심화로 야기되는 기대인플레이션 심리는 임금인상 압력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것
- 또한 혼조상태의 현재 경제상황하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환율시장 개입(가능성)은 국제투자자들의 우리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음.

〈표 III-11〉 2008년 경제전망

구 분	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억 달러)
전망 I	4.5	4.6	-86
전망 II	4.6	4.8	-76

주: 전망 I과 II는 각각 환율이 980원과 1,000원으로 상승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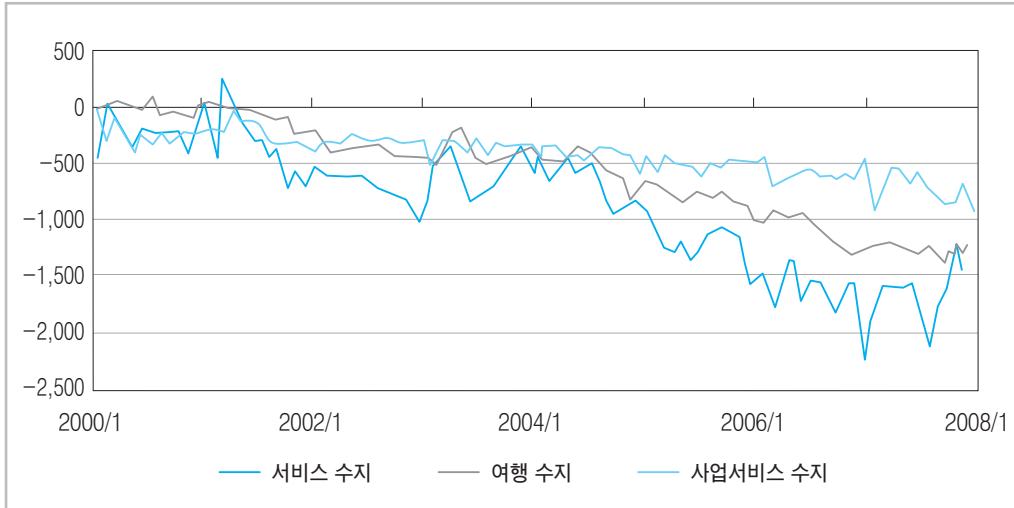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 따라서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많은 인위적인 원화가치 하락보다는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적 원인이 되고 있는 서비스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2) 여행 및 사업서비스수지의 개선

- 서비스수지 적자의 심화는 여행 및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이들 분야에 대한 대책이 우선되어야

〈그림 III -8〉 여행 및 사업서비스 수지의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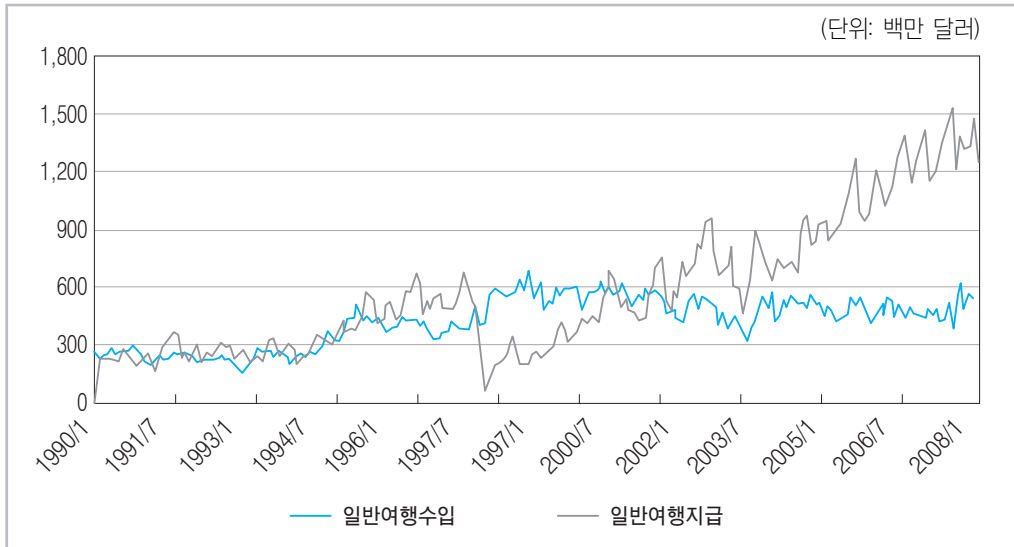
■ 여행수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연수 및 유학수지의 개선을 위해 교육시스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

- 해외연수의 대부분이 영어습득을 위한 것임을 감안, 공교육기관의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영어마을과 같은 프로그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열악한 학급규모 내지 교육기반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의 다양성을 제고해야

■ 해외여행의 경우 억제방안보다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에 더욱 주력해야

- 1990년 이후, 일반여행 수입은 정체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일반여행지급은 외환위기 이후 급증 추세
 - 일반여행수지는 1990년 이후 외환위기 전까지 소폭의 적자를 보이며 안정세를 유지('90년 1월~'97년 10월간 월평균 일반여행수지 적자는 47백만 달러)
 - 외환위기 이후 흑자반전했던 일반여행수지는 2001년 후반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인 적자 확대 추세를 보임.

〈그림 Ⅲ-9〉 일반여행 수입 및 지급 추이



자료: 한국은행

- 1997년 이후 해외로 나가는 한국인의 수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증가율은 감소 추세
 - 1997~2006년간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래객의 수는 57.5% 증가한 반면, 해외로 나가는 내국인의 수는 169.6% 증가함.
 - 이에 따라 같은 기간 관광수입은 거의 정체되어 있는 반면, 관광지출은 111.7% 증가

〈표 III-12〉 내외국인 출입국 동향

구분	외래객 입국		내국인 출국		관광수입		관광지출		관광수지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1997년	3,908	6.1	4,542	-2.3	5,116.0	-5.8	6,261.5	-10.1	-1,145.6
1998년	4,250	8.8	3,067	-32.5	6,865.4	34.2	2,640.3	-57.8	4,225.1
1999년	4,660	9.6	4,341	41.6	6,801.9	-0.9	3,975.4	50.6	2,826.5
2000년	5,322	14.2	5,508	26.9	6,811.3	0.1	6,174.0	55.3	637.3
2001년	5,147	-3.3	6,084	10.5	6,373.2	-6.4	6,547.0	6.0	-173.8
2002년	5,347	3.9	7,123	17.1	5,918.8	-7.1	9,037.9	38.0	-3,119.1
2003년	4,753	-11.1	7,086	-0.5	5,343.4	-9.7	8,248.1	-8.7	-2,904.7
2004년	5,818	22.4	8,826	24.5	6,053.1	13.3	9,856.4	19.5	-3,803.3
2005년	6,022	3.5	10,078	14.2	5,793.0	-4.3	12,025.0	22.0	-6,232.0
2006년	6,155	2.2	11,610	15.2	5,294.5	-8.6	13,783.0	14.6	-8,488.5
2007년	5,895	4.2	12,243	15.6	4,642.0	5.3	13,253.5	17.3	-8,611.5

주: 2007년은 1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임.
 자료: 출입국사무소

-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부재로 내외국인들의 관광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임.
- 따라서 여행수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해외여행 억제방안의 강구보다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
- 세계경제포럼의 2007년 보고서¹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행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은 124개국 중 42위로 홍콩(6위), 일본(25위), 대만(30위) 등 다른 아시아국가에 비해 크게 뒤져
- 물가부문에서는 90위를 기록

10) World Economic Forum,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7", 2007.

제Ⅲ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 또한 외국인의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하고, 국내 관광자원의 마케팅이나 브랜드 활용도 취약한 것으로 지적됨.
-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싸고 질 좋은 관광품목 개발과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여행정보 전달, 그리고 관련 규제의 완화가 필요
- 관광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외국인 고용을 유연화하여야
 - 관광산업 부문 외국인 고용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118위로 최저 수준¹¹⁾
 -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의 최대 불편사항인 언어소통 문제를 외국인 고용을 확대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음.
 - * 한국관광공사가 2006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래관광객들의 59.5%가 언어소통의 불편함을 지적¹²⁾
- IT 기술을 기반으로 one-stop-service와 같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여행정보 전달 방안을 강구할 필요
 - 대부분의 외래여행객들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정보를 얻으나, 관광정보 입수 용이도 면에서 5점 만점에 3.62점에 그치고 있음.¹³⁾
- 문화유산과 자연경관 등 우리나라의 천연관광자원 개발 및 홍보에 더욱 힘써야
 - 외국인의 주요 방문동기는 한국에 대한 문화적 호기심
 - 그러나 문화유산 및 자연경관은 상대적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¹⁴⁾
-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국인 지출경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숙박비용¹⁵⁾의 인하 등을 통한 기존의 경쟁력 개선방안을 확대해
 - 2005년 국가별, 연령별 차이를 고려한 한류를 이용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로

11) World Economic Forum, "The Travel and Tourism Competitiveness Report 2007", 2007.

12) 한국관광공사, 「2006년 외래여행객 실태조사」, 2006.

13) ibid

14) ib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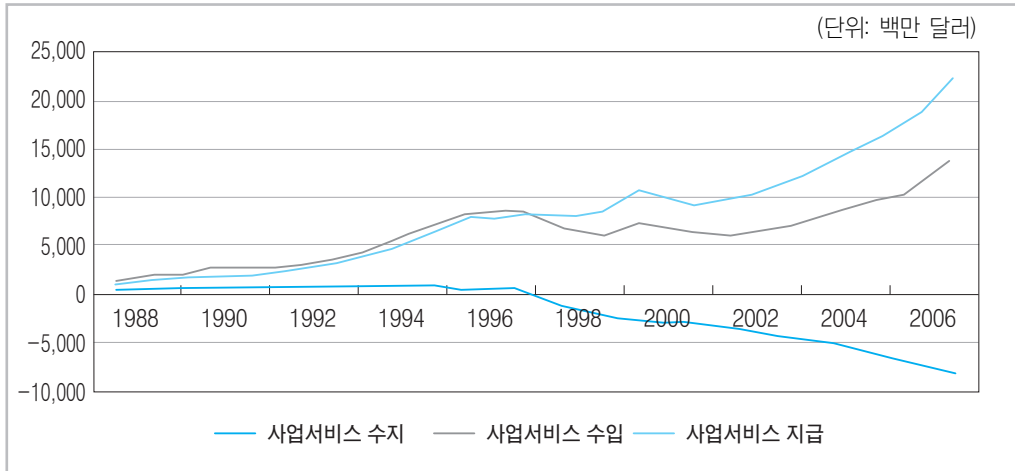
15) ibid

- 6백여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바 있음.¹⁶⁾
 - 외국인들의 주요 방문동기이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음식관련 관광사업 아이디어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
 - 2007년 시작된 BENIKEA(Best Night in Korea) 프로그램의 확대¹⁷⁾
- 규제완화를 통하여 시장수요에 맞춘 위락도시 개발을 활성화하여야
- 현행법 상,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에서 건축허가까지 10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행정절차에만 약 4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 등 규제에 의한 경제적 손실이 큼.
- 1998년 이후 점차 국제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사업서비스 부문의 경쟁력향상을 위해서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아웃소싱 등을 통하여 분업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해야 함.
- 1998년 전후까지 안정적인 균형상태를 유지해 오던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그 후 점차 확대 추세에 있음.

16) OECD, Tourism in OECD Countries 2008: Trends and Policies, 2008.

17) BENIKEA 프로그램은 관광비용의 주요 품목인 숙박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저급 관광호텔을 중심으로 도입됨.

〈그림 Ⅲ-10〉 사업서비스 수지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사업서비스는 제조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상대적으로 전문고급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장기적인 시야를 가지고 구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과의 공조를 통한 아웃소싱 활성화로 분업화 및 전문화를 도모해야 함.
 - 고등교육기관의 경쟁 도입 등으로 사업서비스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전문고급인력의 확보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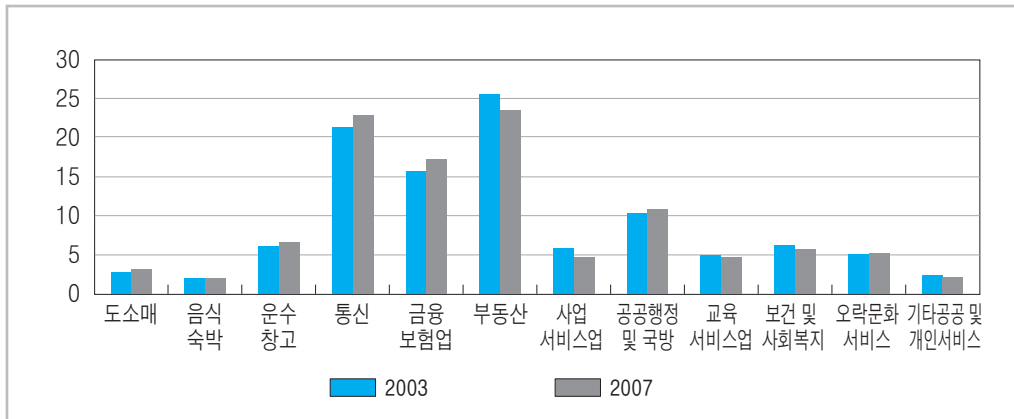
(3) 기타 경쟁력 강화 방안

-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향상 노력은 비효율적이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거나 미래유력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
 - 통신 및 금융보험업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음.
 - 사업서비스(생산자서비스)의 경우, 생산성은 낮으나 다른 세부산업과 비교하여 소득탄력성이 가장 큰 산업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¹⁸⁾

18) 최봉현 외, 『서비스산업의 미래와 경쟁전략』, 산업연구원, 2007.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질 높은 사업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기존의 내부생산이 외주로 확산될 것
- 현재 사업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1.7 내외에서 수렴

〈그림 III-11〉업종별 생산성 추이



자료: 통계청

■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도입 및 투자 활성화 필요

- 진입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기업의 진출과 기업 간 M&A를 활성화시켜 서비스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생산력 향상(규모의 경제)과 종사인력의 업종전환을 유도할 필요
 - 2007년 6월 현재 서비스산업 543개 업종 중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수는 67.4%인 366개¹⁹⁾이며, 이 중 강한 법적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수는 172개임.
 - 진입장벽비율은 운수 및 창고업과 교육서비스업과 같이 생산성이 낮은 부문과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문에 걸쳐 골고루 높게 나타남.
 - 도소매업이나 사업서비스업과 같이 진입장벽은 낮으나 생산성이 높지 않은 분야에서는 M&A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음.

19) 이병희 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한국은행, 2007.

제Ⅲ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표 Ⅲ-13〉 서비스업종별 법적 진입장벽(2007년 6월 말 기준)

(단위: 개, %)

산업명	업종수	진입장벽업종수 ¹⁾	정부독점	지정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신고	진입장벽비율 ²⁾	비중(%) ³⁾		
											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도매 및 소매업	162	67 (25)	-	2	21	2	-	24	18	15.4	31.2	22.6	12.1
음식 및 숙박업	22	22 (4)	-	-	4	-	-	3	15	18.2	22.4	15.7	4.6
운수 및 창고업	48	42 (24)	2	1	7	13	1	18	0	50.0	12.2	8.2	8.2
통신업	9	9 (5)	1	-	4	-	-	3	1	55.6	0.3	1.3	4.8
금융 및 보험업	34	34 (27)	4	3	15	-	5	7	-	79.4	1.3	5.5	14.9
부동산 및 임대업	21	14 (4)	-	-	1	3	-	8	2	19.0	4.2	3.7	12.4
사업서비스업	70	37 (11)	-	-	4	7	-	10	16	15.7	3.2	9.9	9.9
교육서비스업	23	23 (12)	-	-	-	-	12	11	-	52.2	4.6	11.1	10.2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2	22 (9)	1	-	7	-	1	1	12	40.9	2.7	6.0	5.7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55	41 (11)	-	2	6	-	3	13	17	20.0	4.6	3.7	2.7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49	28 (13)	1	-	10	2	-	5	10	26.5	12.7	7.4	3.4
가사서비스업	1	0 (0)	-	-	-	-	-	-	-	0.0	-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	25 (25)	25	-	-	-	-	-	-	100.0	0.5	5.0	11.2
국제 및 외국기관	2	2 (2)	2	-	-	-	-	-	-	100.0	-	-	-
총계	543	366 (172)	36	8	79	27	22	103	91	31.7	100	100	100

주: 1) () 안은 등록 및 신고 이외의 진입장벽이 있는 업종수

2) 등록 및 신고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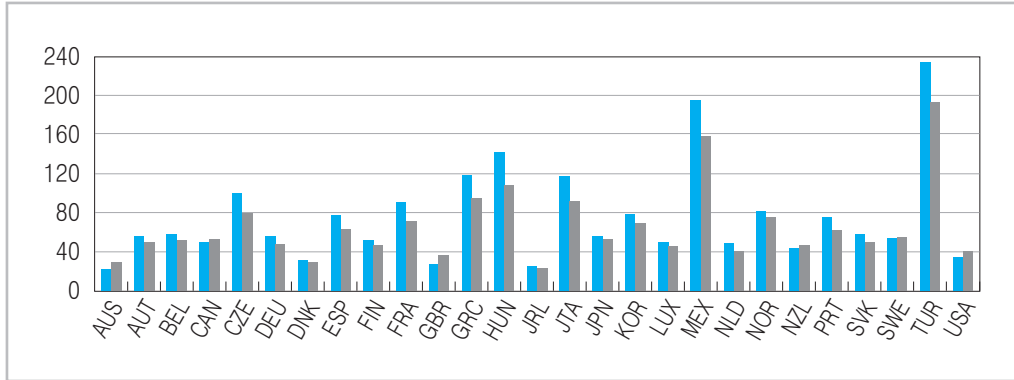
3) 통계청 「전국사업체기초통계」, 한국은행 「국민계정」, 2005 기준

4) 음영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과 '국제 및 외국기관' 을 제외하고 강한 진입장벽비율이 50%를 상회한 산업을 표시

자료: 이병희 외,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 분석」, 한국은행, 2007.

- 특히 사업서비스의 경우, 규제완화로 인한 수출창출효과가 수입창출효과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되어 만성적 서비스수지 적자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그림 III-12〉 규제완화의 수출입 창출효과 국제 비교



자료: OECD

- 한·미 FTA를 통한 서비스시장의 개방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전망
-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유형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부문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 방안 필요
 - 위탁훈련비용에 대한 세액공제²⁰⁾
 - 무형자산을 위주로 하는 서비스업체들의 평가시스템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영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여 전략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야 함.
- 외국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기술이전으로 생산성 제고를 도모해야
 - 2002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분야 외국인직접투자는 44%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장벽을 암시²¹⁾
 - 은행업의 경우 외국인투자의 적극적 유치로 경쟁도입 및 선진금융기법의 도입, 위험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개선된 바 있음.²²⁾

20) 문화관광부(2007),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과 같은 세제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R&D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21) OECD, "OECD Economic Surveys: Korea", 2007.

22) Kim, Hyunwook, "Understanding and regulation of increasing foreign capital in the banking sector", Korea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Paper 2005-07, 2005.

제Ⅲ장 이슈분석: 서비스산업 제도개선을 통한 경상수지 개선방안

■ 교육서비스업의 경쟁도입으로 서비스인력의 전문화를 도모하는 한편, 제조업 퇴출 인력의 서비스산업으로의 유입을 억제해야

- 교육서비스업의 진입장벽비율은 52.2로 통신업과 금융보험업에 이어 서비스업종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연장자우선 (seniority-based pay)이 아닌 생산성을 근거로 한 임금체계(productivity-based pay)의 도입이 필요

• 인구고령화에 따라 제조업 분야의 인력부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기퇴출은 바람직하지 않음.

• 또한 조기퇴출 근로자들의 대규모 서비스업 유입으로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따라서 정년제 폐지 및 고용의 유연화 등과 함께 생산성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정부지원의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 정부지원의 지나친 확대는 영세기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서비스산업 부문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음.

- 또한 정부지원의 확대는 현행 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원화 및 단순화 정책에 역행할 소지가 있음.

• 2007년 현재 174개의 상이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들이 12개의 부처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전국은행(national banks)과 지역은행(regional banks)의 대출 중 각각 40%와 60%가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쓰이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급격한 유동성 증가의 우려로 2006년 12월 지원범위를 축소한 바 있음.

- 따라서 직접적 지원보다는 세계개혁이나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의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이 더 바람직함.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 분	경제성장률		1인당	소비		투자			
	GDP	제조업	GNI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달러	전년동기 대비(%)					
2003년	3.1	5.5	12,717	-1.2	3.8	4.0	-1.2	7.9	
2004년	4.7	11.1	14,206	-0.3	3.7	2.1	3.8	1.1	
2005년	4.2	7.1	16,413	3.6	5.0	2.4	5.7	-0.2	
2006년	5.1	8.5	18,401	4.5	6.2	3.6	7.8	-0.1	
2007년	5.0	6.5	20,045	4.5	5.8	4.0	7.6	1.2	
2003년	1/4	3.8	5.8		0.7	4.0	4.7	2.3	7.7
	2/4	2.2	3.3		-1.5	3.7	4.2	-0.4	7.9
	3/4	2.3	4.2		-2.0	3.7	2.7	-4.6	7.7
	4/4	4.1	8.6		-2.0	3.8	4.3	-2.0	8.3
2004년	1/4	5.4	11.9		-1.3	3.7	2.4	-0.1	4.9
	2/4	5.7	13.6		-0.3	4.8	4.7	6.4	3.8
	3/4	4.7	11.7		-0.7	3.7	2.9	6.8	1.0
	4/4	3.3	7.7		0.9	2.8	-1.1	2.4	-3.3
2005년	1/4	2.9	5.4		1.6	3.9	0.5	3.8	-3.3
	2/4	3.4	5.1		3.6	4.8	2.1	3.1	1.1
	3/4	4.8	7.5		4.4	6.0	2.2	5.0	-0.1
	4/4	5.5	10.1		4.8	5.4	4.3	10.8	0.4
2006년	1/4	6.3	10.1		5.3	5.7	4.2	7.1	1.1
	2/4	5.2	9.6		4.4	5.5	0.2	7.5	-5.3
	3/4	5.0	9.0		4.4	6.2	5.1	11.4	0.2
	4/4	4.2	5.6		3.9	7.2	4.9	5.4	3.6
2007년	1/4	4.0	3.8		4.1	6.3	7.2	10.9	3.7
	2/4	4.9	6.1		4.4	6.9	5.5	11	1.6
	3/4	5.1	6.3		4.8	4.5	1.3	2.3	-0.1
	4/4	5.7	9.5		4.6	5.6	2.9	6.5	0.4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 제 수 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2007년	3,714.9	14.1	9,083.8	15.3	294.1	59.5	2622.2	938.2
2005년 7월	232.4	10.6	215.1	17.0	30.5	12.4	2,056.8	1,028.3
8월	233.4	17.9	220.0	21.4	14.7	-5.3	2,067.1	1,031.0
9월	245.2	17.7	227.2	24.9	27.1	14.9	2,067.3	1,038.0
10월	253.5	11.9	226.5	11.0	34.8	28.3	2,073.1	1,042.7
11월	258.3	11.9	238.5	17.4	31.9	20.6	2,082.3	1,036.3
12월	256.3	10.5	241.9	15.4	16.7	2.8	2,103.9	1,013.0
2006년 1월	232.6	3.6	230.9	18.7	11.4	-2.7	2,169.3	971.0
2월	237.9	16.6	235.1	27.8	6.8	-12.2	2,159.5	969.0
3월	268.4	12.1	259.5	13.9	28.6	-4.9	2,173.4	975.9
4월	255.9	11.9	244.9	15.3	16.4	-19.8	2,228.9	945.7
5월	279.3	20.8	262.1	23.9	22.4	7.8	2,246.9	947.4
6월	279.5	17.9	260.2	22.2	32.3	14.3	2,243.6	960.3
7월	257.7	10.9	255.5	18.8	15.5	-2.3	2,257.2	953.1
8월	272.9	16.9	270.3	22.9	13.3	-7.3	2,270.2	959.6
9월	296.5	20.9	276.4	21.6	33.5	19.8	2,282.2	945.2
10월	280.2	10.5	256.2	13.1	26.3	17.8	2,294.6	944.2
11월	306.0	18.5	267.7	12.2	55.5	42.7	2,342.6	929.9
12월	287.8	12.3	275.2	13.8	17.0	0.6	2,389.6	929.6
2007년 1월	280.9	20.8	27,56	19.4	12.9	-4.3	2,402.3	940.9
2월	262.3	10.3	25,41	8.1	23.9	4.0	2,428.1	938.3
3월	303.9	13.2	29,30	12.9	23.6	-16.4	2,439.2	940.3
4월	299.4	17.0	29,60	20.9	15.2	-20.8	2,472.6	929.4
5월	310.4	11.1	29,86	13.9	22.4	8.4	2,507.4	929.9
6월	320.0	14.5	28,51	9.5	32.1	12.7	2,507.0	926.8
7월	302.1	17.2	29,22	14.4	30.4	15.5	2,548.4	923.2
8월	310.0	13.6	29,64	9.7	29.1	5.7	2,553.0	939.9
9월	293.2	-1.1	27,19	-1.6	37.3	23.0	2,572.9	920.7
10월	344.3	22.9	32,74	27.8	36.4	24.6	2,601.4	907.4
11월	358.1	17.0	33,93	26.8	26.4	15.0	2,619.3	929.6
12월	330.3	14.8	33,90	23.2	4.4	-8.1	2,622.2	938.2
2008년 1월	323.2	15.1	36,11	31.0	-11.0	-27.5	2,618.7	943.9
2월	311.6	18.8	32,41	27.6	-6.0	-23.5	2,623.6	937.3
3월	362.0	19.1	36,87	25.9				991.7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자율

구 분	물가 ²⁾		실업률	제조업	통화 ³⁾		회사채	주가지수
	생산자	소비자	(계절조정)	명목임금	신M2	M3	수익률	80.14=100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6년	2.3(2.3)	2.2(2.2)	3.5	5.7	8.3	7.9	5.17	1,352.2
2007년	2.7(2.7)	2.5(2.5)	3.2	6.6	11.2	10.9	5.70	1,713.2
2005년 7월	2.0(1.4)	2.6(2.1)	3.7(3.8)	6.6	7.9	7.5	4.52	1,058.7
8월	1.4(1.7)	2.0(2.4)	3.6(3.7)	9.6	7.7	7.6	4.75	1,101.8
9월	1.6(2.2)	2.5(2.9)	3.6(3.9)	5.6	6.5	6.9	4.92	1,171.0
10월	1.6(2.4)	2.3(2.7)	3.6(3.8)	10.0	6.5	6.9	5.20	1,190.9
11월	1.1(1.9)	2.5(2.3)	3.3(3.6)	6.7	6.6	7.2	5.50	1,253.3
12월	1.7(1.7)	2.6(2.6)	3.5(3.5)	0.7	7.0	7.3	5.49	1,338.8
2006년 1월	2.1(0.6)	2.2(0.6)	3.7(3.4)	24.1	7.3	7.2	5.50	1,379.3
2월	1.7(0.6)	2.0(0.8)	4.1(3.5)	-11.8	7.2	7.4	5.33	1,341.7
3월	1.4(0.7)	2.0(1.4)	3.9(3.5)	5.7	6.6	7.0	5.30	1,331.7
4월	1.5(1.5)	2.0(1.5)	3.5(3.5)	4.1	6.8	7.4	5.24	1,415.9
5월	2.6(2.1)	2.3(1.7)	3.2(3.4)	8.1	7.1	7.6	5.05	1,388.8
6월	3.2(2.1)	2.4(1.5)	3.4(3.5)	3.4	7.7	7.3	5.17	1,249.2
7월	2.8(2.5)	2.4(1.9)	3.4(3.5)	5.9	7.7	7.3	5.18	1,278.0
8월	3.4(3.4)	2.7(2.5)	3.4(3.5)	5.3	7.5	7.4	5.10	1,316.1
9월	3.1(3.6)	2.5(2.8)	3.2(3.4)	-0.2	8.9	7.9	5.02	1,356.5
10월	1.9(2.6)	2.2(2.3)	3.3(3.4)	13.1	10.1	8.7	4.93	1,354.0
11월	1.9(2.1)	2.1(1.8)	3.2(3.4)	6.1	11.1	9.4	5.05	1,403.9
12월	2.2(2.2)	2.1(2.1)	3.3(3.3)	6.9	11.4	9.6	5.18	1,418.8
2007년 1월	1.5(0.0)	1.7(0.2)	3.6(3.3)	-13.5	11.3	9.8	5.32	1,379.3
2월	1.7(0.2)	2.2(0.9)	3.7(3.2)	28.1	11.5	9.9	5.28	1,434.9
3월	2.2(0.7)	2.2(1.5)	3.5(3.2)	6.3	11.5	10.2	5.20	1,431.6
4월	2.5(1.8)	2.5(1.9)	3.4(3.3)	7.2	11.1	10.1	5.34	1,517.1
5월	2.5(2.4)	2.3(1.9)	3.2(3.4)	5.9	10.9	10.1	5.49	1,614.9
6월	2.7(2.6)	2.5(1.9)	3.2(3.3)	6.2	10.9	10.4	5.64	1,754.3
7월	2.4(2.8)	2.5(2.3)	3.2(3.4)	9.6	10.9	10.0	5.75	1,911.6
8월	1.7(2.8)	2.0(2.4)	3.1(3.2)	8.8	11.4	10.3	5.70	1,815.0
9월	2.1(3.6)	2.3(3.0)	3.0(3.2)	12.3	11.0	10.3	5.85	1,879.0
10월	3.4(3.8)	3.0(3.2)	3.0(3.1)	-0.6	10.8	10.4	5.98	2,004.6
11월	4.4(4.3)	3.5(3.2)	3.0(3.2)	5.9	11.3	10.4	6.16	1,924.8
12월	5.1(5.1)	3.6(3.6)	3.1(3.1)	6.7	11.5	10.6	6.73	1,903.6
2008년 1월	5.9(0.8)	3.9(0.5)	3.3(3.0)		12.5	11.4	6.14	1,732.3
2월	6.8(1.9)	3.6(0.8)	3.5(3.0)				6.27	1,689.5
3월	8.0(3.6)	3.9(1.8)					6.27	1,651.2

주: 2) ()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가율

3) 평잔기준

산업활동

구 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전산업	평균 가동률(%)	도소매 판매액	소비재 출하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공공	민간			
전년동기 대비(%)												
2005년	5월	5.2	77.3	3.2	0.3	-14.5	6.9	50.2	8.8	1.8	12.5	
	6월	4.3	79.3	3.6	2.3	-12.2	-0.9	35.4	8.6	2.6	11.4	
	7월	7.9	80.0	3.7	3.4	26.2	12.0	4.3	2.8	-4.2	5.7	
	8월	6.3	79.3	6.0	6.3	6.2	0.9	16.2	2.8	-12.1	9.4	
	9월	6.2	79.1	1.4	4.9	-0.6	1.3	23.7	0.8	-11.1	6.9	
	10월	6.5	79.1	4.1	4.5	0.7	5.8	-36.5	1.8	-4.8	4.2	
	11월	10.6	81.6	7.4	7.3	11.7	12.0	0.8	10.0	-4.4	16.5	
	12월	10.7	80.3	10.9	9.8	57.7	19.7	-18.6	4.5	1.3	4.5	
	2006년	1월	5.5	82.1	9.5	3.4	-2.3	2.8	10.9	-1.6	-15.5	4.5
		2월	18.7	80.4	0.5	12.3	9.7	5.5	29.0	7.2	-14.2	15.7
		3월	8.5	80.6	3.9	6.8	43	13.0	-34.1	3.3	-10.9	9.5
		4월	7.8	79.3	5.0	5.4	15.3	15.6	-17.7	-0.6	-7.3	2.6
5월		9.8	79.1	6.1	7.6	12.3	9.9	-21.7	-1.6	-6.6	0.4	
6월		9.3	80.2	5.7	6.1	35.1	2.2	-6.8	-0.9	-6.4	1.7	
7월		1.4	75.0	-0.6	1.3	6.9	5.2	6.8	-3.1	-2.9	-2.1	
8월		9.9	80.1	4.7	5.3	30.5	16.6	15.0	0.8	6.7	-0.2	
9월		17.9	82.0	5.3	16.3	33.5	17.3	98.5	13.2	17.2	11.2	
10월		4.8	81.4	4.2	2.6	46.2	7.3	-0.2	5.2	17.8	1.3	
11월		7.0	80.6	3.6	6.4	10.1	7.7	44.9	4.3	8.4	3.6	
12월		2.1	78.8	1.5	2.6	-2.9	4.6	29.8	5.0	8.8	3.7	
2007년	1월	8.6	79.2	1.0	10.4	32.1	18.6	9.7	12.9	18.1	11.3	
	2월	-0.2	79.8	10.6	6.9	22.1	14.5	40.1	9.1	27.0	3.1	
	3월	3.3	79.3	6.0	5.6	-25.7	6.9	32	3.0	19.0	-3.3	
	4월	6.2	80.2	4.0	9.3	0.9	15.6	48.9	7.0	8.4	4.0	
	5월	5.7	81.1	5.2	8.3	44.7	8.8	5.2	6.2	16.4	1.7	
	6월	6.6	80.9	3.5	4.4	18.9	11.3	28.8	4.9	11.9	1.2	
	7월	13.4	80.5	8.9	9.6	21.6	2.2	-14.9	13.2	14.9	10.6	
	8월	8.8	81.1	5.8	5.5	-10.8	3.5	13.4	8.6	5.0	8.2	
	9월	-3.0	78.8	6.4	-7.5	20.6	-3.7	-9.8	-6.3	-7.3	-6.5	
	10월	15.8	81.7	6.6	11.3	30.4	7.0	103.8	8.8	-4.6	13.0	
	11월	7.7	80.8	4.4	2.5	48.5	10.4	36.3	5.9	8.8	2.8	
	12월	9.6	81.0	2.6	2.8	29.3	10.1	1.4	9.2	3.7	9.8	
2008년	1월	11.3	82.1	4.6	8.2	49.0	-1.8	-13.1	10.8	16.8	5.7	
	2월	10.1	80.7	3.0	2.2	14.9	-1.9	-6.2	3.5	-0.4	2.4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1쇄 인쇄/2008년 4월 14일

1판1쇄 발행/2008년 4월 18일

발행처/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김중석

편집인/허찬국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56)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전경련회관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57 팩시밀리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57